#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8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VI-RBI-C-18022

# 제 출 문

한국정보화진흥원 귀하

## 본 보고서를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용역과제 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공동연구 책임자 : 최 두 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
장 주 병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윤리팀장)
이 주 황 (㈜코리아리서치센터 상무이사)
참 여 연 구 원 : 김 욱 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배 광 덕 (㈜코리아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이 재 인 (㈜코리아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이 채 린 (㈜코리아리서치센터 연구원)

# 목차


Ⅰ. 조사 개요 ····· 1

1. 조사 목적 ····· 3
2. 조사 연혁 ····· 3
3. 조사 내용 및 범위 ····· 4
   가. 학생 및 성인 ····· 4
   나. 교사 및 학부모 ····· 5
4.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 6
5. 조사 설계 ····· 7
6. 응답자 특성 ····· 8
   가. 학생 ····· 8
   나. 교사 ····· 9
   다. 학부모 ····· 9
   라. 성인 ····· 10

Ⅱ. 주요결과 요약 ····· 11

1. 사이버폭력 실태 ····· 13
   가. 2018년 사이버폭력 경험 ····· 13
   나. 2018년 가해 및 피해 유형 ····· 13
   다. 2017년 대비 사이버폭력 경험률 ····· 14
2. 사이버폭력 경험자 특성 ····· 15
   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 15
   나.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및 가해 후 심리 ····· 16
3.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 17
   가. 가정 및 학교의 심각성 인지 ····· 17
   나.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17
   다. 대응 교육 우선순위 ····· 18
4. 온라인 정보 판별 ····· 18
   가. 정보 판별 태도 ····· 18
   나. 허위사실 전파의 문제성 인식 ····· 19
   다. 교육 필요성 ····· 20

Ⅲ. 학생 대상 조사결과 ····· 21

1. 사이버폭력 경험 ····· 23
   가. 경험 현황 ····· 23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 24

다. 목격 현황 ····· 28
2. 사이버폭력 특성 ····· 31
가. 가해 행태 ····· 31
나. 피해 행태 ····· 36
3. 사이버폭력 원인 ····· 42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 42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 46
다.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 48
4. 온라인 정보 활용 ····· 49
가. 정보 판별 태도 ····· 49
나. 허위정보 피해 경험 ····· 53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 56

**Ⅳ. 성인 대상 조사결과 ····· 61**
1. 사이버폭력 경험 ····· 63
가. 경험 현황 ····· 63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 64
다. 목격 현황 ····· 68
2. 사이버폭력 특성 ····· 71
가. 가해 행태 ····· 71
나. 피해 행태 ····· 76
3. 사이버폭력 원인 ····· 82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 82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 86
다.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 89
4. 온라인 정보 활용 ····· 90
가. 정보 판별 태도 ····· 90
나. 허위정보 피해 경험 ····· 94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 97

**Ⅴ. 교사 대상 조사결과 ····· 103**
1. 지도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 ····· 105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 105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 108
가. 사이버폭력 인식 ····· 108
나. 사이버폭력 대응 ····· 111
3. 사이버폭력 예방 ····· 114
가. 사이버폭력 교육 ····· 114
4. 온라인 정보 활용 ····· 118

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 118
나. 허위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 120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 122
라. 교사의 정보 판별 태도 ····· 124

**Ⅵ.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 129**

1.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 ····· 131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 131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 134
가. 사이버폭력 인식 ····· 134
나. 사이버폭력 대응 ····· 137
3. 사이버폭력 예방 ····· 139
가. 사이버폭력 교육 ····· 139
4. 온라인 정보 활용 ····· 144
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 144
나. 허위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 146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 148
라. 학부모의 정보 판별 태도 ····· 150

**Ⅶ. 부록 ····· 155**

1. 설문지 ····· 157
가. 학생용 ····· 157
나. 성인용 ····· 168
다. 교사용 ····· 178
라. 학부모용 ····· 185

# 표 목차


**Ⅱ. 주요결과 요약 ····· 11**

[표Ⅱ-1] 폭력 유형별 경험률(학생, 성인) ····· 14
[표Ⅱ-2]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학생) ····· 16
[표Ⅱ-3]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성인) ····· 16
[표Ⅱ-4]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성인) ····· 19
[표Ⅱ-5] 정보 판별력 교육 필요성(학생) ····· 20

**Ⅲ. 학생 대상 조사결과 ····· 21**

[표Ⅲ-1] 사이버폭력 경험률 ····· 23
[표Ⅲ-2] 가해 유형별 경험률 ····· 24
[표Ⅲ-3] 가해 유형별 빈도 ····· 25
[표Ⅲ-4] 피해 유형별 경험률 ····· 26
[표Ⅲ-5] 피해 유형별 빈도 ····· 27
[표Ⅲ-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 28
[표Ⅲ-7] 목격 후 대응 ····· 29
[표Ⅲ-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 30
[표Ⅲ-9] 가해 대상 ····· 31
[표Ⅲ-10] 가해 수단 ····· 32
[표Ⅲ-11] 가해 방식 ····· 33
[표Ⅲ-12] 가해 사실 주변인지 ····· 33
[표Ⅲ-13] 가해 이유 ····· 34
[표Ⅲ-14] 가해 후 심리 ····· 35
[표Ⅲ-15] 가해 주체 ····· 36
[표Ⅲ-16] 피해 수단 ····· 37
[표Ⅲ-17] 피해 방식 ····· 38
[표Ⅲ-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 38
[표Ⅲ-19] 피해 후 대응 ····· 39
[표Ⅲ-20] 피해 후 미대응 이유 ····· 40
[표Ⅲ-21] 피해 후 심리 ····· 41
[표Ⅲ-22] 사실 확인 경험 ····· 49
[표Ⅲ-23]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50
[표Ⅲ-24] 사실 확인 이유 ····· 51
[표Ⅲ-25] 사실 확인 방법 ····· 52
[표Ⅲ-26]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 53
[표Ⅲ-27]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 54
[표Ⅲ-28] 잘못된 정보 종류 ····· 55

[표Ⅲ-29]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56
[표Ⅲ-30]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57
[표Ⅲ-31]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58
[표Ⅲ-32]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 59
[표Ⅲ-33]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 60

**Ⅳ. 성인 대상 조사결과 ····· 61**

[표 Ⅳ-1] 사이버폭력 경험률 ····· 63
[표 Ⅳ-2] 가해 유형별 경험률 ····· 64
[표 Ⅳ-3] 가해 유형별 빈도 ····· 65
[표 Ⅳ-4] 피해 유형별 경험률 ····· 66
[표 Ⅳ-5] 피해 유형별 빈도 ····· 67
[표 Ⅳ-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 68
[표 Ⅳ-7] 목격 후 대응 ····· 69
[표 Ⅳ-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 70
[표 Ⅳ-9] 가해 대상 ····· 71
[표 Ⅳ-10] 가해 수단 ····· 72
[표 Ⅳ-11] 가해 방식 ····· 73
[표 Ⅳ-12] 가해 사실 주변인지 ····· 73
[표 Ⅳ-13] 가해 이유 ····· 74
[표 Ⅳ-14] 가해 후 심리 ····· 75
[표 Ⅳ-15] 가해 주체 ····· 76
[표 Ⅳ-16] 피해 수단 ····· 77
[표 Ⅳ-17] 피해 방식 ····· 78
[표 Ⅳ-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 78
[표 Ⅳ-19] 피해 후 대응 ····· 79
[표 Ⅳ-20] 피해 후 미대응 이유 ····· 80
[표 Ⅳ-21] 피해 후 심리 ····· 81
[표 Ⅳ-22] 사실 확인 경험 ····· 90
[표 Ⅳ-23]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91
[표 Ⅳ-24] 사실 확인 이유 ····· 92
[표 Ⅳ-25] 사실 확인 방법 ····· 93
[표 Ⅳ-26]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 94
[표 Ⅳ-27]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 95
[표 Ⅳ-28] 잘못된 정보 종류 ····· 96
[표 Ⅳ-29]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97
[표 Ⅳ-30]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98
[표 Ⅳ-31]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99
[표 Ⅳ-32]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 100
[표 Ⅳ-33]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 101

**Ⅴ. 교사 대상 조사결과 ····· 103**

[표Ⅴ-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 105
[표Ⅴ-2]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106
[표Ⅴ-3]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 107
[표Ⅴ-4] 사이버폭력 심각성 ····· 108
[표Ⅴ-5]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 109
[표Ⅴ-6]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 110
[표Ⅴ-7]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여부 ····· 111
[표Ⅴ-8]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 112
[표Ⅴ-9]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 113
[표Ⅴ-10]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 114
[표Ⅴ-11]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평가 ····· 114
[표Ⅴ-12]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115
[표Ⅴ-13] 교육 대상 우선순위 ····· 116
[표Ⅴ-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 117
[표Ⅴ-15] 학생간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 118
[표Ⅴ-16] 학생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력 ····· 119
[표Ⅴ-17]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 120
[표Ⅴ-18] 학생이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 121
[표Ⅴ-19] 학생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 122
[표Ⅴ-20] 학생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 123
[표Ⅴ-21] 사실 확인 경험 ····· 124
[표Ⅴ-2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125
[표Ⅴ-23] 사실 확인 이유 ····· 126
[표Ⅴ-24] 사실 확인 방법 ····· 127
[표Ⅴ-25]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128

**Ⅵ.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 129**

[표Ⅵ-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 131
[표Ⅵ-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132
[표Ⅵ-3]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 133
[표Ⅵ-4] 사이버폭력 심각성 ····· 134
[표Ⅵ-5] 자녀 학교의 사이버폭력 심각성 ····· 135
[표Ⅵ-6]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 136
[표Ⅵ-7]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 137
[표Ⅵ-8]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 138
[표Ⅵ-9] 기존 예방 방법 ····· 139
[표Ⅵ-10]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방 방법 ····· 140
[표Ⅵ-11] 교육 이수 여부 ····· 141
[표Ⅵ-12] 교육 이수 의향 ····· 141

[표VI-13] 교육 대상 우선순위 ····· 142
[표VI-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 143
[표VI-15] 자녀 주변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 144
[표VI-16] 자녀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단력 ····· 145
[표VI-17]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 146
[표VI-18] 자녀가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 147
[표VI-19] 자녀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 148
[표VI-20] 자녀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 149
[표VI-21] 사실 확인 경험 ····· 150
[표VI-2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151
[표VI-23] 사실 확인 이유 ····· 152
[표VI-24] 사실 확인 방법 ····· 153
[표VI-25]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154

# 그림 목차


**Ⅱ. 주요결과 요약 ····· 11**

[그림 Ⅱ-1]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 13
[그림 Ⅱ-2] 폭력 유형별 경험률(학생+성인) ····· 13
[그림 Ⅱ-3] '17년 및 '18년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 14
[그림 Ⅱ-4] 사이버폭력 가해 수단(학생, 성인) ····· 15
[그림 Ⅱ-5] 사이버폭력 피해 수단(학생, 성인) ····· 15
[그림 Ⅱ-6] 사이버폭력 심각성 인지(교사, 학부모) ····· 17
[그림 Ⅱ-7] 학교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17
[그림 Ⅱ-8]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대상 우선순위 ····· 18
[그림 Ⅱ-9] 온라인 정보 사실 확인 경험 ····· 18
[그림 Ⅱ-10]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19
[그림 Ⅱ-11] 정보 판별력 교육 필요성 ····· 20

**Ⅲ. 학생 대상 조사결과 ····· 21**

[그림 Ⅲ-1] 사이버폭력 경험률 ····· 23
[그림 Ⅲ-2] 가해 유형별 경험률 ····· 24
[그림 Ⅲ-3] 가해 유형별 빈도 ····· 25
[그림 Ⅲ-4] 피해 유형별 경험률 ····· 26
[그림 Ⅲ-5] 피해 유형별 빈도 ····· 27
[그림 Ⅲ-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 28
[그림 Ⅲ-7] 목격 후 대응 ····· 29
[그림 Ⅲ-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 30
[그림 Ⅲ-9] 가해 대상 ····· 31
[그림 Ⅲ-10]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 32
[그림 Ⅲ-11] 가해 사실 주변인지 ····· 33
[그림 Ⅲ-12] 가해 이유 ····· 34
[그림 Ⅲ-13] 가해 후 심리 ····· 35
[그림 Ⅲ-14] 가해 주체 ····· 36
[그림 Ⅲ-15]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 37
[그림 Ⅲ-16] 피해 사실 주변인지 ····· 38
[그림 Ⅲ-17] 피해 후 대응 ····· 39
[그림 Ⅲ-18] 피해 후 미대응 이유 ····· 40
[그림 Ⅲ-19] 피해 후 심리 ····· 41
[그림 Ⅲ-20]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42
[그림 Ⅲ-21]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43
[그림 Ⅲ-22]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 44

[그림 Ⅲ-23]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 45
[그림 Ⅲ-24]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46
[그림 Ⅲ-25]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46
[그림 Ⅲ-26]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 47
[그림 Ⅲ-27]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 47
[그림 Ⅲ-28]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 48
[그림 Ⅲ-29]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 48
[그림 Ⅲ-30] 사실 확인 경험 ····· 49
[그림 Ⅲ-3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50
[그림 Ⅲ-32] 사실 확인 이유 ····· 51
[그림 Ⅲ-33] 사실 확인 방법 ····· 52
[그림 Ⅲ-34]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 53
[그림 Ⅲ-35]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 54
[그림 Ⅲ-36] 잘못된 정보 종류 ····· 55
[그림 Ⅲ-37]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56
[그림 Ⅲ-38]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57
[그림 Ⅲ-39]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58
[그림 Ⅲ-40]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 59
[그림 Ⅲ-41]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 60

**Ⅳ. 성인 대상 조사결과 ····· 61**

[그림 Ⅳ-1] 사이버폭력 경험률 ····· 63
[그림 Ⅳ-2] 가해 유형별 경험률 ····· 64
[그림 Ⅳ-3] 가해 유형별 빈도 ····· 65
[그림 Ⅳ-4] 피해 유형별 경험률 ····· 66
[그림 Ⅳ-5] 피해 유형별 빈도 ····· 67
[그림 Ⅳ-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 68
[그림 Ⅳ-7] 목격 후 대응 ····· 69
[그림 Ⅳ-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 70
[그림 Ⅳ-9] 가해 대상 ····· 71
[그림 Ⅳ-10]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 72
[그림 Ⅳ-11] 가해 사실 주변인지 ····· 73
[그림 Ⅳ-12] 가해 이유 ····· 74
[그림 Ⅳ-13] 가해 후 심리 ····· 75
[그림 Ⅳ-14] 가해 주체 ····· 76
[그림 Ⅳ-15]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 77
[그림 Ⅳ-16] 피해 사실 주변인지 ····· 78
[그림 Ⅳ-17] 피해 후 대응 ····· 79
[그림 Ⅳ-18] 피해 후 미대응 이유 ····· 80
[그림 Ⅳ-19] 피해 후 심리 ····· 81

[그림 Ⅳ-20]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82
[그림 Ⅳ-21]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83
[그림 Ⅳ-22]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 84
[그림 Ⅳ-23]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 85
[그림 Ⅳ-24]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86
[그림 Ⅳ-25]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87
[그림 Ⅳ-26]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 87
[그림 Ⅳ-27]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 88
[그림 Ⅳ-28]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 88
[그림 Ⅳ-29]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 89
[그림 Ⅳ-30] 사실 확인 경험 ····· 90
[그림 Ⅳ-3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91
[그림 Ⅳ-32] 사실 확인 이유 ····· 92
[그림 Ⅳ-33] 사실 확인 방법 ····· 93
[그림 Ⅳ-34]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 94
[그림 Ⅳ-35]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 95
[그림 Ⅳ-36] 잘못된 정보 종류 ····· 96
[그림 Ⅳ-37]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97
[그림 Ⅳ-38]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98
[그림 Ⅳ-39]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99
[그림 Ⅳ-40]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 100
[그림 Ⅳ-41]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 101

**Ⅴ. 교사 대상 조사결과 ····· 103**

[그림 Ⅴ-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 105
[그림 Ⅴ-2]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106
[그림 Ⅴ-3]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 107
[그림 Ⅴ-4] 사이버폭력 심각성 ····· 108
[그림 Ⅴ-5]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 109
[그림 Ⅴ-6]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 110
[그림 Ⅴ-7]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여부 ····· 111
[그림 Ⅴ-8]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 112
[그림 Ⅴ-9]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 113
[그림 Ⅴ-10]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및 평가 ····· 114
[그림 Ⅴ-11]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115
[그림 Ⅴ-12] 교육 대상 우선순위 ····· 116
[그림 Ⅴ-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 117
[그림 Ⅴ-14] 학생간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 118
[그림 Ⅴ-15] 학생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력 ····· 119
[그림 Ⅴ-16]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 120

[그림 V-17] 학생이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 121
[그림 V-18] 학생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 122
[그림 V-19] 학생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 123
[그림 V-20] 사실 확인 경험 ····· 124
[그림 V-2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125
[그림 V-22] 사실 확인 이유 ····· 126
[그림 V-23] 사실 확인 방법 ····· 127
[그림 V-24]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128

**V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 129**

[그림 VI-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 131
[그림 VI-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132
[그림 VI-3]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 133
[그림 VI-4] 사이버폭력 인지 및 심각성 ····· 134
[그림 VI-5] 자녀 학교의 사이버폭력 심각성 ····· 135
[그림 VI-6]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 136
[그림 VI-7]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 137
[그림 VI-8]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 138
[그림 VI-9] 기존 예방 방법 ····· 139
[그림 VI-10]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방 방법 ····· 140
[그림 VI-11] 교육 이수 여부 및 향후 이수 의향 ····· 141
[그림 VI-12] 교육 대상 우선순위 ····· 142
[그림 VI-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 143
[그림 VI-14] 자녀 주변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 144
[그림 VI-15] 자녀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단력 ····· 145
[그림 VI-16]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 146
[그림 VI-17] 자녀가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 147
[그림 VI-18] 자녀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 148
[그림 VI-19] 자녀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 149
[그림 VI-20] 사실 확인 경험 ····· 150
[그림 VI-2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151
[그림 VI-22] 사실 확인 이유 ····· 152
[그림 VI-23] 사실 확인 방법 ····· 153
[그림 VI-24]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154

#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 연혁 3

3. 조사 내용 및 범위 4
가. 학생 및 성인 4
나. 교사 및 학부모 5

4.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6

5. 조사 설계 7

6. 응답자 특성 8
가. 학생 8
나. 교사 9
다. 학부모 9
라. 성인 10

##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일반성인 및 학생 대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경험 비율을 파악하고,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도교육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향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2. 조사 연혁

| 조사 연도 | 자료수집 기간 | 특이사항 |
|---|---|---|
| 2013년 | 2013.10.30.~11.30. | ▪ 초중고생 1,500명(학년별 각 500명), 성인 500명, 초중고 교사 250명, 초중고생 학부모 250명 대상 조사 진행<br>▪ 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층화비례 후 초등학생은 개별 면접조사, 중·고등학생은 온라인 조사 진행<br>▪ 성인은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 이용자 수 기반 층화비례 후 온라인 조사 진행<br>▪ 교사 및 학부모는 모두 온라인 조사 진행 |
| 2014년 | 2014.11.10.~12. 5. | ▪ 초중고생 3,000명(학년별 각 1,000명), 성인 1,500명으로 표본 규모 확대<br>▪ 학생 및 교사 대상 우편조사로 변경<br>▪ 학생 및 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층화비례 후 학교목록에서 Kn번째 학교를 계통 추출하여, 선택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
| 2015년 | 2015.10.22.~12.15. | ▪ 학부모 대상 우편조사로 변경 및 응답 학생의 학부모 매칭하여 조사 실시<br>▪ 학생 및 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층화비례 후 학교목록에서 Kn번째 학교를 계통 추출하여, 선택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
| 2017년 | 2017. 9.25.~11. 3. |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 기반 교급/지역/학년별로 층화계통 추출하여 학생 대상 자료수집<br>▪ 학부모의 경우 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부모 중 1명) 대상으로 자료수집<br>▪ 기존 6개 사이버폭력 유형(언어,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유출, 따돌림)에서 '갈취' 유형 포함하여 경험 비율 확인 |
| 2018년 | 2018.10. 2.~11.23. | ▪ 조사 지역 모집단 추출 방식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br>▪ 갈취(´17년 신규 추가, 별도 파트 질문)와 강요(´18년 신규 추가) 유형을 기존 6개 폭력 유형(언어,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유출, 따돌림)과 함께 제시하여 경험 여부 질문함<br>▪ 신규 항목(온라인 정보 판별 관련) 추가 |

## 3. 조사 내용 및 범위

### 가. 학생 및 성인

| 구분 | 내용 |
|---|---|
| 인터넷<br>이용 행태 |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br>▪ 목적별 인터넷 이용시간 (학습, 미디어, 게임, 뉴스 등)<br>▪ 서비스별 인터넷 이용시간 (채팅/메신저, 커뮤니티, SNS 등)<br>▪ 사이버폭력 유형별 문제의식 수준<br>▪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 및 접촉 경로 |
| 사이버폭력<br>가해 경험 | ▪ 가해 경험 및 빈도(언어폭력/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신상정보 유출/따돌림/갈취/강요)<br>▪ 가해 대상 및 방식<br>▪ 가해 사실 주변 인지<br>▪ 가해 수단 및 이유<br>▪ 가해 후 심리 |
| 사이버폭력<br>피해 경험 | ▪ 피해 경험 및 빈도(언어폭력/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신상정보 유출/따돌림/갈취/강요)<br>▪ 가해 주체 및 피해 방식<br>▪ 피해 사실 주변 인지<br>▪ 피해 수단 및 피해 후 대응<br>▪ 피해 후 미대응 이유<br>▪ 피해 후 심리 |
| 사이버폭력<br>목격 경험 | ▪ 목격 경험<br>▪ 목격 후 대응 방법 및 미대응 이유 |
| 온라인<br>정보 활용 | ▪ 온라인 정보 사실 확인 여부<br>▪ 사실 확인 정보 종류 및 확인 이유·방법<br>▪ 온라인 정보 접촉·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br>▪ 사실 확인 필요성 교육 이수 경험 및 교육 필요도<br>▪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 및 잘못된 온라인 정보 종류<br>▪ 공유 정보에 허위사실 포함이 문제행동이라는 것 인지 여부 |
| 사회/심리<br>환경요인 | ▪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공격성, 충동성<br>▪ 부모·자녀간/가족구성원간 상호 작용<br>▪ 교우관계/주변관계 신뢰도<br>▪ 친구 환경<br>▪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 학교의 사이버폭력 통제력<br>▪ 사이버폭력 자각 태도 |

## 나. 교사 및 학부모

| 구분 | 내용 |
|---|---|
| 자녀/학생의 인터넷 이용행태 | ▪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br>▪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수준<br>▪ 온라인 교류 경험 |
| 학생/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 (교사, 학부모)<br>▪ 사이버폭력 심각성 인지 여부<br>▪ 학생/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대응 방식<br>▪ 그 외 학생 문제 심각도(학교폭력/언어폭력/심리적 문제 등)<br>▪ 교외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 공식적 규정 적용 여부<br>(교사)<br>▪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 주변 교사와 대화한 경험<br>▪ 근무 학교 사이버폭력 발생 여부<br>▪ 근무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도<br>▪ 근무 학교 사이버폭력 관련 공식 규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 여부<br>▪ 운영 규정 또는 프로그램 형태<br>▪ 공식 규정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br>▪ 도입되어야 할 규정 또는 프로그램 |
| 예방 활동 | ▪ 우선 교육 이수 필요 대상자<br>▪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여부<br>▪ 사이버폭력 교육의 효과성<br>▪ 그 외 학생 문제 관련 교육, 상담 빈도(학교폭력/언어폭력 /심리적 문제 등)<br>▪ 학생 보호 위한 각 기관 역할의 중요도 |
| 온라인 정보 활용 | ▪ 온라인 정보 사실 확인 여부<br>▪ 사실 확인 정보 종류 및 확인 이유·방법<br>▪ 공유 정보에 허위사실 포함이 문제행동이라는 것 인지 여부<br>▪ 자녀/학생들간 잘못된 온라인 정보 공유 심각성<br>▪ 자녀/학생들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력<br>▪ 자녀/학생 대상 사실 확인 필요성 지도 경험 및 교육 필요성<br>▪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 및 잘못된 온라인 정보 종류 |

## 4.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 본 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본 조사에서는 아래 8가지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분류하였음.

| 연번 | 사이버폭력 유형 | 정 의 |
|---|---|---|
| 1 | 사이버 언어폭력 |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
| 2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
| 3 | 사이버 스토킹 |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
| 4 | 사이버 성폭력 |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
| 5 | 신상정보 유출 |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
| 6 |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행위 |
| 7 | 사이버 갈취[1)] |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위 |
| 8 | 사이버 강요[2)]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1) 2017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폭력 유형임
2) 2018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폭력 유형임

## 5. 조사 설계

○ 정량조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지도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정성조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사례 등 심층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각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조사 규모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정량조사 | | | | 정성조사 |
|---|---|---|---|---|---|
| | 우편조사[3] | | | 온라인 조사[4] | 집단면접 (FGD) |
| 조사 대상 | 학생 | 교사 | 학부모 | 성인 |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
| 응답 대상자 | 초(고학년)·중·고등학생 | 조사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 | 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 (부모 중 1명) | 20~50대 성인 남녀 | (학생) 중·고등학생<br>(교사) 초·중·고 담임교사<br>(학부모) 초·중·고 자녀<br>(성인) 20~40대 직장인 |
|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 | | 서울 |
| 조사 규모 | 4,662명 | 300명 | 1,100명 | 1,500명 | 대상별 2개 그룹씩, 총 8개 그룹 (그룹당 4~5명씩 집단 인터뷰 진행) |
| 표본추출방법 | 층화계통 추출 | 학생 표집 위해 선정된 학교 교사 대상으로 표집[5] | 설문 참여 학생들의 학부모 대상으로 표집 | 인구비례 할당 | 임의추출 |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 ±1.43%p | ±5.65%p | ±2.95%p | ±2.53%p | - |
| 조사 기간 | 2018.10. 2.~11.23. | | | | 2018.11. 7.~15. |

3) 우편조사 자료수집 절차: 학교 리스트 추출 → 조사 대상 학교 선정 및 사전 전화 안내 → 선정된 학교로 공문, 설문 및 설문 안내서 발송 → 설문 수거 및 집계 → 최종 자료 검증
4) 온라인조사 자료수집 절차: 온라인 설문 제작 → 온라인 설문 로직 점검 및 최종 확정 → 패널 대상 온라인 설문 발송 → 최종 자료 검증
5) 1개 학교당 최대 2명의 교사 대상으로 표집(담임교사, 부장교사 혹은 학교폭력 지도 교사 등)

# 6. 응답자 특성

## 가. 학생

| 분류 | | 사례수 (명) | 비중 (%) |
|---|---|---|---|
| 교급 | 초등학교 | 1,518 | 32.6 |
| | 중학교 | 1,534 | 32.9 |
| | 고등학교 | 1,610 | 34.5 |
| 교급별 소계 | | 4,662 | 100.0 |
| 성별 | 남학생 | 2,550 | 54.7 |
| | 여학생 | 2,112 | 45.3 |
| 성별 소계 | | 4,662 | 100.0 |
| 성별 by 교급 | (남) 초등 | 751 | 16.1 |
| | (여) 초등 | 767 | 16.5 |
| | (남) 중등 | 871 | 18.7 |
| | (여) 중등 | 663 | 14.2 |
| | (남) 고등 | 928 | 19.9 |
| | (여) 고등 | 682 | 14.6 |
| 성별 by 교급별 소계 | | 4,662 | 100.0 |
| 지역 | 서울 | 497 | 10.7 |
| | 부산 | 225 | 4.8 |
| | 대구 | 225 | 4.8 |
| | 인천 | 225 | 4.8 |
| | 광주 | 225 | 4.8 |
| | 대전 | 225 | 4.8 |
| | 울산 | 225 | 4.8 |
| | 강원 | 225 | 4.8 |
| | 경기 | 790 | 16.9 |
| | 충북 | 225 | 4.8 |
| | 충남 | 225 | 4.8 |
| | 전북 | 225 | 4.8 |
| | 전남 | 225 | 4.8 |
| | 경북 | 225 | 4.8 |
| | 경남 | 225 | 4.8 |
| | 제주 | 225 | 4.8 |
| | 세종 | 225 | 4.8 |
| 지역별 소계 | | 4,662 | 100.0 |

## 나. 교사

| 분류 | | 사례수 (명) | 비중 (%) |
|---|---|---|---|
| 재직 교급 | 초등학교 | 94 | 31.4 |
| | 중학교 | 103 | 34.3 |
| | 고등학교 | 103 | 34.3 |
| 재직 교급별 소계 | | 300 | 100.0 |
| 성별 | 남성 | 167 | 55.7 |
| | 여성 | 133 | 44.3 |
| 성별 소계 | | 300 | 100.0 |
| 연령대 | 20대 | 50 | 16.7 |
| | 30대 | 115 | 38.3 |
| | 40대 | 85 | 28.3 |
| | 50대 이상 | 50 | 16.7 |
| 연령대별 소계 | | 300 | 100.0 |

## 다. 학부모

| 분류 | | 사례수 (명) | 비중 (%) |
|---|---|---|---|
| 자녀 교급 | 초등학교 | 336 | 30.5 |
| | 중학교 | 362 | 33.0 |
| | 고등학교 | 402 | 36.5 |
| 자녀 교급별 소계 | | 1,100 | 100.0 |
| 성별 | 남성 | 198 | 18.0 |
| | 여성 | 902 | 82.0 |
| 성별 소계 | | 1,100 | 100.0 |
| 연령대 | 30대 | 139 | 12.6 |
| | 40대 | 809 | 73.6 |
| | 50대 | 145 | 13.2 |
| | 60대 | 7 | 0.6 |
| 연령대별 소계 | | 1,100 | 100.0 |

## 라. 성인

| 분류 | | 사례수 (명) | 비중 (%) |
|---|---|---|---|
| 성별 | 남성 | 766 | 51.1 |
| | 여성 | 734 | 48.9 |
| 성별 소계 | | 1,500 | 100.0 |
| 연령대 | 20대 | 327 | 21.8 |
| | 30대 | 350 | 23.3 |
| | 40대 | 413 | 27.5 |
| | 50대 | 410 | 27.3 |
| 연령대별 소계 | | 1,500 | 100.0 |
| 가구 소득 | 200만원 미만 | 117 | 7.8 |
| | 200~400만원 미만 | 496 | 33.1 |
| | 400~600만원 미만 | 494 | 32.9 |
| | 600~800만원 미만 | 215 | 14.3 |
| | 800만원 이상 | 178 | 11.9 |
| 가구 소득별 소계 | | 1,500 | 100.0 |
| 지역 | 서울 | 296 | 19.7 |
| | 부산 | 98 | 6.5 |
| | 대구 | 72 | 4.8 |
| | 인천 | 88 | 5.9 |
| | 광주 | 43 | 2.9 |
| | 대전 | 44 | 2.9 |
| | 울산 | 35 | 2.3 |
| | 강원 | 42 | 2.8 |
| | 경기 | 390 | 26.0 |
| | 충북 | 44 | 2.9 |
| | 충남 | 58 | 3.9 |
| | 전북 | 49 | 3.3 |
| | 전남 | 48 | 3.2 |
| | 경북 | 70 | 4.7 |
| | 경남 | 96 | 6.4 |
| | 제주 | 19 | 1.3 |
| | 세종 | 8 | 0.5 |
| 지역별 소계 | | 1,500 | 100.0 |

# Ⅱ. 주요결과 요약


1. 사이버폭력 실태 13
가. 2018년 사이버폭력 경험 13
나. 2018년 가해 및 피해 유형 13
다. 2017년 대비 사이버폭력 경험률 14

2. 사이버폭력 경험자 특성 15
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15
나.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및 가해 후 심리 16

3.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17
가. 가정 및 학교의 심각성 인지 17
나.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17
다. 대응 교육 우선순위 18

4. 온라인 정보 판별 18
가. 정보 판별 태도 18
나. 허위사실 전파의 문제성 인식 19
다. 교육 필요성 20

# 1. 사이버폭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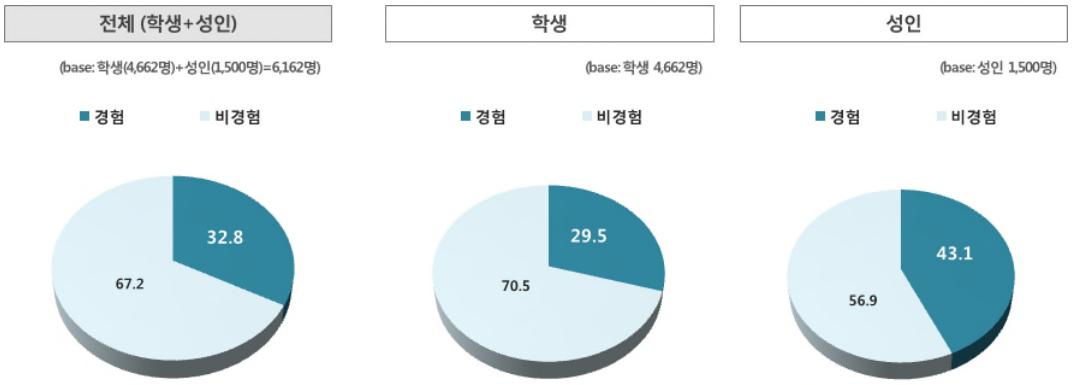
## 가. 2018년 사이버폭력 경험[6)]

○ 2018년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 및 피해)은 32.8% 수준으로 10명 중 3명꼴임.

○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9.5%, 성인은 43.1%로 성인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Ⅱ-1]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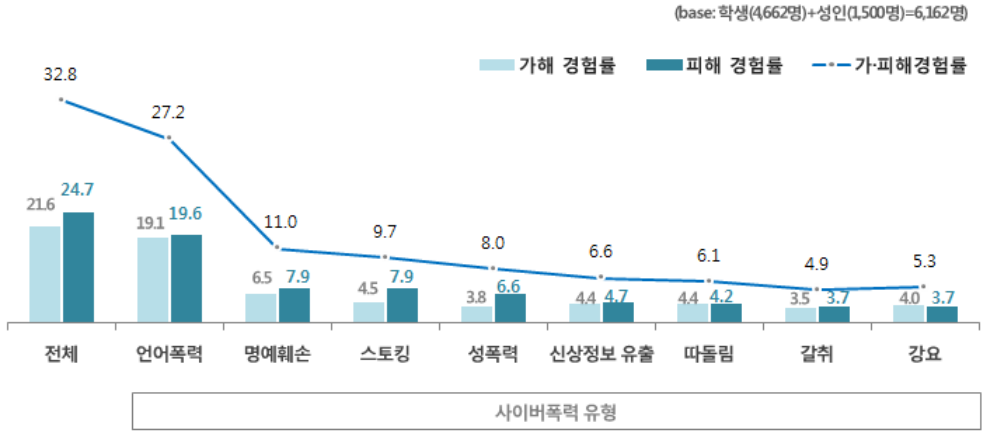

## 나. 2018년 가해 및 피해 유형

○ 2018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21.6%, 피해 경험률은 24.7%임.

○ 유형별로는 가·피해 경험률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높음.

[그림 Ⅱ-2] 폭력 유형별 경험률(학생+성인)

(단위: %)




6) 총 8가지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에 대한 경험률

○ 학생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은 동일하게 20.8%임. 성인의 경우 가해 경험률은 24.1%, 피해 경험률은 36.8%로 학생 대비 경험률 상대적으로 높음.

○ 학생의 경우, '언어폭력'(가해 경험률 19.3%, 피해 경험률 18.7%)을 제외한 폭력 유형의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 5% 내외임. 반면 성인은 '언어폭력' 외의 폭력 유형에 대한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이 10%대에서 많게는 20%대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가·피해 경험이 많음.

[표Ⅱ-1] 폭력 유형별 경험률(학생, 성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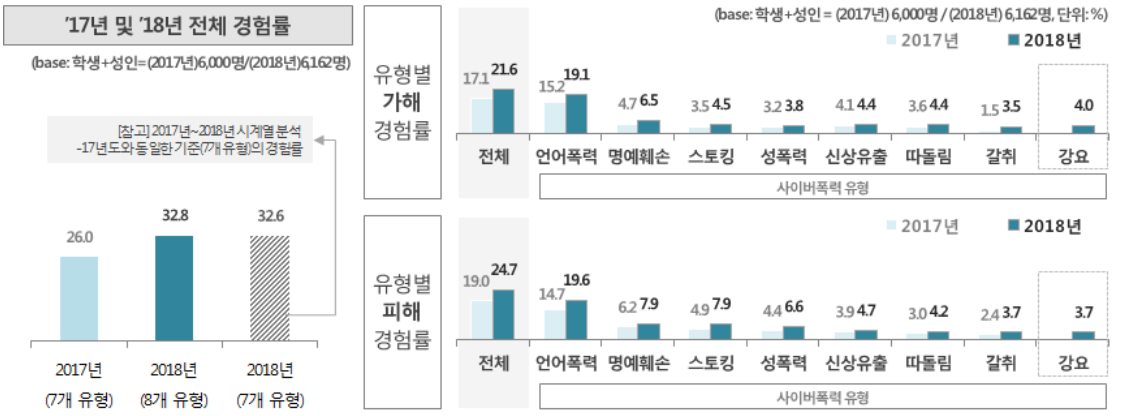
| 구분 | | 전체 | 사이버폭력 유형 | | | | | | | |
|---|---|---|---|---|---|---|---|---|---|---|
| | | | 언어폭력 | 명예훼손 | 스토킹 | 성폭력 | 신상정보유출 | 따돌림 | 갈취 | 강요 |
| 학생 (n=4,662) | 가피해 경험률 | 29.5 | 27.0 | 8.9 | 4.6 | 3.6 | 3.9 | 3.4 | 2.3 | 2.4 |
| | 가해 경험률 | 20.8 | 19.3 | 4.6 | 2.1 | 1.5 | 2.2 | 1.9 | 1.2 | 1.5 |
| | 피해 경험률 | 20.8 | 18.7 | 6.1 | 3.3 | 2.7 | 2.5 | 2.4 | 1.7 | 1.6 |
| 성인 (n=1,500) | 가피해 경험률 | 43.1 | 27.7 | 17.6 | 25.3 | 21.6 | 15.2 | 14.5 | 13.1 | 14.3 |
| | 가해 경험률 | 24.1 | 18.3 | 12.3 | 12.0 | 10.8 | 11.3 | 12.1 | 10.5 | 11.9 |
| | 피해 경험률 | 36.8 | 22.4 | 13.2 | 22.2 | 18.5 | 11.5 | 9.9 | 9.9 | 10.3 |

### 다. 2017년 대비 사이버폭력 경험률[7)]

○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 경험률 6.8%p 증가했으며(가해 경험률 4.5%p, 피해 경험률 5.7%p 증가),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가·피해 경험률 증가함.

[그림 Ⅱ-3] '17년 및 '18년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단위: %)




7) 8개 유형: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7개 유형(2018년 신규 추가된 '강요' 제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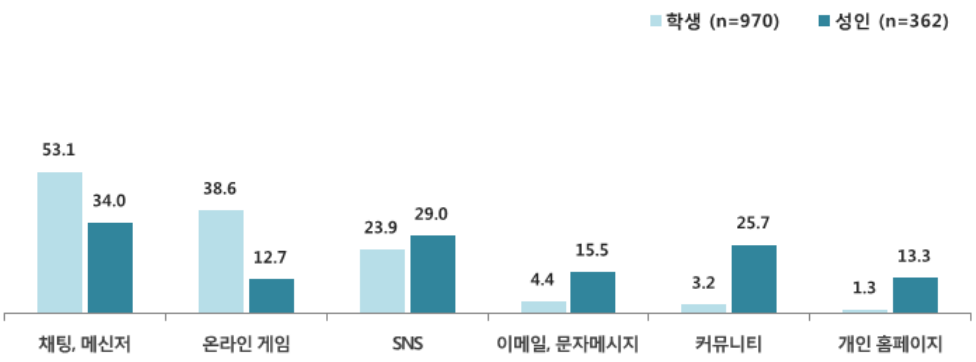
## 2. 사이버폭력 경험자 특성

### 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한 공간으로 학생과 성인 모두 '채팅, 메신저[8]'인 경우가 가장 많음.
- 가해 경험 학생의 가해 수단이 '채팅, 메신저', '온라인 게임', 'SNS'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가해 경험 성인은 그 외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커뮤니티', '게임 홈페이지' 등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가해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공간 역시 가해 경험 공간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성인의 경우,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피해 경험률이 가해 경험률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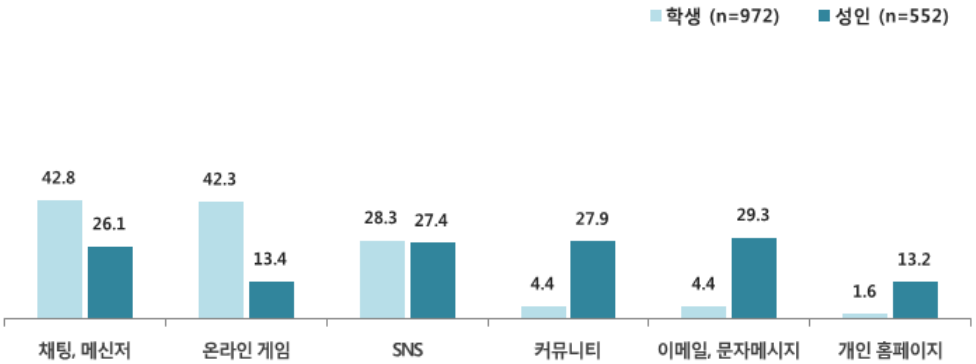
[그림 Ⅱ-4] 사이버폭력 가해 수단(학생, 성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그림 Ⅱ-5] 사이버폭력 피해 수단(학생, 성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8)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정성조사 결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또래간 커뮤니케이션 및 사이버폭력 발생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나.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및 가해 후 심리

○ 학생의 경우, '보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가해 행동을 한 집단은 본인의 가해 행동을 '정당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약 50% 내외로 높게 나타남. 반면, '주변에서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또는 '재미나 장난으로' 가해 행동을 한 집단은 '미안하고 후회스러움'을 느끼는 정도가 타 집단 대비 높음.

[표Ⅱ-2]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학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 가해 이유 | | | | | |
|---|---|---|---|---|---|---|---|
| | |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
| 가해 후 심리 |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함 | 30.7 | 26.8 | **49.8** | **50.3** | **53.1** | 23.8 |
| |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음 | **58.1** | **63.4** | 48.6 | 43.1 | 45.6 | 61.9 |
| |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음 | 46.5 | 50.7 | 49.8 | 45.7 | 44.2 | 55.2 |
| |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 38.6 | 29.6 | 12.0 | 14.2 | 19.0 | 24.8 |
| | 아무 느낌 없었음 | 33.2 | 38.0 | 30.4 | 33.8 | 29.3 | 34.3 |

○ 성인의 경우, 학생 결과 대비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가해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Ⅱ-3]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성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 가해 이유 | | | | | |
|---|---|---|---|---|---|---|---|
| | |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
| 가해 후 심리 |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함 | 37.1 | 45.3 | 56.4 | 46.9 | 46.5 | 28.2 |
| |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음 | 74.2 | 59.4 | 47.3 | 47.8 | 56.4 | 41.0 |
| |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음 | **67.7** | **67.2** | **60.0** | **50.4** | **50.5** | **53.8** |
| |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 50.0 | 48.4 | 41.8 | 33.6 | 21.8 | 25.6 |
| | 아무 느낌 없었음 | 38.7 | 42.2 | 42.7 | 35.4 | 24.8 | 4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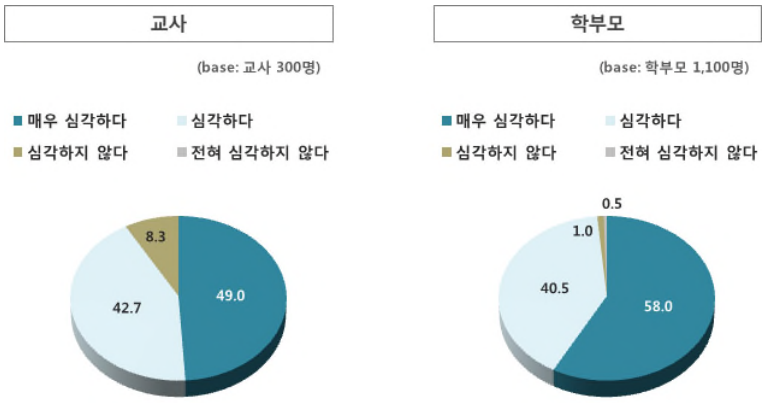
# 3.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 가. 가정 및 학교의 심각성 인지

○ 교사와 학부모 모두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특히, 교사보다는 학부모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6] 사이버폭력 심각성 인지(교사, 학부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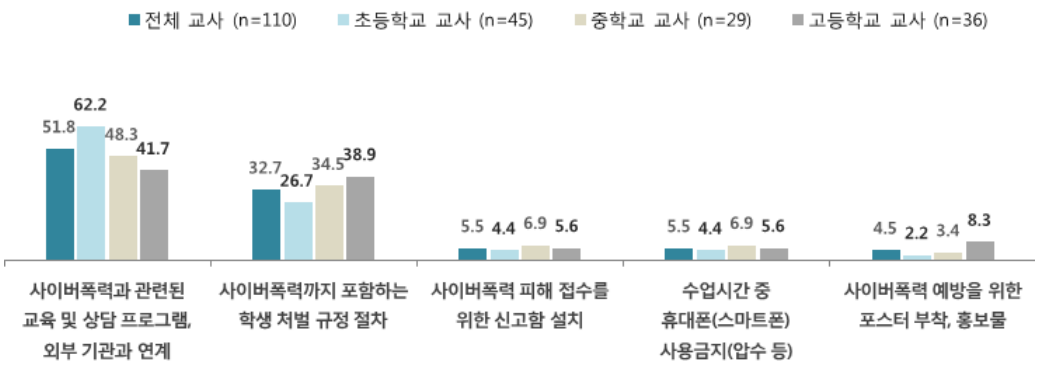

## 나.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학교에 필요한 예방 활동으로는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외부 기관 연계)'와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에 대한 응답률 가장 높음.

○ 지도 학생의 교급이 높을수록 '처벌 규정/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Ⅱ-7] 학교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재직 학교에 관련 규정/프로그램 없는 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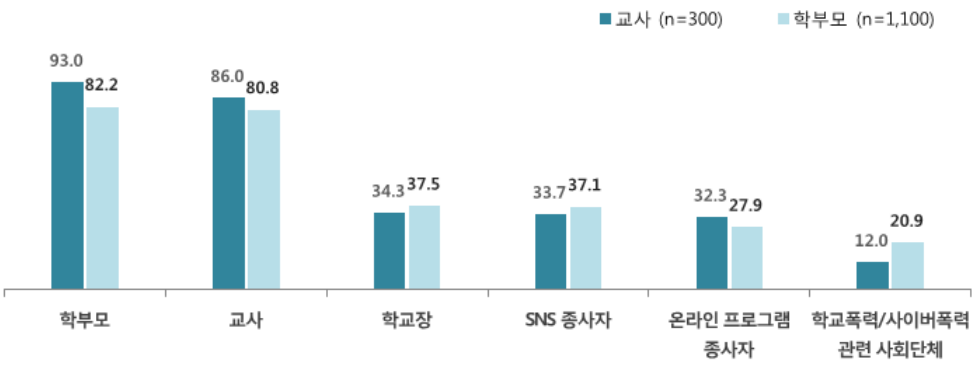


다. 대응 교육 우선순위

○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은 학부모와 교사라는 인식이 일반적임. 특히, 교사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Ⅱ-8]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대상 우선순위

(전체, 단위: %, 1+2+3순위,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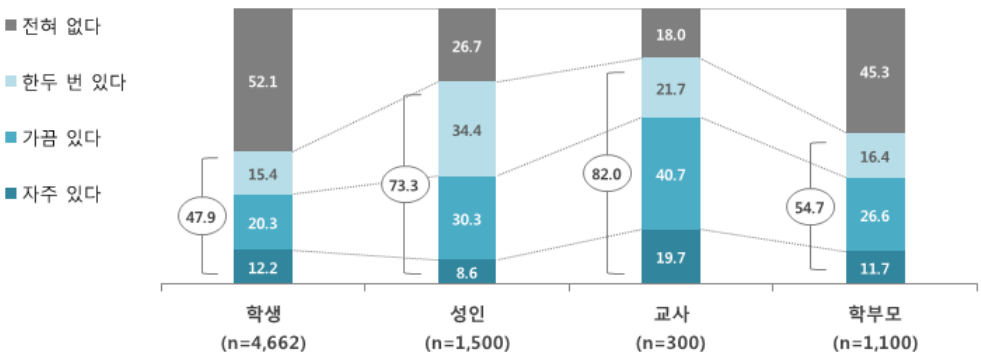

## 4. 온라인 정보 판별

가. 정보 판별 태도

○ 온라인 정보가 사실인지 가장 잘 확인하는 것은 교사 집단(82.0%)이며, 그 뒤로 성인(73.3%) > 학부모(54.7%) > 학생(47.9%) 순임. 학생 집단이 온라인 정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가장 적게 확인함.

[그림 Ⅱ-9] 온라인 정보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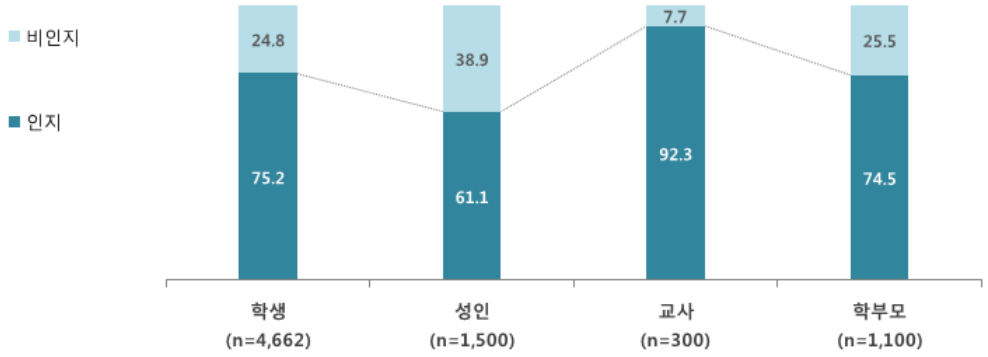
## 나. 허위사실 전파의 문제성 인식

○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비율은 교사 집단(92.3%)이 가장 높음. 학생과 학부모는 74~75%대로 유사한 수준이며, 조사에 응한 20~50대 성인의 인지율이 61.1%로 가장 낮음.

○ 허위사실 전파에 대한 문제성 인지율이 가장 낮은 성인을 성·연령대별 집단으로 살펴보면, 여성과 40~50대 층의 인지율이 타 집단 대비 소폭 낮음.

[그림 Ⅱ-10]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표Ⅱ-4]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성인)

(성인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알고 있음 | 61.1 | 61.2 | 63.7 | 60.8 | 59.0 | 62.1 | 59.9 |
| 모름 | 38.9 | 38.8 | 36.3 | 39.2 | 41.0 | 37.9 | 4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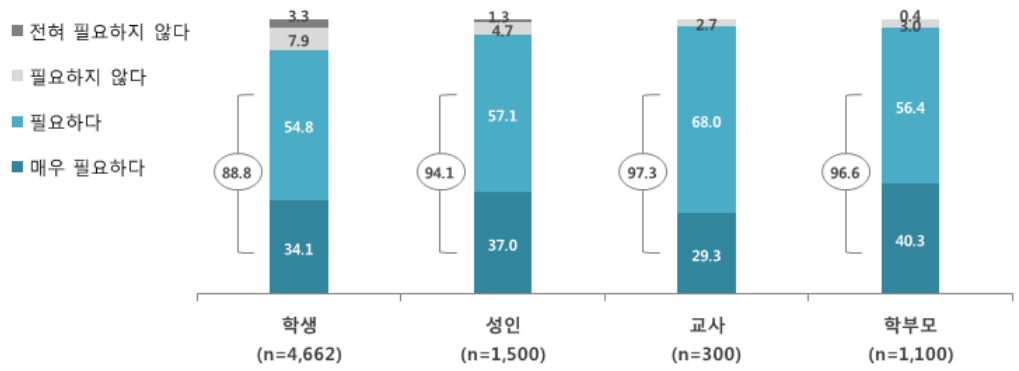
다. 교육 필요성

○ 교사와 학부모는 온라인 정보 판별에 대한(사실 확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생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음(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필요하지 않음'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환기가 필요해 보임.

[그림 Ⅱ-11] 정보 판별력 교육 필요성

(전체, 단위: %)




[표Ⅱ-5] 정보 판별력 교육 필요성(학생)

(학생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3.3 | 4.9 | 2.8 | 2.2 | 4.9 | 1.4 |
| ② 필요하지 않다 | | 7.9 | 7.8 | 9.1 | 6.8 | 9.5 | 5.9 |
| ③ 필요하다 | | 54.8 | 54.4 | 56.8 | 53.2 | 52.2 | 58.0 |
| ④ 매우 필요하다 | | 34.1 | 32.9 | 31.3 | 37.8 | 33.5 | 34.8 |
| 종합 결과 | ①+② 필요하지 않음 | 11.2 | 12.7 | 11.9 | 8.9 | 14.4 | 7.3 |
| | ③+④ 필요함 | 88.8 | 87.3 | 88.1 | 91.1 | 85.6 | 92.7 |

# Ⅲ. 학생 대상 조사결과


1. 사이버폭력 경험 23
가. 경험 현황 23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24
다. 목격 현황 28

2. 사이버폭력 특성 31
가. 가해 행태 31
나. 피해 행태 36

3. 사이버폭력 원인 42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42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46
다.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48

4. 온라인 정보 활용 49
가. 정보 판별 태도 49
나. 허위정보 피해 경험 53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56

# 1. 사이버폭력 경험

## 가. 경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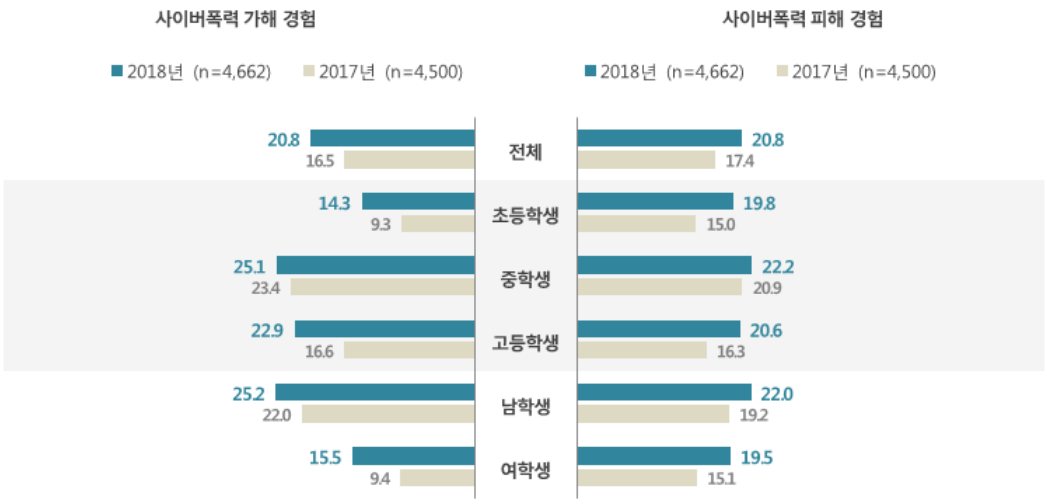
○ 학생 4,662명 중 20.8%가 최근 1년 내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 경험률도 동일한 수준인 20.8%로 나타남.

○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가해 또는 피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가장 낮음. 남학생은 가해 경험률이 피해 경험률보다 높은 반면, 여학생은 반대로 피해 경험률이 가해 경험률보다 높음.

○ 전년 대비 가해 경험은 4.3%p, 피해 경험은 3.4%p 증가하여, 전체 경험률[9]은 총 4.7%p 증가함.

[그림 Ⅲ-1] 사이버폭력 경험률

(전체, 단위: %)




[표Ⅲ-1] 사이버폭력 경험률[10]

(전체, 단위: %)

| 구분 | 2017년 (7개 유형) | 2018년 | | | |
|---|---|---|---|---|---|
| | | 8개 유형 | Gap ('18-'17) | 7개 유형 | Gap ('18-'17) |
| (사례수) | (4,500) | (4,662) | - | (4,662) | - |
|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 | 24.8 | 29.5 | ▲ 4.7 | 29.4 | ▲ 4.6 |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 16.5 | 20.8 | ▲ 4.3 | 20.8 | ▲ 4.3 |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 17.4 | 20.8 | ▲ 3.4 | 20.7 | ▲ 3.3 |

9) 최근 1년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비율
10) 8개 유형: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7개 유형(2018년 신규 추가된 '강요' 제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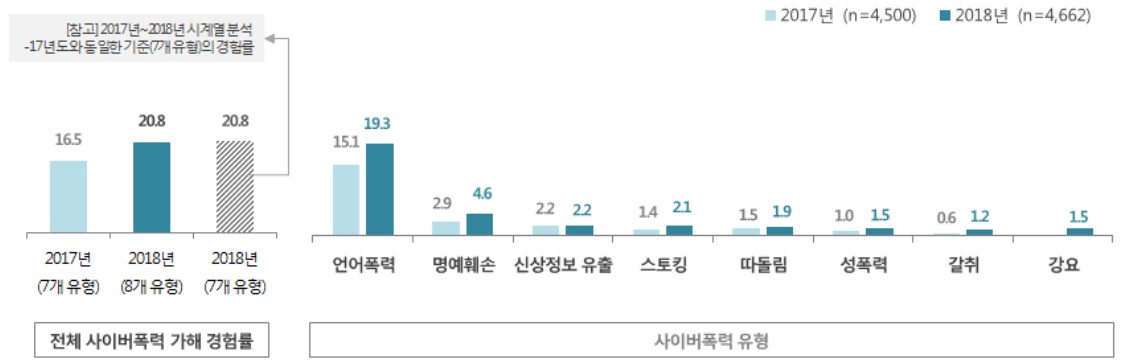
##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 (1) 가해 유형별 경험률

- 사이버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19.3%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명예훼손'(4.6%) > '신상정보 유출'(2.2%) > '스토킹'(2.1%) > '따돌림'(1.9%) > '성폭력'(1.5%) > '갈취'(1.2%) 순임.
- 전년 대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가해 경험률이 각각 4.2%p, 1.7%p 증가한 반면, 다른 유형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가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언어폭력'은 중학생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가해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 가해 유형별 경험률[11)]

(전체, 단위: %, 복수응답)




[표Ⅲ-2] 가해 유형별 경험률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전체 가해 경험률(8개 유형) | | 20.8 | 14.3 | 25.1 | 22.9 | 25.2 | 15.5 |
| 전체 가해 경험률(7개 유형) | | 20.8 | 14.2 | 25.1 | 22.8 | 25.2 | 15.4 |
| 가해 유형 | 언어폭력 | 19.3 | 12.6 | 23.9 | 21.2 | 23.5 | 14.3 |
| | 명예훼손 | 4.6 | 3.1 | 5.7 | 4.9 | 5.6 | 3.3 |
| | 신상정보 유출 | 2.2 | 1.0 | 2.5 | 3.0 | 2.9 | 1.4 |
| | 스토킹 | 2.1 | 1.3 | 3.1 | 1.9 | 2.7 | 1.3 |
| | 따돌림 | 1.9 | 1.3 | 2.3 | 2.0 | 2.4 | 1.2 |
| | 성폭력 | 1.5 | 0.5 | 1.8 | 2.2 | 2.2 | 0.7 |
| | 갈취 | 1.2 | 0.4 | 1.6 | 1.7 | 1.8 | 0.6 |
| | 강요 | 1.5 | 0.5 | 2.0 | 1.9 | 1.9 | 0.9 |

11) 8개 유형: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7개 유형(2018년 신규 추가된 '강요' 제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는 2018년 신규 추가 유형이므로 2017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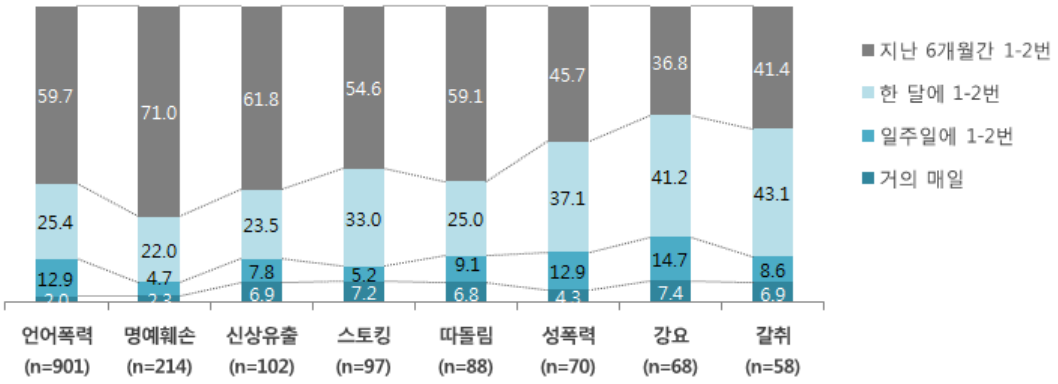
(2) 가해 유형별 빈도

○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주기는 보통 6개월에 1-2번 정도임. '강요',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갈취', '따돌림'의 경우 '거의 매일' 했다는 응답이 약 7%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가해 행위가 발생함.

○ 가해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지난 6개월간 1-2번'이라는 응답이 71.0%임.

[그림 Ⅲ-3] 가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표Ⅲ-3] 가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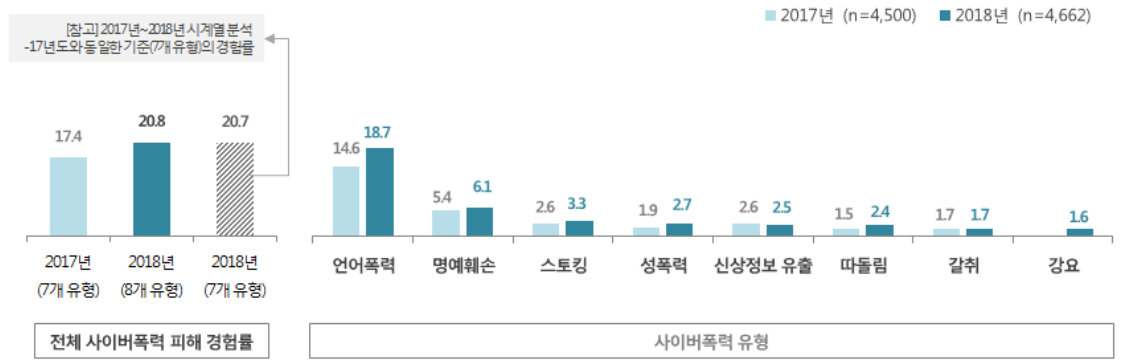
| 구분 | 가해 유형 | | | | | | | |
|---|---|---|---|---|---|---|---|---|
| | 언어 폭력 | 명예 훼손 | 신상 정보 유출 | 스토킹 | 따돌림 | 성폭력 | 강요 | 갈취 |
| (사례수) | (901) | (214) | (102) | (97) | (88) | (70) | (68) | (58) |
| 지난 6개월간 1-2번 | 59.7 | 71.0 | 61.8 | 54.6 | 59.1 | 45.7 | 36.8 | 41.4 |
| 한 달에 1-2번 | 25.4 | 22.0 | 23.5 | 33.0 | 25.0 | 37.1 | 41.2 | 43.1 |
| 일주일에 1-2번 | 12.9 | 4.7 | 7.8 | 5.2 | 9.1 | 12.9 | 14.7 | 8.6 |
| 거의 매일 | 2.0 | 2.3 | 6.9 | 7.2 | 6.8 | 4.3 | 7.4 | 6.9 |

(3) 피해 유형별 경험률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도 가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언어폭력'이 18.7%로 가장 높음. 그 뒤로 '명예훼손'(6.1%) > '스토킹'(3.3%) > '성폭력'(2.7%) > '신상정보 유출'(2.5%) > '따돌림'(2.4%) > '갈취'(1.7%) 순으로 집계됨.
- 전년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유형별 경험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함. '언어폭력'의 경우 전년 대비 4.1%p 증가하여 다른 유형에 비하여 증가폭이 큼.
-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은 타 교급 대비 중학교 교급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신상정보 유출'과 '갈취'는 교급이 높을수록, '따돌림'은 교급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음. '명예훼손'과 '스토킹' 유형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가 더 많음.

[그림 Ⅲ-4] 피해 유형별 경험률[12)]

(전체, 단위: %, 복수응답)




[표Ⅲ-4] 피해 유형별 경험률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전체 피해 경험률(8개 유형) | | 20.8 | 19.8 | 22.2 | 20.6 | 22.0 | 19.5 |
| 전체 피해 경험률(7개 유형) | | 20.7 | 19.4 | 22.2 | 20.6 | 21.9 | 19.3 |
| 피해 유형 | 언어폭력 | 18.7 | 16.9 | 20.1 | 18.9 | 20.3 | 16.7 |
| | 명예훼손 | 6.1 | 5.1 | 7.4 | 5.9 | 5.6 | 6.8 |
| | 스토킹 | 3.3 | 2.2 | 4.0 | 3.7 | 2.6 | 4.2 |
| | 성폭력 | 2.7 | 2.0 | 3.3 | 2.9 | 2.8 | 2.6 |
| | 신상정보 유출 | 2.5 | 1.8 | 2.7 | 3.0 | 2.8 | 2.2 |
| | 따돌림 | 2.4 | 2.6 | 2.4 | 2.0 | 2.6 | 2.0 |
| | 갈취 | 1.7 | 1.2 | 1.8 | 2.0 | 2.4 | 0.9 |
| | 강요 | 1.6 | 1.3 | 2.2 | 1.5 | 1.7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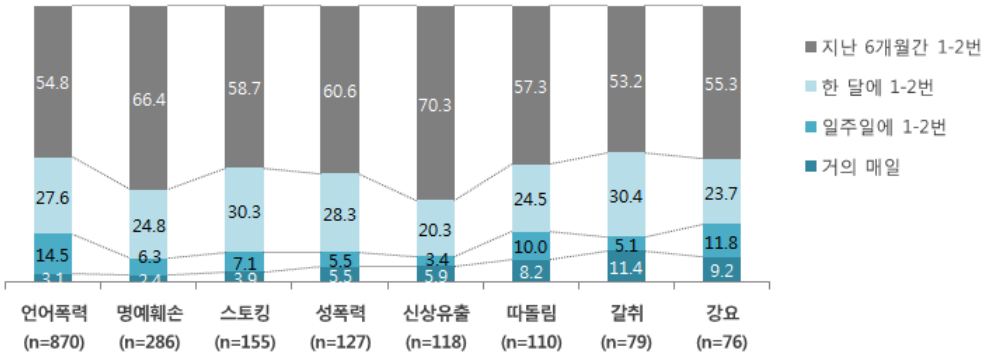
12) 8개 유형: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7개 유형(2018년 신규 추가된 '강요' 제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는 2018년 신규 추가 유형이므로 2017년 데이터 없음.

(4) 피해 유형별 빈도

○ 각 유형별 피해 빈도는 보통 6개월간 한 번 내지 두 번인 경우가 가장 많음. '갈취' 유형은 '거의 매일' 피해 받았다는 응답이 11.4%로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신상정보 유출' 유형은 '지난 6개월간 1-2번' 응답 비율이 70.3%임.

[그림 Ⅲ-5] 피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표Ⅲ-5] 피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 구분 | 피해 유형 | | | | | | | |
|---|---|---|---|---|---|---|---|---|
| | 언어 폭력 | 명예 훼손 | 스토킹 | 성폭력 | 신상 정보 유출 | 따돌림 | 갈취 | 강요 |
| (사례수) | (870) | (286) | (155) | (127) | (118) | (110) | (79) | (76) |
| 지난 6개월간 1-2번 | 54.8 | 66.4 | 58.7 | 60.6 | 70.3 | 57.3 | 53.2 | 55.3 |
| 한 달에 1-2번 | 27.6 | 24.8 | 30.3 | 28.3 | 20.3 | 24.5 | 30.4 | 23.7 |
| 일주일에 1-2번 | 14.5 | 6.3 | 7.1 | 5.5 | 3.4 | 10.0 | 5.1 | 11.8 |
| 거의 매일 | 3.1 | 2.4 | 3.9 | 5.5 | 5.9 | 8.2 | 11.4 | 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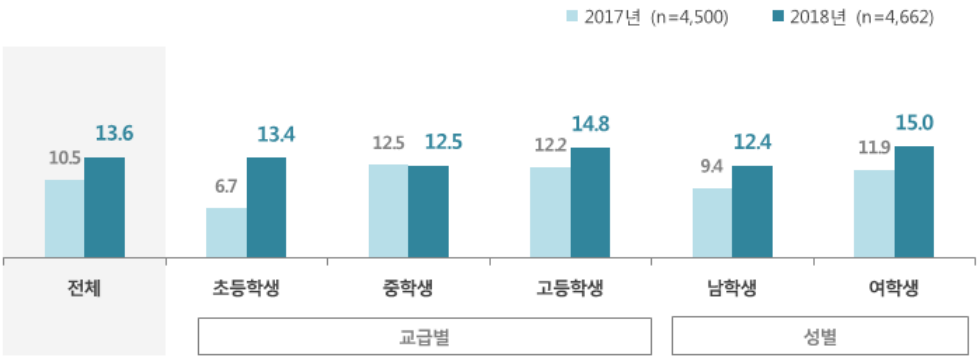
## 다. 목격 현황

### (1) 목격 현황

- 학생 10명 중 1명 정도가 최근 1년 내에 주변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상황을 목격한 경험 있음.
- 교급별로 사이버폭력 목격률은 비슷한 수준임. 전년 대비 초등학생의 목격률이 두 배 증가하여, 타 교급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적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 대비 목격 경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목격률이 더 높음.

[그림 Ⅲ-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전체, 단위: %)




[표Ⅲ-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본 적 있음 | 13.6 | 13.4 | 12.5 | 14.8 | 12.4 | 15.0 |
| 본 적 없음 | 86.4 | 86.6 | 87.5 | 85.2 | 87.6 | 85.0 |

(2) 목격 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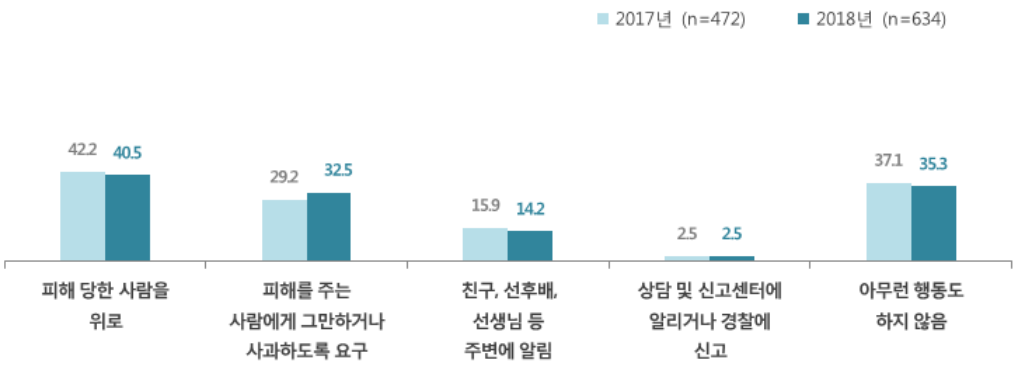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가피해 장면을 목격한 후 가장 많이 한 행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로'(40.5%)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두 번째로 많음.

○ 전년 대비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늘어났으나,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행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아무런 행동도하지 않음'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함.

○ 교급이 낮을수록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급이 높을수록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그림 Ⅲ-7] 목격 후 대응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7] 목격 후 대응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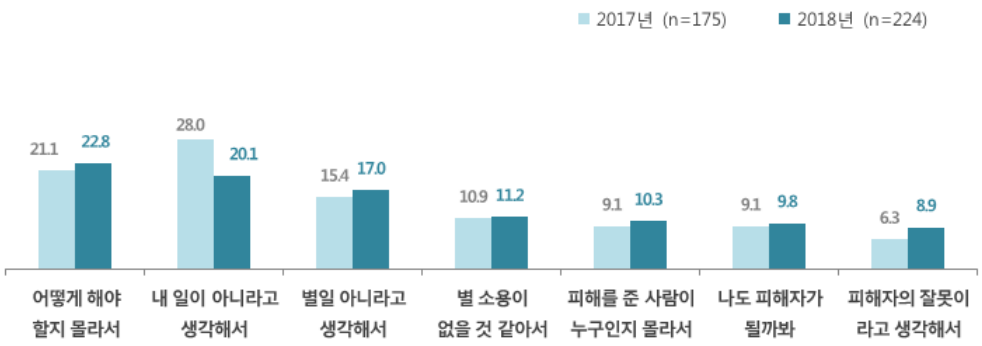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634) | (204) | (191) | (239) | (317) | (317) |
|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 40.5 | 44.6 | 41.9 | 36.0 | 32.5 | 48.6 |
|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 32.5 | 48.5 | 32.5 | 18.8 | 35.0 | 30.0 |
|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 14.2 | 13.7 | 19.4 | 10.5 | 11.7 | 16.7 |
|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2.5 | 2.5 | 2.1 | 2.9 | 3.8 | 1.3 |
|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35.3 | 20.1 | 35.6 | 48.1 | 39.4 | 31.2 |

(3) 목격 후 미대응 이유

- 사이버폭력을 목격했으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2.8%),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0.1%),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17.0%)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전년 대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현저히 낮아짐.
- 교급이 낮을수록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아무 행동도 안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교급이 높을수록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의 비율이 높음.

[그림 Ⅲ-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목격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표Ⅲ-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목격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224) | (41) | (68) | (115) | (125) | (99) |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22.8 | 26.8 | 26.5 | 19.1 | 16.8 | 30.3 |
|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20.1 | 9.8 | 14.7 | 27.0 | 20.0 | 20.2 |
|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17.0 | 9.8 | 20.6 | 17.4 | 25.6 | 6.1 |
|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11.2 | 12.2 | 8.8 | 12.2 | 14.4 | 7.1 |
|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 10.3 | 9.8 | 11.8 | 9.6 | 6.4 | 15.2 |
|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 9.8 | 19.5 | 11.8 | 5.2 | 8.0 | 12.1 |
|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 8.9 | 12.2 | 5.9 | 9.6 | 8.8 | 9.1 |

## 2. 사이버폭력 특성

### 가. 가해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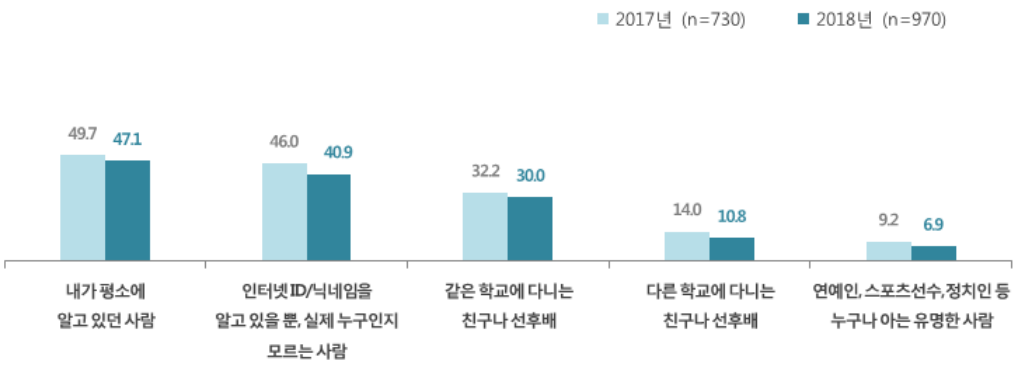
#### (1) 가해 대상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47.1%)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가해를 행하였으며, 그 뒤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40.9%)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급이 높을수록 잘 모르는 사람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 있음.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 알고 있는 사람을 가해 대상으로 많이 삼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평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됨.

[그림 Ⅲ-9] 가해 대상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9] 가해 대상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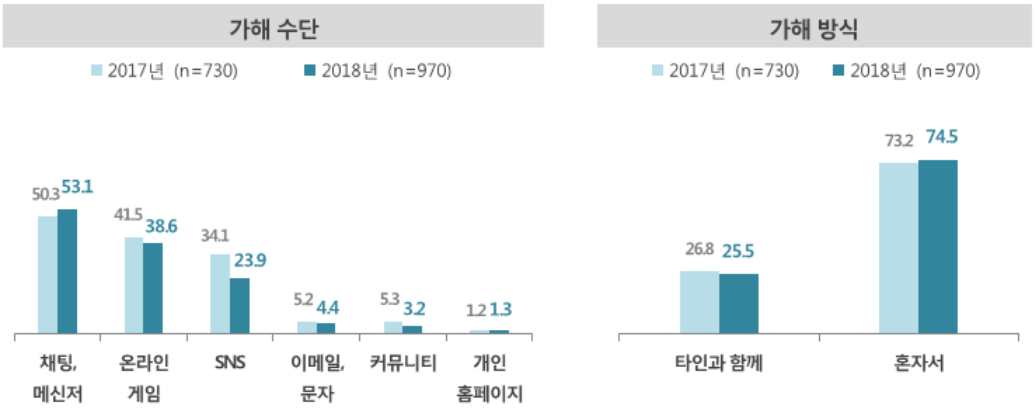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0) | (217) | (385) | (368) | (643) | (327) |
|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 47.1 | 48.8 | 48.8 | 44.3 | 42.9 | 55.4 |
|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40.9 | 26.7 | 41.8 | 48.4 | 49.5 | 24.2 |
|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 30.0 | 35.5 | 29.4 | 27.4 | 29.9 | 30.3 |
|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 10.8 | 6.9 | 9.6 | 14.4 | 11.0 | 10.4 |
|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 6.9 | 3.2 | 7.3 | 8.7 | 4.8 | 11.0 |

(2) 가해 수단 및 방식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은 '채팅이나 메신저'(53.1%)를 통하여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를 하였으며, 그 뒤로는 '온라인 게임'(38.6%) > 'SNS'(23.9%) 순임.
- 교급이 낮을수록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가해 행위를 많이 하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이용 비율이 현저히 높음.
-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10명 중 약 7명은 주로 혼자서 사이버폭력을 행했다고 응답함.

[그림 Ⅲ-10]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표Ⅲ-10] 가해 수단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0) | (217) | (385) | (368) | (643) | (327) |
|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쳇 등) | 53.1 | 67.7 | 49.6 | 48.1 | 47.1 | 64.8 |
| 온라인 게임 | 38.6 | 25.3 | 40.3 | 44.6 | 51.9 | 12.2 |
|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 23.9 | 14.7 | 29.4 | 23.6 | 18.0 | 35.5 |
| 이메일, 문자메시지 | 4.4 | 7.4 | 2.3 | 4.9 | 4.0 | 5.2 |
|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3.2 | 2.3 | 1.0 | 6.0 | 3.7 | 2.1 |
|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1.3 | 1.4 | 0.8 | 1.9 | 1.6 | 0.9 |

[표Ⅲ-11] 가해 방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0) | (217) | (385) | (368) | (643) | (327) |
| 타인과 함께 | 25.5 | 27.6 | 26.2 | 23.4 | 19.4 | 37.3 |
| 혼자서 | 74.5 | 72.4 | 73.8 | 76.6 | 80.6 | 6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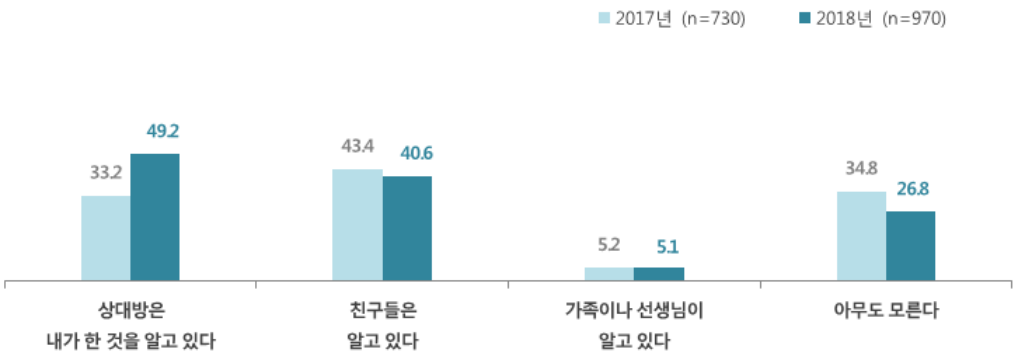
(3) 가해 사실 주변인지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본인의 가해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달하였으며,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40.6%임.

○ 교급이 낮을수록 주변에서 가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남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가 여학생보다 많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1] 가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12] 가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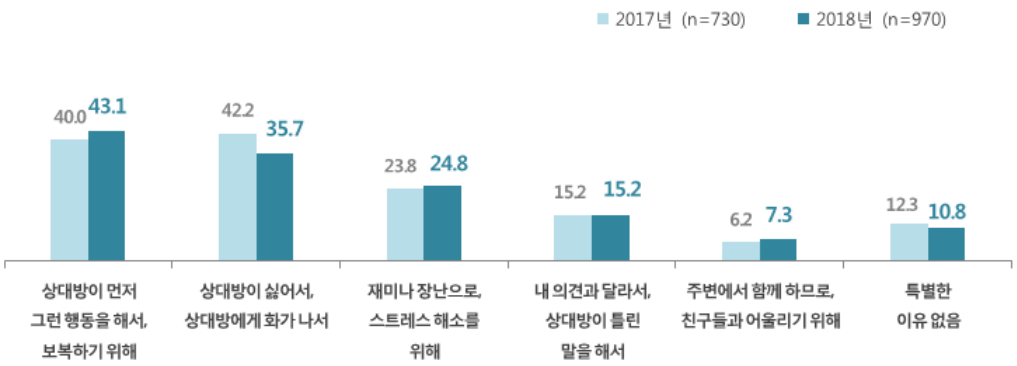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0) | (217) | (385) | (368) | (643) | (327) |
| 상대방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 49.2 | 49.3 | 51.2 | 47.0 | 52.3 | 43.1 |
| 친구들은 알고 있다 | 40.6 | 45.2 | 41.0 | 37.5 | 39.0 | 43.7 |
|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 5.1 | 9.2 | 5.2 | 2.4 | 3.9 | 7.3 |
| 아무도 모른다 | 26.8 | 18.9 | 26.5 | 31.8 | 25.7 | 29.1 |

(4) 가해 이유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한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하여'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35.7%) >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24.8%) >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15.2%)순임.
- '상대방이 싫어서 또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가해 행동을 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6.5%p 감소한 것이 특징적임.
- 교급이 낮을수록 보복성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급이 높을수록 본인의 의견과 다르거나 상대에게 화가 나서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됨.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복성 및 재미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Ⅲ-12] 가해 이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13] 가해 이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0) | (217) | (385) | (368) | (643) | (327) |
|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 43.1 | 53.5 | 42.3 | 37.8 | 46.3 | 36.7 |
|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 35.7 | 25.8 | 37.9 | 39.1 | 34.4 | 38.2 |
|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24.8 | 18.0 | 22.1 | 31.8 | 28.0 | 18.7 |
|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 15.2 | 10.1 | 13.8 | 19.6 | 14.8 | 15.9 |
|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 7.3 | 9.2 | 6.8 | 6.8 | 7.2 | 7.6 |
| 특별한 이유 없음 | 10.8 | 10.1 | 10.4 | 11.7 | 10.0 | 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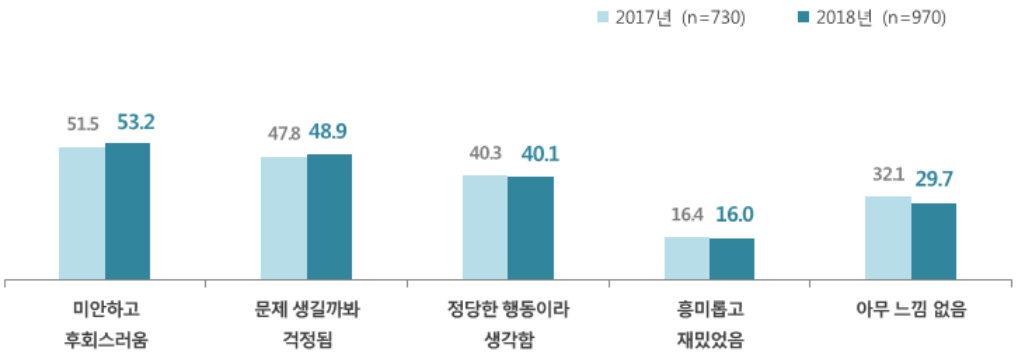
(5) 가해 후 심리

○ 사이버폭력 가해 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미안하고 후회스러움'(53.2%)을 느끼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48.9%)하거나 '정당한 행동이라고도 생각'(40.1%)함.

○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미안함이나 후회스러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등학생들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가해 후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응답도 교급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남.

[그림 Ⅲ-13]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Ⅲ-14]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0) | (217) | (385) | (368) | (643) | (327) |
|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음 | 53.2 | 73.7 | 53.0 | 41.3 | 48.4 | 62.7 |
|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음 | 48.9 | 71.0 | 52.7 | 31.8 | 46.0 | 54.4 |
|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함 | 40.1 | 24.0 | 39.2 | 50.5 | 44.3 | 31.8 |
|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 16.0 | 7.8 | 13.2 | 23.6 | 18.7 | 10.7 |
| 아무 느낌 없음 | 29.7 | 17.5 | 29.9 | 36.7 | 32.0 | 25.1 |

## 나. 피해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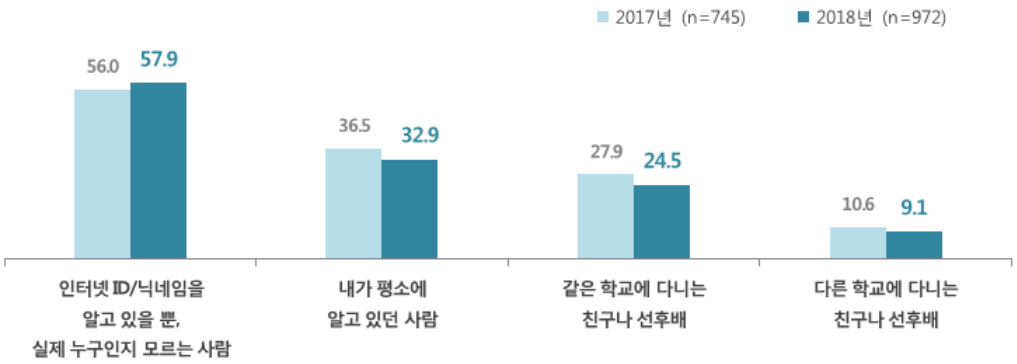
### (1) 가해 주체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10명 중 5~6명꼴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나 같은 학교의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우는 10명 중 2~3명에 불과함.

○ 타 교급에 비하여 중학생들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학교 친구나 선후배, 다른 학교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음. 남학생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아는 사람(평소 알고 있는 사람, 같은 학교 친구나 선후배, 다른 학교 친구나 선후배)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4] 가해 주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15] 가해 주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2) | (300) | (340) | (332) | (561) | (411) |
|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57.9 | 57.7 | 53.5 | 62.7 | 64.0 | 49.6 |
|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 32.9 | 31.3 | 37.6 | 29.5 | 29.8 | 37.2 |
|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 | 24.5 | 23.7 | 26.8 | 22.9 | 22.8 | 26.8 |
|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 | 9.1 | 5.0 | 9.4 | 12.3 | 7.3 | 1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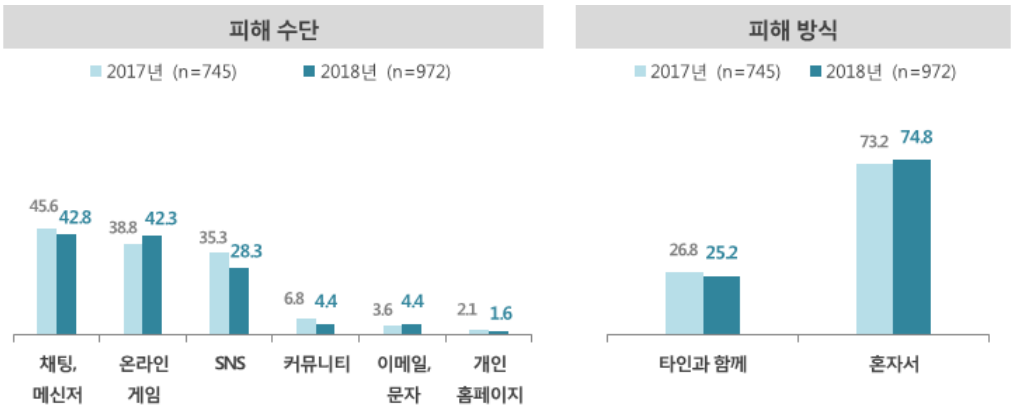
(2) 피해 수단 및 방식

○ 주로 '채팅이나 메신저'(42.8%), '온라인 게임'(42.3%)에서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음. 가해 수단과 마찬가지로 교급이 낮을수록 '채팅, 메신저'에서 피해 경험이 많으며 해당 수단에서의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사이버폭력 피해는 여러 명으로부터 당하는 경우(25.2%)보다 한 사람에게서 당하는 경우(74.8%)가 더 많음.

[그림 Ⅲ-15]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표Ⅲ-16] 피해 수단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2) | (300) | (340) | (332) | (561) | (411) |
|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42.8 | 46.3 | 45.6 | 36.7 | 37.8 | 49.6 |
| 온라인 게임 | 42.3 | 39.3 | 38.8 | 48.5 | 58.5 | 20.2 |
|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 28.3 | 21.3 | 33.8 | 28.9 | 19.1 | 40.9 |
|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4.4 | 1.7 | 2.4 | 9.0 | 5.0 | 3.6 |
| 이메일, 문자메시지 | 4.4 | 6.3 | 2.9 | 4.2 | 4.6 | 4.1 |
|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등) | 1.6 | 2.0 | 0.3 | 2.7 | 1.2 | 2.2 |

[표Ⅲ-17] 피해 방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2) | (300) | (340) | (332) | (561) | (411) |
| 여러 명이 함께 | 25.2 | 26.0 | 22.9 | 26.8 | 22.5 | 29.0 |
| 한 사람이 | 74.8 | 74.0 | 77.1 | 73.2 | 77.5 | 71.0 |

(3) 피해 사실 주변인지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주변에서 학생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친구들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11.7%에 불과하였으며,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은 43.8%에 달하여, 주변인들이 피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고등학생의 경우 본인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타 교급 대비 높게 나타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6] 피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2) | (300) | (340) | (332) | (561) | (411) |
| 친구들은 알고 있다 | 50.8 | 49.0 | 54.4 | 48.8 | 46.0 | 57.4 |
|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 11.7 | 15.3 | 11.5 | 8.7 | 7.5 | 17.5 |
| 아무도 모른다 | 43.8 | 41.7 | 41.8 | 47.9 | 50.1 | 3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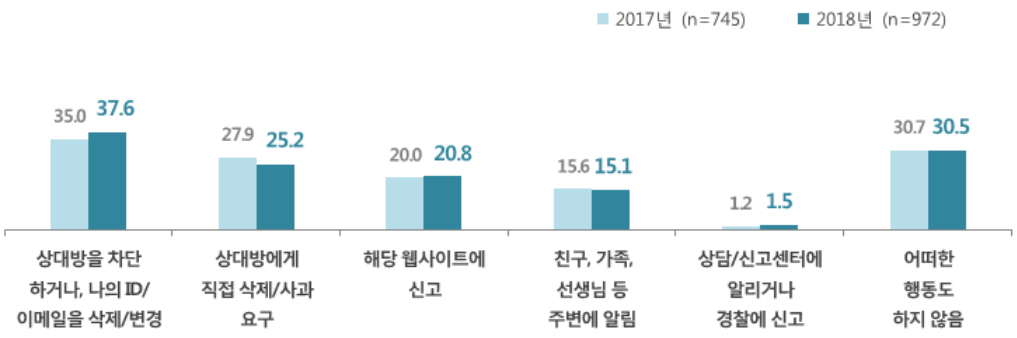
(4) 피해 후 대응

○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37.6%)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나 사과를 요구'(25.2%)하거나 '해당 웹 사이트에 신고'(20.8%)하는 등의 대응을 함.

○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아이디 또는 이메일을 삭제·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등학생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해당 웹사이트나 상담 및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는 비율이 타 교급 대비 높게 나타남.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해당 웹 사이트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많은 경향 있음.

[그림 Ⅲ-17] 피해 후 대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19] 피해 후 대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2) | (300) | (340) | (332) | (561) | (411) |
|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 37.6 | 40.7 | 37.1 | 35.2 | 36.0 | 39.7 |
|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 25.2 | 28.0 | 26.8 | 21.1 | 19.3 | 33.3 |
|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 20.8 | 19.0 | 19.1 | 24.1 | 23.4 | 17.3 |
|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 15.1 | 18.3 | 15.9 | 11.4 | 8.2 | 24.6 |
|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1.5 | 1.0 | 0.9 | 2.7 | 1.4 | 1.7 |
|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 30.5 | 25.7 | 29.7 | 35.5 | 34.6 | 24.8 |

(5) 피해 후 미대응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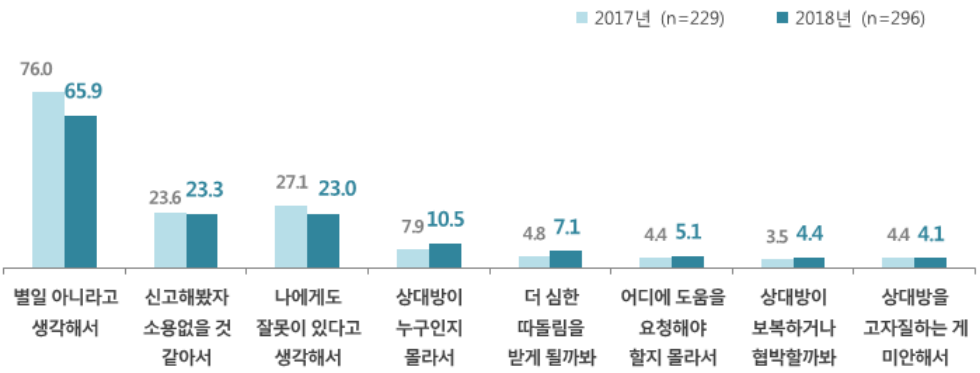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으며,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3.3%),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23.0%) 등으로 집계됨.

○ 전년 대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약 10%p 감소한 것이 특징적임. 이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됨.

○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등학생들은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Ⅲ-18] 피해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Ⅲ-20] 피해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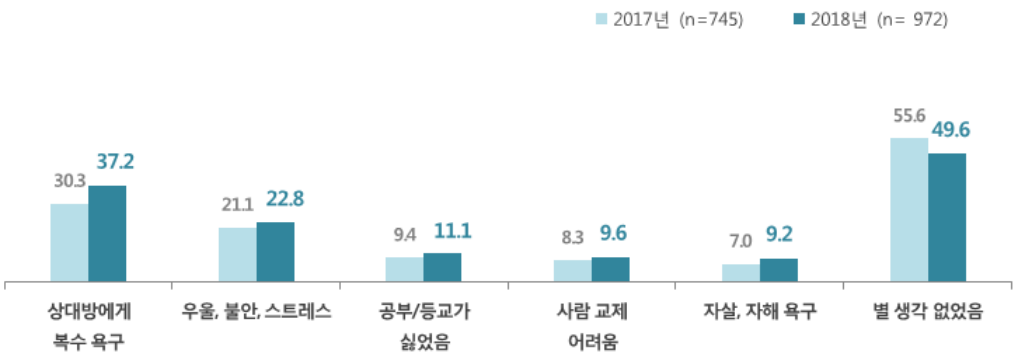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296) | (77) | (101) | (118) | (194) | (102) |
|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65.9 | 49.4 | 70.3 | 72.9 | 69.6 | 58.8 |
| 신고해봤자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 23.3 | 16.9 | 26.7 | 24.6 | 19.1 | 31.4 |
|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 23.0 | 31.2 | 30.7 | 11.0 | 21.1 | 26.5 |
|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 10.5 | 16.9 | 8.9 | 7.6 | 10.3 | 10.8 |
|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 7.1 | 3.9 | 6.9 | 9.3 | 4.6 | 11.8 |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 5.1 | 11.7 | 3.0 | 2.5 | 1.5 | 11.8 |
|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 4.4 | 3.9 | 4.0 | 5.1 | 4.1 | 4.9 |
|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 4.1 | 5.2 | 5.0 | 2.5 | 2.6 | 6.9 |

(6) 피해 후 심리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절반 가량 '별 생각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복수욕구'(37.2%)를 느끼거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22.8%)하기도 함.
- 전년 대비 '별 생각 없었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감소한 반면,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를 느낀다는 비율은 다소 증가함.
- 교급이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공부나 등교가 싫거나, 사람 교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또는 자해 욕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9]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Ⅲ-21]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972) | (300) | (340) | (332) | (561) | (411) |
|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 | 37.2 | 35.0 | 37.4 | 39.2 | 37.6 | 36.7 |
| 우울, 불안, 스트레스 | 22.8 | 26.0 | 26.2 | 16.6 | 15.2 | 33.3 |
| 공부/등교가 싫었음 | 11.1 | 11.7 | 12.6 | 9.0 | 7.1 | 16.5 |
| 사람 교제 어려움 | 9.6 | 9.3 | 11.2 | 8.1 | 6.1 | 14.4 |
| 자살, 자해 욕구 | 9.2 | 11.0 | 10.3 | 6.3 | 5.7 | 13.9 |
| 별 생각 들지 않음 | 49.6 | 42.3 | 47.6 | 58.1 | 55.1 | 42.1 |

## 3. 사이버폭력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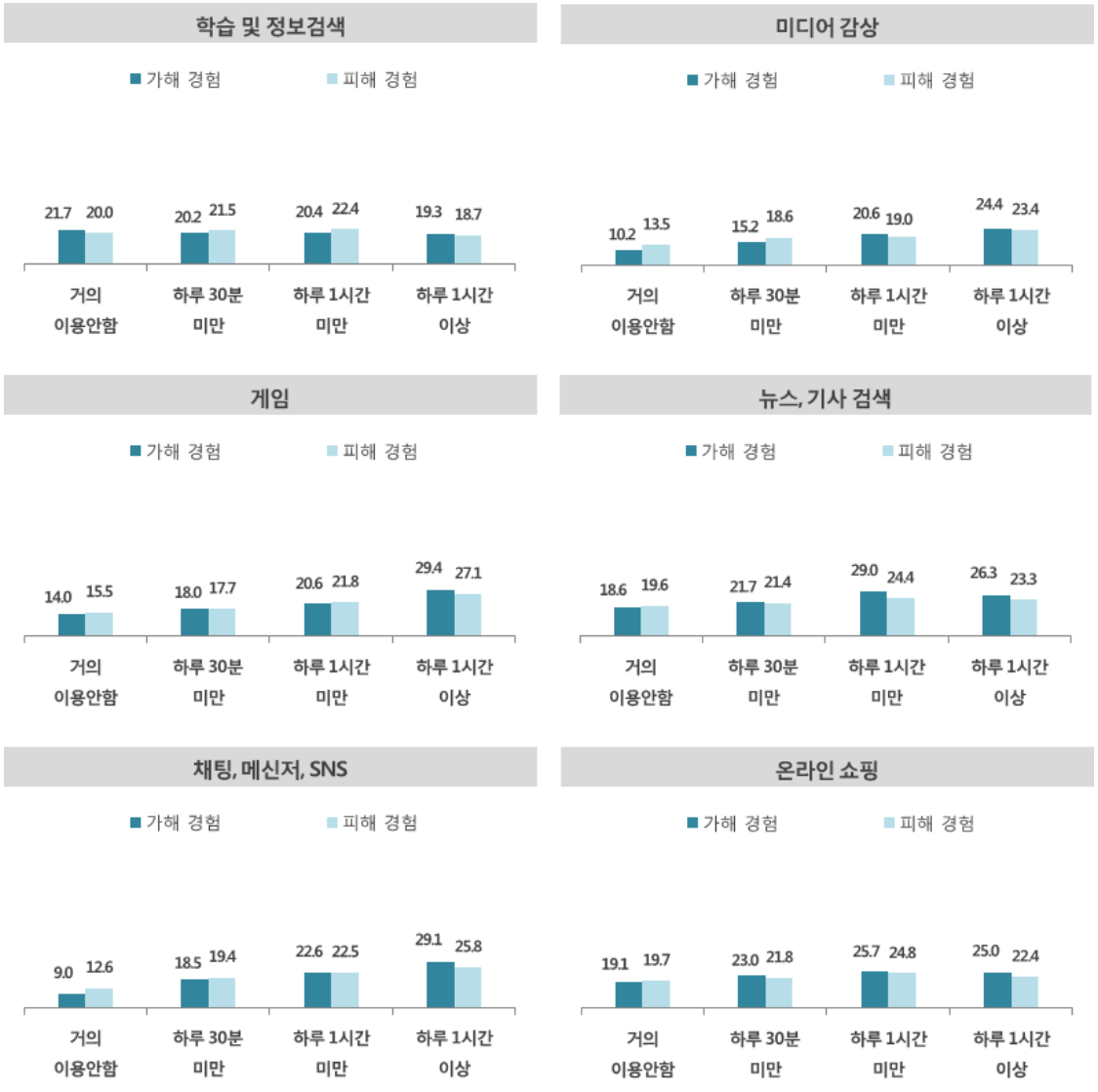
###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 (1)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이용목적별 인터넷 이용 시간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게임'이나 '채팅, 메신저, SNS'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0]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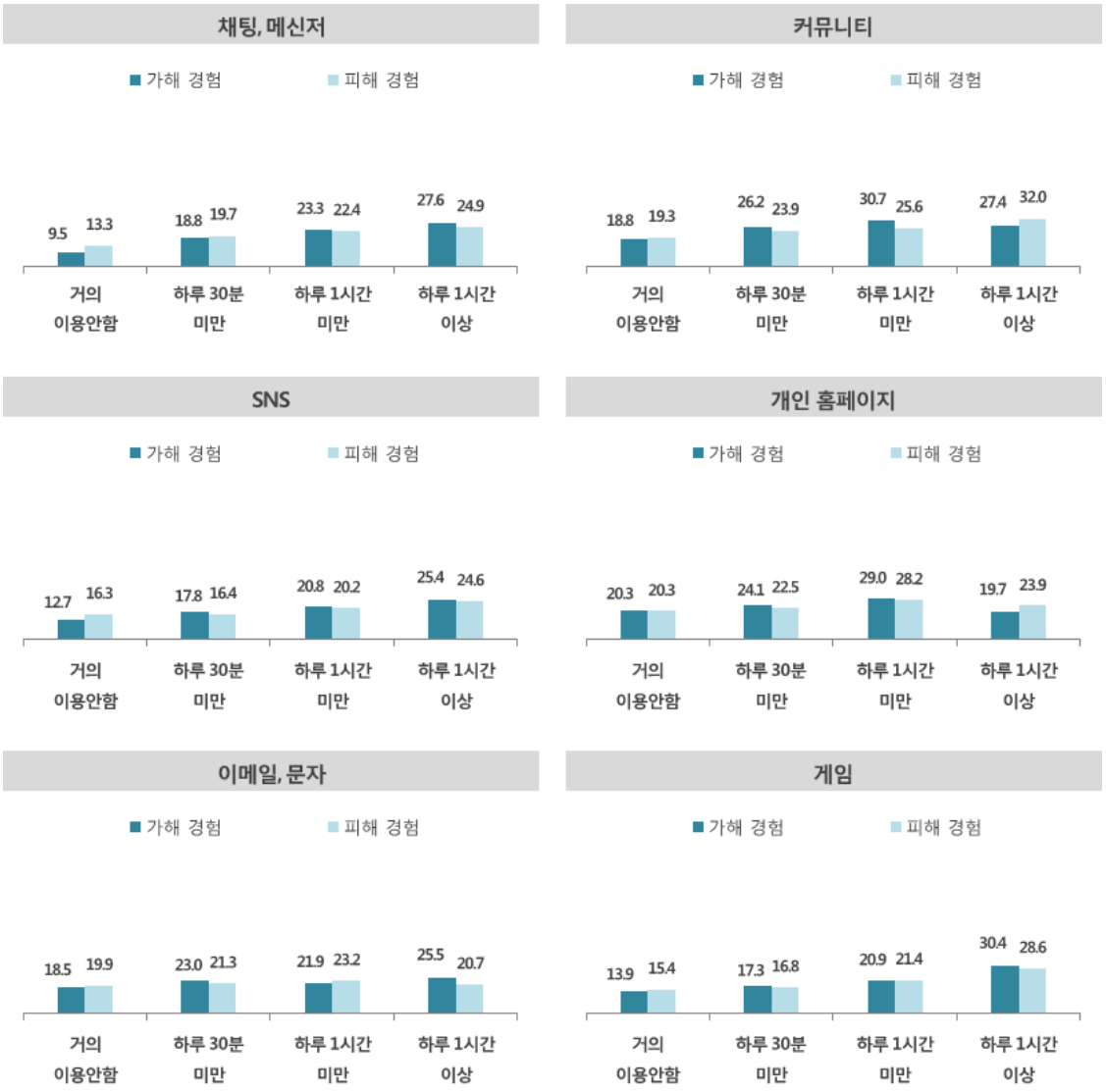
(2)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전반적으로 이용서비스별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이버폭력을 더 많이 경험함.

○ '채팅, 메신저', '커뮤니티', '게임' 서비스를 '하루 1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타 서비스를 '하루 1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제시된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결과와 유사한 내용임.

[그림 Ⅲ-21]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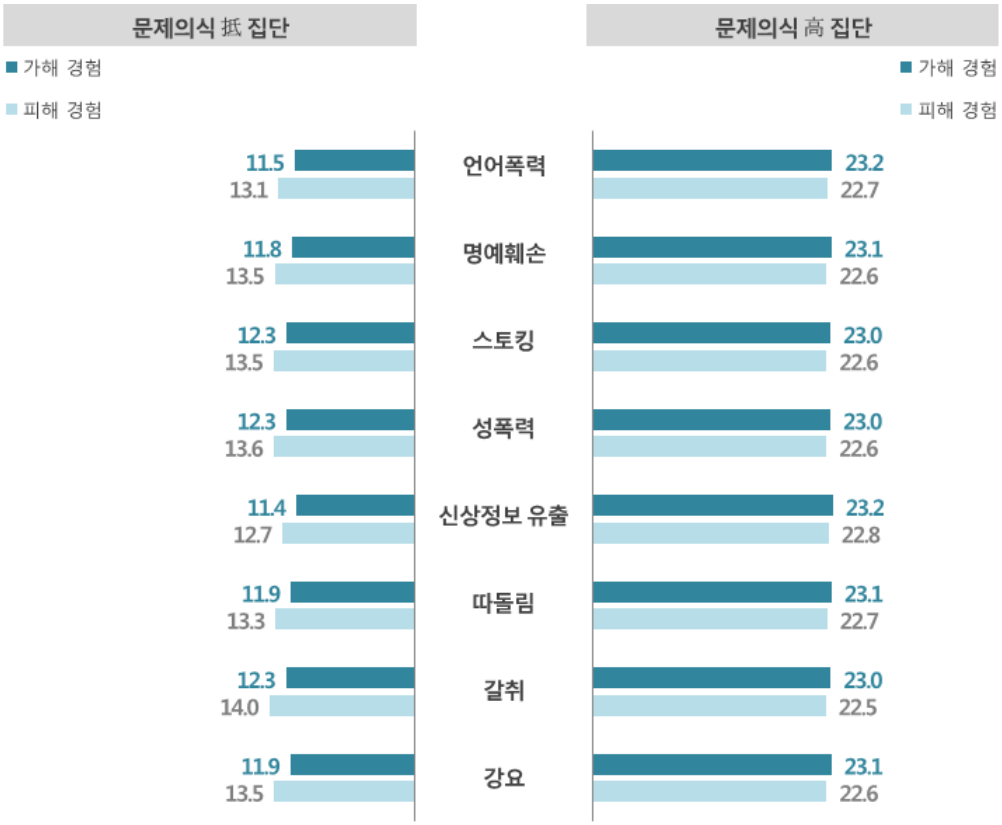


(3)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 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개인의 문제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이는 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률이 높을수록 사소한 폭력 행위를 보다 민감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그림 Ⅲ-22]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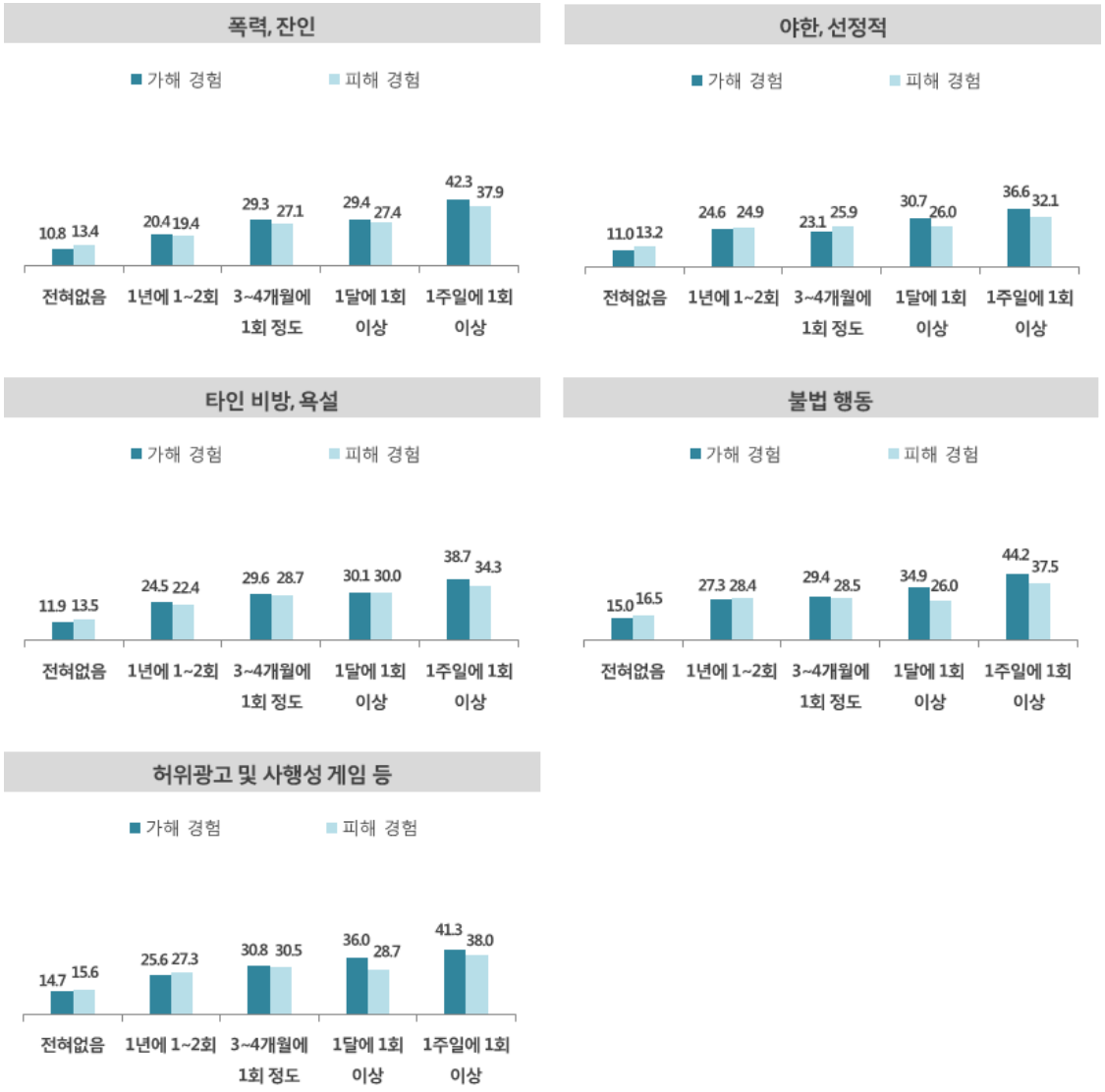


(4)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 콘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유해콘텐츠 접촉 빈도는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그 중에서도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하는 불법 행동에 대한 내용', '거짓광고 및 돈거래 영상'을 '1주일에 1회 이상' 접촉한 학생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40%대로 특히 높게 나타남.

[그림 Ⅲ-23]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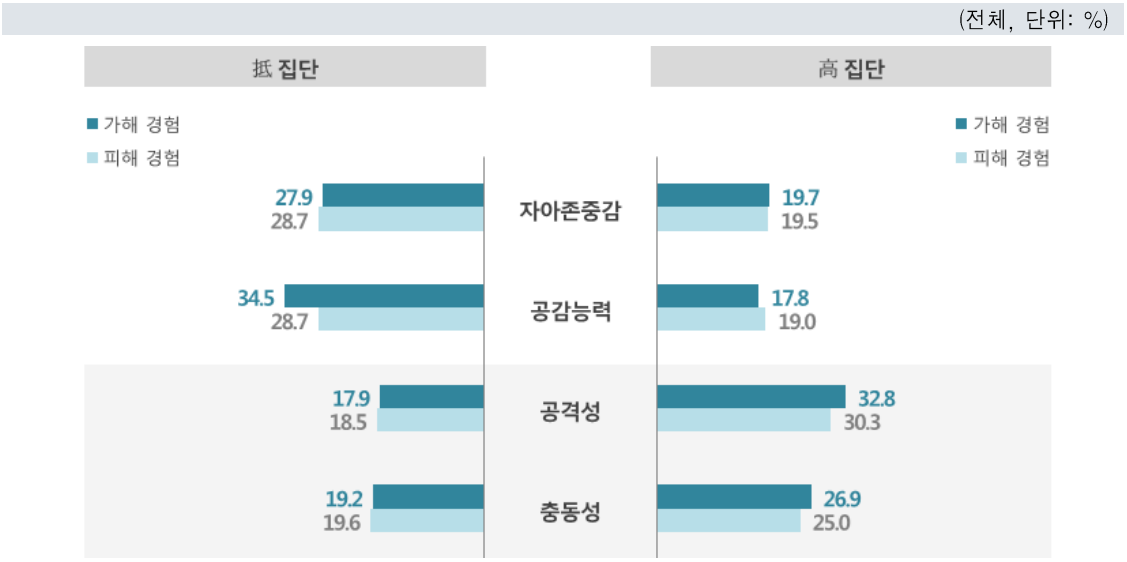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1) 개인 심리요인

○ 응답자 본인의 심리요인과 사이버폭력 경험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낮음.

○ 반면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4]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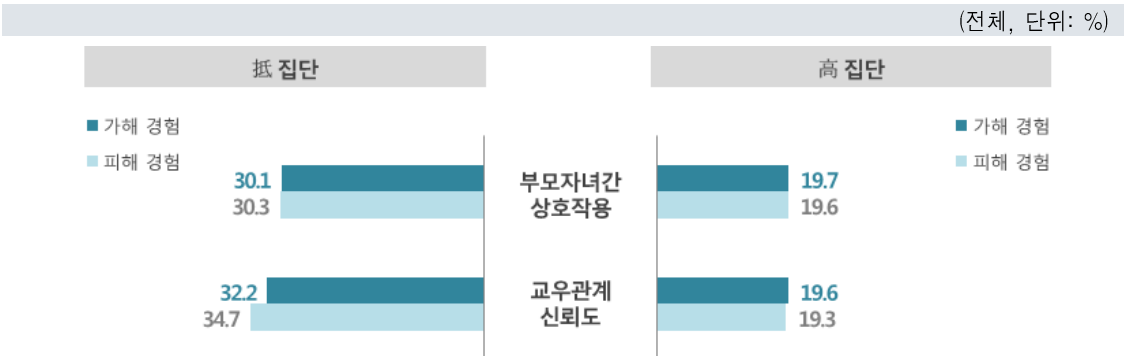



(2) 대인관계 요인

○ 부모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낮음.

○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저조하고 교우관계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은 30%대 이상임. 반면, 대인관계 신뢰도가 높은 집단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대 미만임.

[그림 Ⅲ-25]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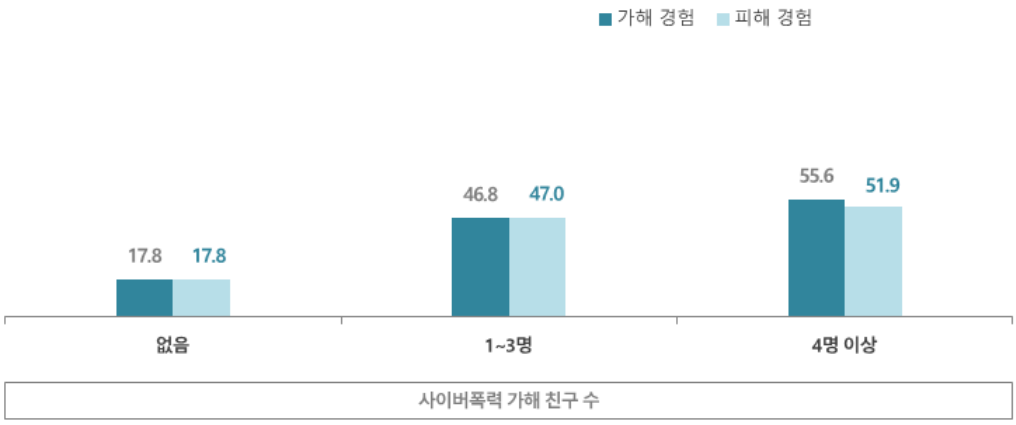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

○ 주변 친구 중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응답자 본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변에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경험한 친구가 '4명 이상'인 경우,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50%대 이상임.

[그림 Ⅲ-26]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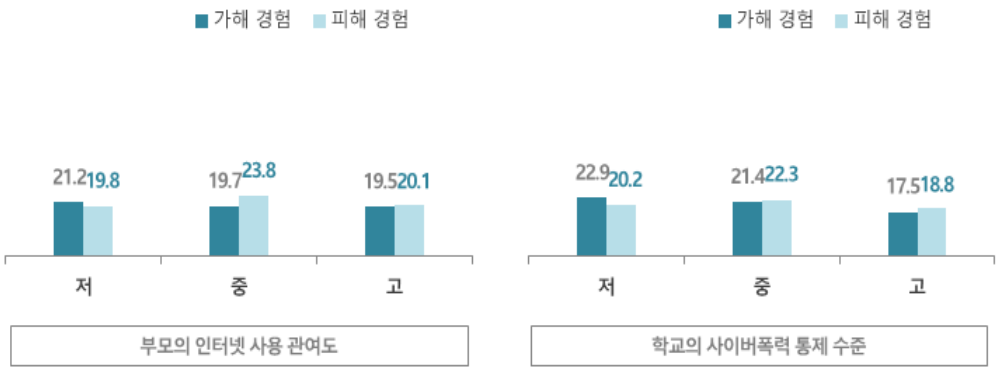

(4)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

○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율이 낮음.

○ 마찬가지로 학교의 사이버폭력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율이 낮음.

[그림 Ⅲ-27]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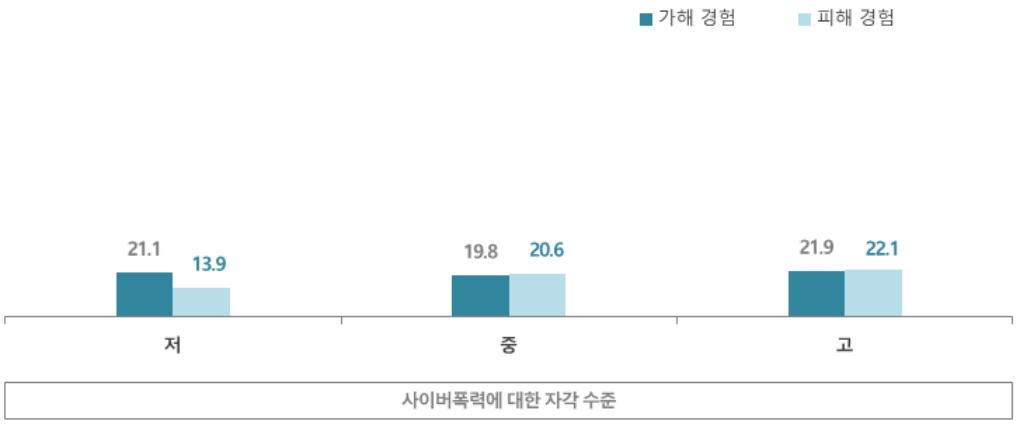


(5)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

○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상담 및 신고처, 처벌 인지 등)이 높거나 중간 수준인 집단은 자각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Ⅲ-28]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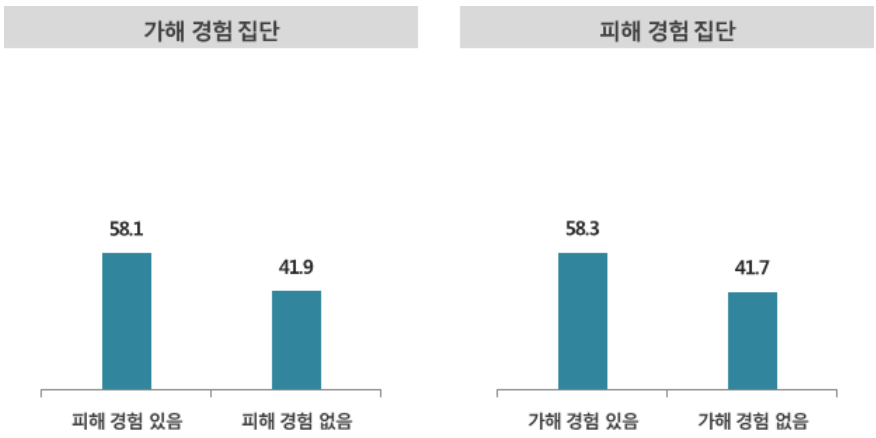

다.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집단의 10명 중 약 6명은 피해 경험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 경험자의 10명 중 약 6명이 가해 경험 있음.

○ 학생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간 상관성 결과는 전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그림 Ⅲ-29]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전체, 단위: %)



# 4. 온라인 정보 활용

## 가. 정보 판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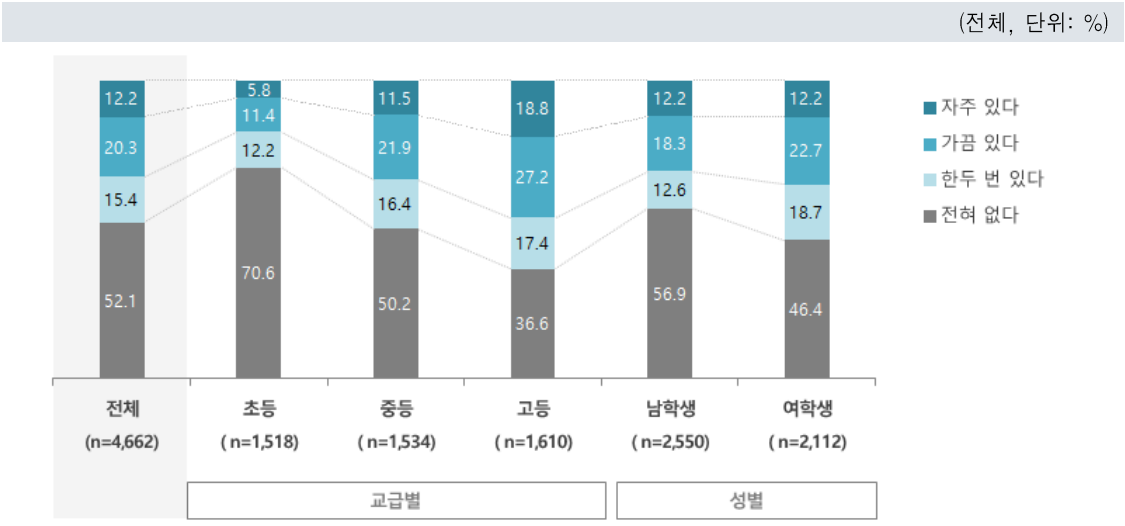
### (1) 사실 확인 경험

○ 조사에 응한 학생 중 47.9%가 최근 6개월 이내 온라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52.1%가 '전혀 확인해본 적 없다'고 응답함.

○ 고등학생의 경우 63.4%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본 적 있는 반면, 초등학생은 29.4%, 중학생은 49.8%로 상대적으로 낮은 확인 비율을 보임. 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 정보 판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비율은 전체 교급 중 고등학교가 가장 높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Ⅲ-30] 사실 확인 경험




[표Ⅲ-22]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전혀 없다 | | 52.1 | 70.6 | 50.2 | 36.6 | 56.9 | 46.4 |
| 한두 번 있다 | | 15.4 | 12.2 | 16.4 | 17.4 | 12.6 | 18.7 |
| 가끔 있다 | | 20.3 | 11.4 | 21.9 | 27.2 | 18.3 | 22.7 |
| 자주 있다 | | 12.2 | 5.8 | 11.5 | 18.8 | 12.2 | 12.2 |
| 종합 결과 | 경험 없음 | 52.1 | 70.6 | 50.2 | 36.6 | 56.9 | 46.4 |
| | 경험 있음 | 47.9 | 29.4 | 49.8 | 63.4 | 43.1 | 5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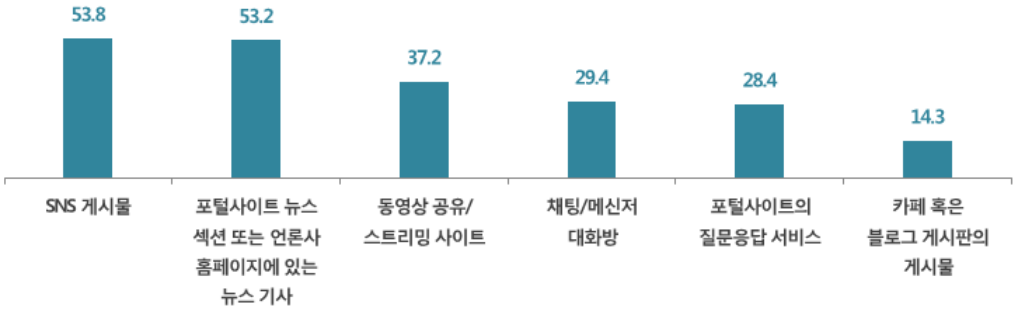
(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사실 여부를 확인한 온라인 정보의 종류는 'SNS 게시물'(53.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53.2%),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37.2%), '채팅/메신저 대화방'(29.4%) 등이 있음.

○ 초등학교 교급은 'SNS 게시물'과 '채팅/메신저 대화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타 교급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SNS 게시물'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많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Ⅲ-23]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2,231) | (446) | (764) | (1,021) | (1,098) | (1,133)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53.8 | 23.5 | 57.7 | 64.2 | 47.2 | 60.3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53.2 | 47.8 | 50.8 | 57.3 | 53.8 | 52.5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37.2 | 42.2 | 37.6 | 34.7 | 42.4 | 32.0 |
|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29.4 | 22.9 | 30.0 | 31.9 | 27.0 | 31.9 |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28.4 | 32.3 | 29.3 | 26.1 | 27.5 | 29.3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14.3 | 9.9 | 13.4 | 16.8 | 14.4 | 1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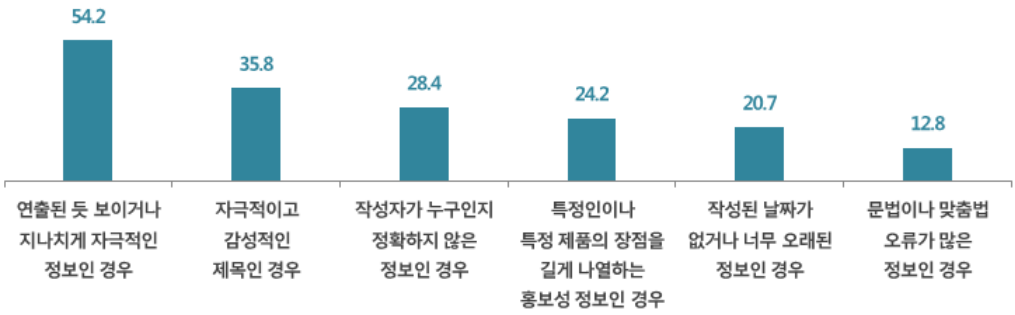
(3) 사실 확인 이유

○ 온라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이유로는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54.2%)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35.8%),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28.4%)인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함.

○ 교급이 높을수록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에 사실 확인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초등학교 교급은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사실 확인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교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Ⅲ-32]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Ⅲ-24]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2,231) | (446) | (764) | (1,021) | (1,098) | (1,133) |
|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54.2 | 48.4 | 53.7 | 57.2 | 52.6 | 55.8 |
|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35.8 | 14.6 | 29.6 | 49.8 | 37.7 | 34.0 |
|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28.4 | 27.8 | 30.8 | 26.8 | 28.3 | 28.4 |
|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24.2 | 15.5 | 23.8 | 28.3 | 22.1 | 26.2 |
|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20.7 | 24.9 | 21.1 | 18.6 | 19.9 | 21.4 |
|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12.8 | 20.0 | 13.5 | 9.2 | 11.0 | 1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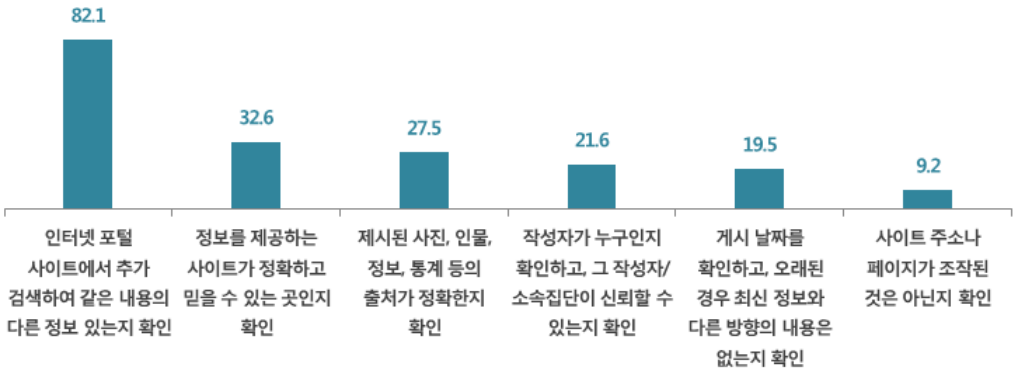
(4) 사실 확인 방법

○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82.1%)하는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32.6%),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27.5%) 등의 방법을 사용함.

○ 고등학교 교급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비율이 타 교급 대비 높음.

[그림 Ⅲ-33]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Ⅲ-25]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2,231) | (446) | (764) | (1,021) | (1,098) | (1,133) |
|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82.1 | 75.3 | 82.3 | 84.9 | 80.7 | 83.5 |
|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32.6 | 22.6 | 30.9 | 38.2 | 31.2 | 33.9 |
|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27.5 | 25.8 | 26.7 | 28.8 | 25.6 | 29.3 |
|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21.6 | 21.7 | 21.9 | 21.4 | 22.2 | 21.1 |
|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19.5 | 19.7 | 19.1 | 19.6 | 17.9 | 20.9 |
|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 (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9.2 | 10.3 | 9.9 | 8.1 | 10.1 | 8.3 |

## 나. 허위정보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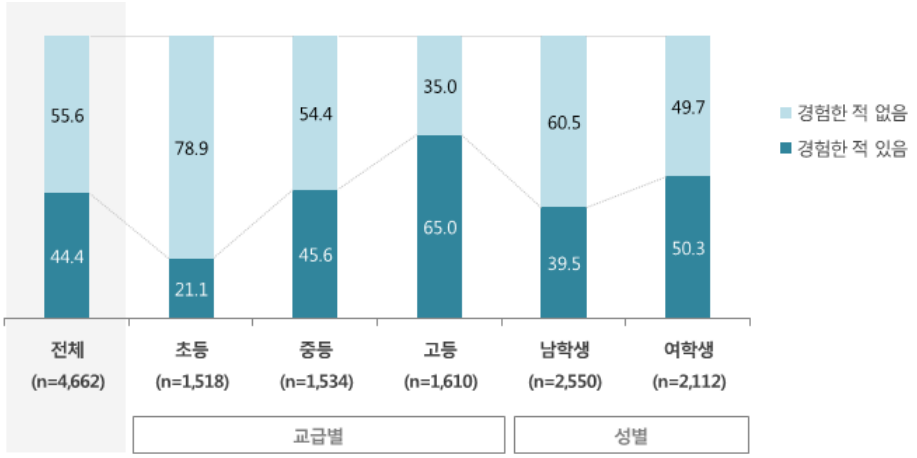
### (1)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4.4%임.

○ 초등학생은 21.1%, 중학생은 45.6%, 고등학생은 65.0%로 교급이 높을수록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4]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전체, 단위: %)




[표Ⅲ-26]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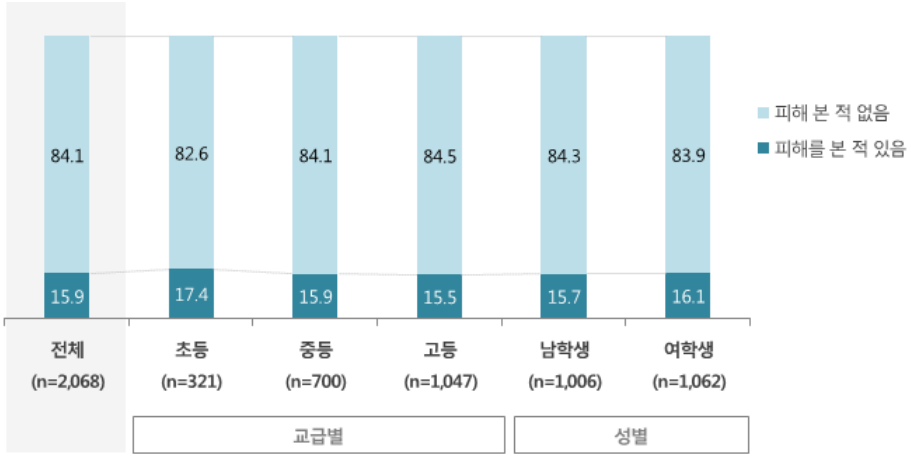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경험한 적 있음 | 44.4 | 21.1 | 45.6 | 65.0 | 39.5 | 50.3 |
| 경험한 적 없음 | 55.6 | 78.9 | 54.4 | 35.0 | 60.5 | 49.7 |

(2)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자 중 15.9%가 실제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률은 성별 또는 교급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임.

[그림 Ⅲ-35]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자, 단위: %)




[표Ⅲ-27]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자, 단위: %)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2,068) | (321) | (700) | (1,047) | (1,006) | (1,062) |
| 피해 본 적 있음 | 15.9 | 17.4 | 15.9 | 15.5 | 15.7 | 16.1 |
| 피해 본 적 없음 | 84.1 | 82.6 | 84.1 | 84.5 | 84.3 | 8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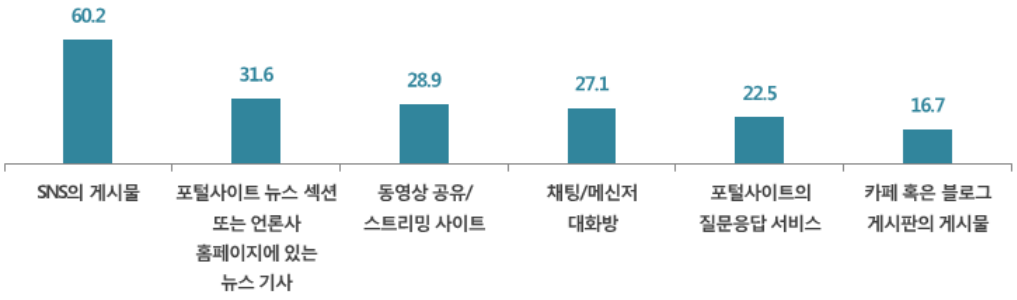
(3) 잘못된 정보 종류

○ 잘못된 온라인 정보 인한 피해 경험자들은 주로 'SNS의 게시물'(60.2%)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음. 그 외에는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31.6%),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28.9%), '채팅/메신저 대화방'(27.1%) 등임.

○ 타 교급에 비해 초등학생의 'SNS의 게시물'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SNS의 게시물'을 통해 피해를 본 경우가 더 많음.

[그림 Ⅲ-36] 잘못된 정보 종류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Ⅲ-28] 잘못된 정보 종류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329) | (56) | (111) | (162) | (158) | (171)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60.2 | 14.3 | 60.4 | 75.9 | 52.5 | 67.3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31.6 | 17.9 | 24.3 | 41.4 | 30.4 | 32.7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28.9 | 39.3 | 36.9 | 19.8 | 32.9 | 25.1 |
|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27.1 | 23.2 | 24.3 | 30.2 | 25.3 | 28.7 |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22.5 | 21.4 | 23.4 | 22.2 | 19.0 | 25.7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16.7 | 12.5 | 14.4 | 19.8 | 18.4 | 15.2 |

##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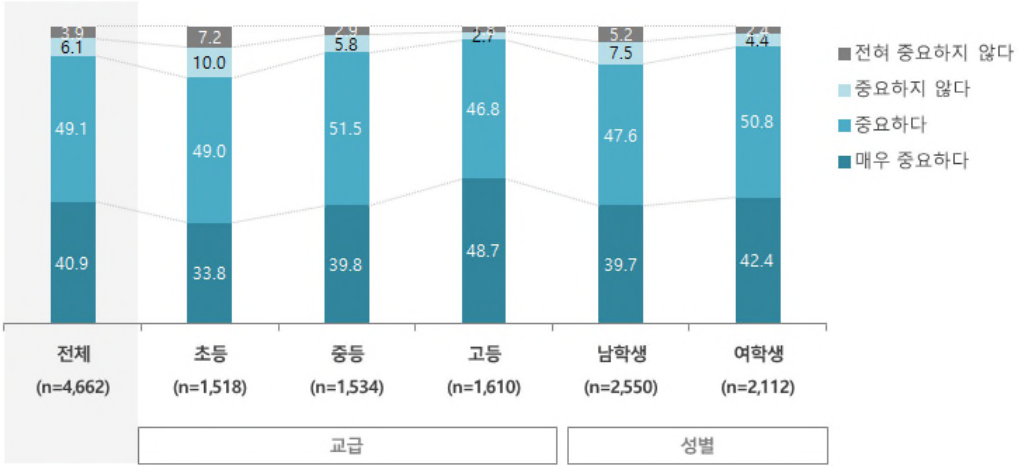
### (1)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온라인상에서 정보 접촉 시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중요하다(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0%로 10명 중 9명꼴임.

○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소폭 높음.

[그림 Ⅲ-37]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표Ⅲ-29]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3.9 | 7.2 | 2.9 | 1.8 | 5.2 | 2.4 |
| ② 중요하지 않다 | | 6.1 | 10.0 | 5.8 | 2.7 | 7.5 | 4.4 |
| ③ 중요하다 | | 49.1 | 49.0 | 51.5 | 46.8 | 47.6 | 50.8 |
| ④ 매우 중요하다 | | 40.9 | 33.8 | 39.8 | 48.7 | 39.7 | 42.4 |
| 종합 결과 | ①+② 중요하지 않음 | 10.0 | 17.2 | 8.7 | 4.5 | 12.7 | 6.8 |
| | ③+④ 중요함 | 90.0 | 82.8 | 91.3 | 95.5 | 87.3 | 9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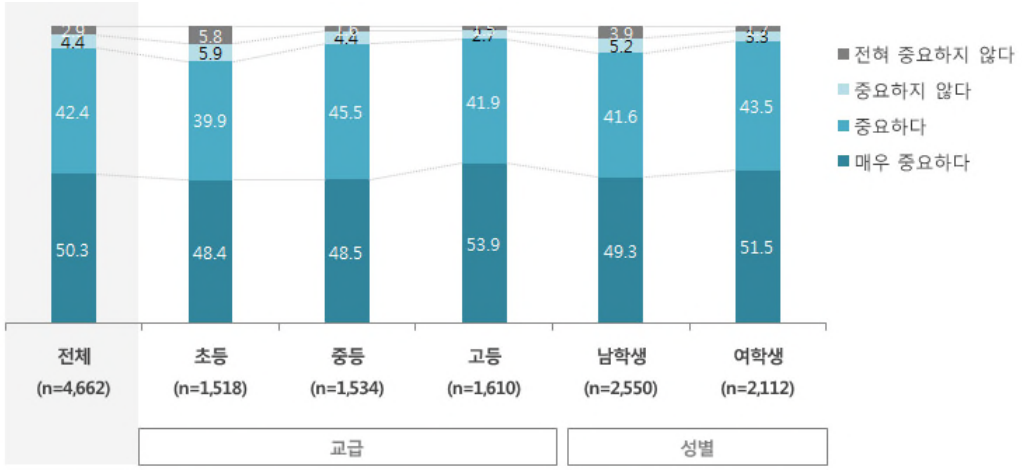
(2)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정보 접촉 이후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중요하다(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2.7%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Ⅲ-38]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표Ⅲ-30]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2.9 | 5.8 | 1.6 | 1.5 | 3.9 | 1.7 |
| ② 중요하지 않다 | | 4.4 | 5.9 | 4.4 | 2.7 | 5.2 | 3.3 |
| ③ 중요하다 | | 42.4 | 39.9 | 45.5 | 41.9 | 41.6 | 43.5 |
| ④ 매우 중요하다 | | 50.3 | 48.4 | 48.5 | 53.9 | 49.3 | 51.5 |
| 종합 결과 | ①+② 중요하지 않음 | 7.3 | 11.7 | 6.0 | 4.2 | 9.1 | 5.0 |
| | ③+④ 중요함 | 92.7 | 88.3 | 94.0 | 95.8 | 90.9 | 9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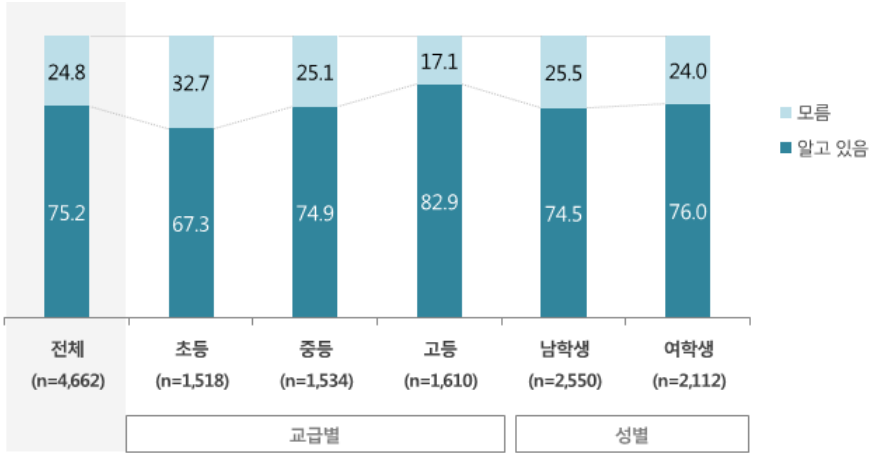
(3)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정보를 공유(유포)하는 경우, 본인이 공유한 정보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5.2%임.

○ 초등학생은 67.3%, 중학생은 74.9%, 고등학생은 82.9%로 교급이 높을수록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율은 비슷한 수준임.

[그림 Ⅲ-39]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표Ⅲ-31]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알고 있음 | 75.2 | 67.3 | 74.9 | 82.9 | 74.5 | 76.0 |
| 모름 | 24.8 | 32.7 | 25.1 | 17.1 | 25.5 | 2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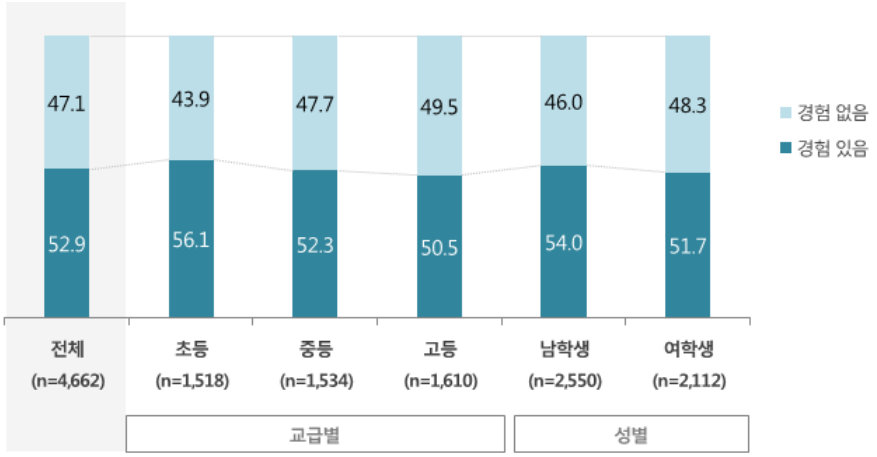
(4)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 온라인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52.9%로, 10명 중 5명꼴임.

○ 초등학교 교급의 정보 판별력에 대한 교육 경험률은 56.1%로 타 교급에 비해 높음.

[그림 Ⅲ-40]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전체, 단위: %)




[표Ⅲ-32]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교육 받은 경험 있음 | 52.9 | 56.1 | 52.3 | 50.5 | 54.0 | 51.7 |
| 교육 받은 경험 없음 | 47.1 | 43.9 | 47.7 | 49.5 | 46.0 | 4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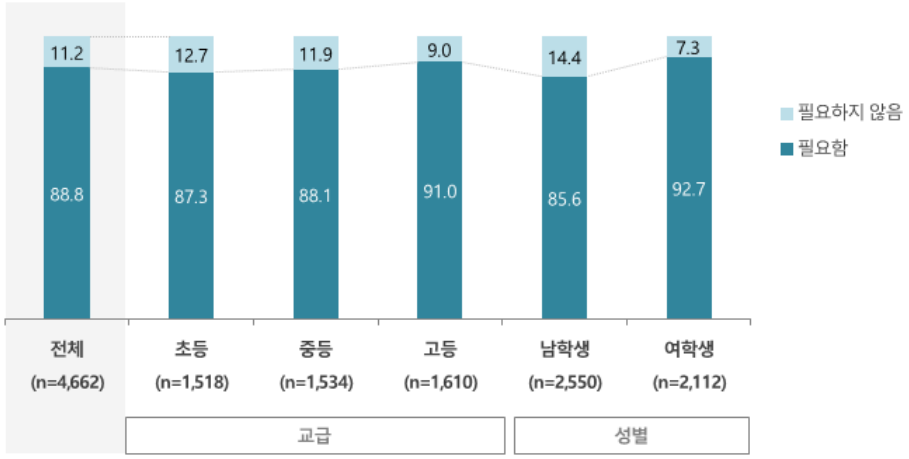
(5)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 정보 판별력 교육이 '필요하다(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8.8%임.

○ 교급이 높을수록 교육 이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정보 판별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41]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전체, 단위: %)




[표Ⅲ-33]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교급별 | | | 성별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남학생 | 여학생 |
| (사례수) | | (4,662) | (1,518) | (1,534) | (1,610) | (2,550) | (2,112)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3.3 | 4.9 | 2.8 | 2.2 | 4.9 | 1.4 |
| ② 필요하지 않다 | | 7.9 | 7.8 | 9.1 | 6.8 | 9.5 | 5.9 |
| ③ 필요하다 | | 54.8 | 54.4 | 56.8 | 53.2 | 52.1 | 58.0 |
| ④ 매우 필요하다 | | 34.0 | 32.9 | 31.3 | 37.8 | 33.5 | 34.7 |
| 종합 결과 | ①+② 필요하지 않음 | 11.2 | 12.7 | 11.9 | 9.0 | 14.4 | 7.3 |
| | ③+④ 필요함 | 88.8 | 87.3 | 88.1 | 91.0 | 85.6 | 92.7 |

# Ⅳ. 성인 대상 조사결과


1. 사이버폭력 경험 63
가. 경험 현황 63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64
다. 목격 현황 68

2. 사이버폭력 특성 71
가. 가해 행태 71
나. 피해 행태 76

3. 사이버폭력 원인 82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82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86
다.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89

4. 온라인 정보 활용 90
가. 정보 판별 태도 90
나. 허위정보 피해 경험 94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97

# 1. 사이버폭력 경험

## 가. 경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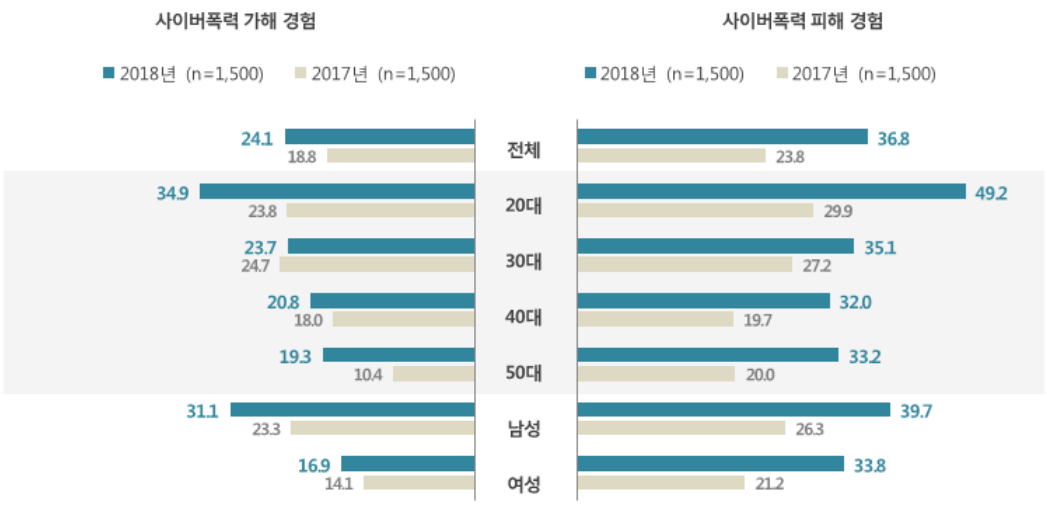
○ 조사에 응한 20~50대 성인 1,500명 중 24.1%가 최근 1년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6.8%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20대의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또한,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40~50대 역시 10명 중 3명꼴로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됨.

○ 전년 대비 가해 경험은 5.3%p, 피해 경험은 13.0%p 증가하여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13] 역시 13.3%p 증가함.

[그림 Ⅳ-1] 사이버폭력 경험률

(전체, 단위: %)




[표 Ⅳ-1] 사이버폭력 경험률[14]

(전체, 단위: %)

| 구분 | 2017년 (7개 유형) | 2018년 | | | |
|---|---|---|---|---|---|
| | | 8개 유형 | Gap ('18-'17) | 7개 유형 | Gap ('18-'17) |
| (사례수) | (1,500) | (1,500) | - | (1,500) | - |
|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 | 29.8 | 43.1 | ▲ 13.3 | 42.7 | ▲ 12.9 |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 18.8 | 24.1 | ▲ 5.3 | 23.8 | ▲ 5.0 |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 23.8 | 36.8 | ▲ 13.0 | 36.5 | ▲ 12.7 |

13) 최근 1년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비율
14) 8개 유형: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7개 유형(2018년 신규 추가된 '강요' 제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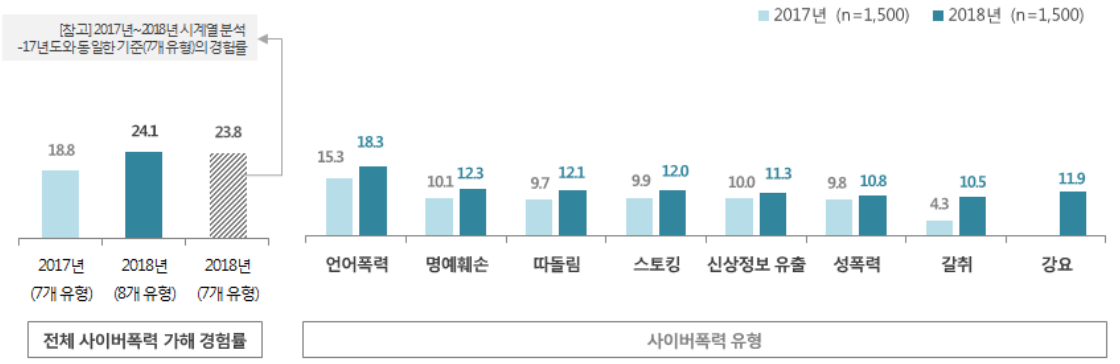
##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 (1) 가해 유형별 경험률

-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은 전년도에 이어 '언어폭력'이 18.3%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명예훼손'(12.3%) > '따돌림'(12.1%) > '스토킹'(12.0%) > '신상정보 유출'(11.3%) > '성폭력'(10.8%) > '갈취'(10.5%) 순임.
- 전반적으로 모든 폭력 유형의 가해 경험률이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갈취' 유형의 증가폭(약 6%p)이 가장 두드러짐.
- 가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유형인 '언어폭력'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험 비율이 높으며 여성(12.3%)에 비해 남성(24.0%) 집단의 경험률이 약 2배에 달함.

[그림 Ⅳ-2] 가해 유형별 경험률[15)]

(전체, 단위: %, 복수응답)




[표 Ⅳ-2] 가해 유형별 경험률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전체 가해 경험률(8개 유형) | | 24.1 | 34.9 | 23.7 | 20.8 | 19.3 | 31.1 | 16.9 |
| 전체 가해 경험률(7개 유형) | | 23.8 | 34.9 | 23.7 | 20.6 | 18.3 | 30.7 | 16.6 |
| 가해 유형 | 언어폭력 | 18.3 | 28.1 | 19.4 | 15.7 | 12.0 | 24.0 | 12.3 |
| | 명예훼손 | 12.3 | 19.0 | 15.1 | 9.4 | 7.6 | 15.8 | 8.7 |
| | 따돌림 | 12.1 | 16.2 | 16.0 | 9.7 | 7.8 | 15.3 | 8.7 |
| | 스토킹 | 12.0 | 16.2 | 13.7 | 9.7 | 9.5 | 15.4 | 8.4 |
| | 신상정보 유출 | 11.3 | 15.0 | 13.1 | 9.7 | 8.5 | 14.0 | 8.6 |
| | 성폭력 | 10.8 | 14.7 | 12.6 | 8.5 | 8.5 | 14.1 | 7.4 |
| | 갈취 | 10.5 | 16.2 | 13.4 | 8.0 | 6.1 | 13.4 | 7.5 |
| | 강요 | 11.9 | 17.4 | 14.0 | 8.2 | 9.3 | 15.4 | 8.2 |

15) 8개 유형: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7개 유형(2018년 신규 추가된 '강요' 제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는 2018년 신규 추가 유형이므로 2017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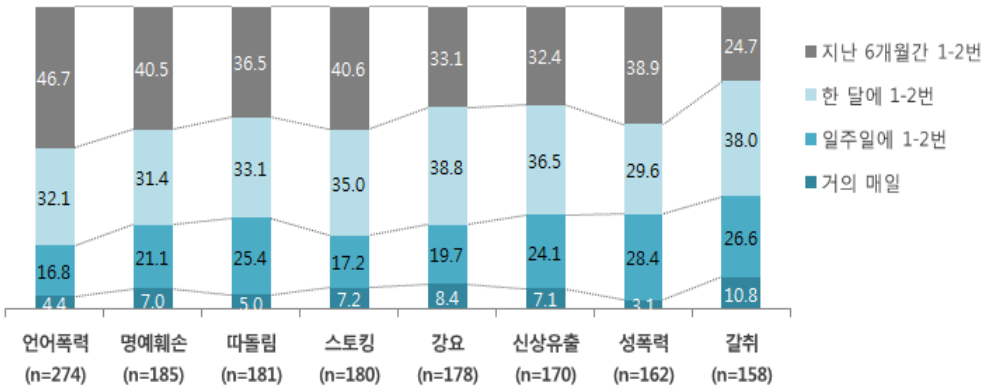
(2) 가해 유형별 빈도

○ 가해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유형은 '갈취', '성폭력', '신상유출', '따돌림' 등임. 특히 '갈취' 유형의 경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8%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음.

○ 가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언어폭력'의 경우, 전체 폭력 유형 중 '지난 6개월간 1-2번'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아 '언어폭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 발생 빈도가 타 유형 대비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됨.

[그림 Ⅳ-3] 가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표 Ⅳ-3] 가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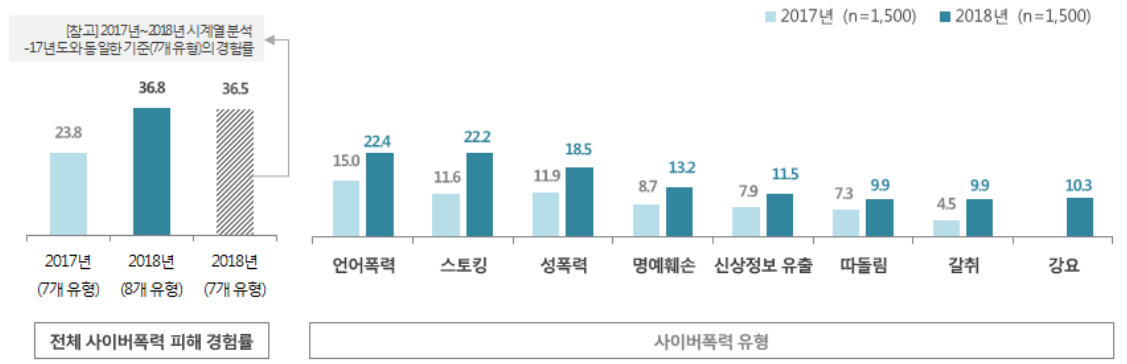
| 구분 | 가해 유형 | | | | | | | |
|---|---|---|---|---|---|---|---|---|
| | 언어 폭력 | 명예 훼손 | 따돌림 | 스토킹 | 강요 | 신상 정보 유출 | 성폭력 | 갈취 |
| (사례수) | (274) | (185) | (181) | (180) | (178) | (170) | (162) | (158) |
| 지난 6개월간 1-2번 | 46.7 | 40.5 | 36.5 | 40.6 | 33.1 | 32.4 | 38.9 | 24.7 |
| 한 달에 1-2번 | 32.1 | 31.4 | 33.1 | 35.0 | 38.8 | 36.5 | 29.6 | 38.0 |
| 일주일에 1-2번 | 16.8 | 21.1 | 25.4 | 17.2 | 19.7 | 24.1 | 28.4 | 26.6 |
| 거의 매일 | 4.4 | 7.0 | 5.0 | 7.2 | 8.4 | 7.1 | 3.1 | 10.8 |

(3) 피해 유형별 경험률

- 20~50대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역시 '언어폭력' 유형이 22.4%로 가장 높게 집계됨. 다음으로 '스토킹'이 22.2%로 유사한 수준으로 경험률 높음. 그 외 '성폭력'(18.5%) > '명예훼손'(13.2%) > '신상정보 유출'(11.5%) > '따돌림'(9.9%) 및 '갈취'(9.9%)의 순서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유형별 피해 경험률이 적게는 약 2%p, 많게는 약 10%p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임.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각각 7.4%p, 6.6%p씩 경험 비율 증가한 가운데, '스토킹'의 경험 비율이 전년 대비 큰 폭(10.6%p)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적임.
- '스토킹' 유형의 경우 40~50대에서도 피해 경험비율이 높은데, 이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이메일/문자/쪽지 또는 개인 블로그/SNS 공간에 남겨진 방문/댓글 흔적 등 매우 포괄적인 상황들을 사이버폭력의 '스토킹' 유형으로 인지한 결과로 해석됨[16].

[그림 Ⅳ-4] 피해 유형별 경험률[17]

(전체, 단위: %, 복수응답)




[표 Ⅳ-4] 피해 유형별 경험률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전체 피해 경험률(8개 유형) | | 36.8 | 49.2 | 35.1 | 32.0 | 33.2 | 39.7 | 33.8 |
| 전체 피해 경험률(7개 유형) | | 36.5 | 49.2 | 34.0 | 31.7 | 33.2 | 39.3 | 33.5 |
| 피해 유형 | 언어폭력 | 22.4 | 36.7 | 20.9 | 19.4 | 15.4 | 27.0 | 17.6 |
| | 스토킹 | 22.2 | 26.0 | 21.1 | 19.4 | 22.9 | 23.4 | 21.0 |
| | 성폭력 | 18.5 | 21.4 | 18.6 | 16.2 | 18.3 | 20.4 | 16.5 |
| | 명예훼손 | 13.2 | 22.3 | 13.1 | 10.7 | 8.5 | 16.7 | 9.5 |
| | 신상정보 유출 | 11.5 | 15.0 | 14.6 | 9.4 | 8.0 | 14.5 | 8.3 |
| | 따돌림 | 9.9 | 13.5 | 11.4 | 8.5 | 7.3 | 13.2 | 6.5 |
| | 갈취 | 9.9 | 15.9 | 12.3 | 7.0 | 5.9 | 12.9 | 6.7 |
| | 강요 | 10.3 | 15.6 | 12.3 | 8.0 | 6.8 | 13.4 | 7.1 |

16) 실제 설문지 상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아닌 '특정인이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률 질문함

17) 8개 유형: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7개 유형(2018년 신규 추가된 '강요' 제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는 2018년 신규 추가 유형이므로 2017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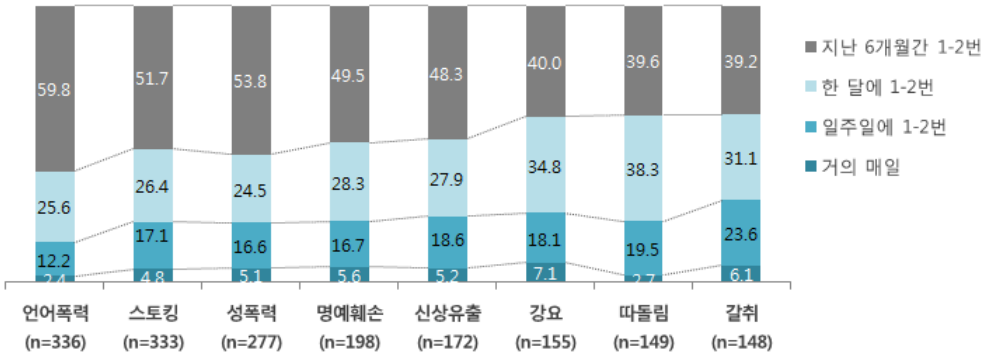
(4) 피해 유형별 빈도

○ 전체 유형 중 '갈취'는 피해 빈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해 유형별 빈도 결과와도 유사함. 실제로 '일주일에 1-2번' 이상 '갈취' 유형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29.7%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음.

○ 반면 '언어폭력'은 나머지 유형 대비 피해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됨 ('지난 6개월간 1-2번' 피해 경험 59.8%).

[그림 Ⅳ-5] 피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표 Ⅳ-5] 피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 구분 | 피해 유형 | | | | | | | |
|---|---|---|---|---|---|---|---|---|
| | 언어 폭력 | 스토킹 | 성폭력 | 명예 훼손 | 신상 정보 유출 | 강요 | 따돌림 | 갈취 |
| (사례수) | (336) | (333) | (277) | (198) | (172) | (155) | (149) | (148) |
| 지난 6개월간 1-2번 | 59.8 | 51.7 | 53.8 | 49.5 | 48.3 | 40.0 | 39.6 | 39.2 |
| 한 달에 1-2번 | 25.6 | 26.4 | 24.5 | 28.3 | 27.9 | 34.8 | 38.3 | 31.1 |
| 일주일에 1-2번 | 12.2 | 17.1 | 16.6 | 16.7 | 18.6 | 18.1 | 19.5 | 23.6 |
| 거의 매일 | 2.4 | 4.8 | 5.1 | 5.6 | 5.2 | 7.1 | 2.7 | 6.1 |

## 다. 목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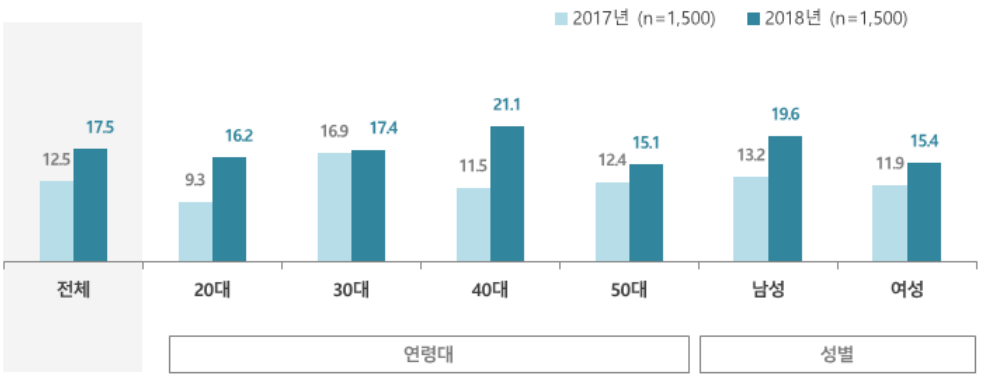
### (1) 목격 현황

○ 조사에 응답한 20~50대 성인의 17.5%가 최근 1년 이내 주변에서 사이버폭력(가해 또는 피해 상황)을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함(전년 대비 목격 경험률 약 5%p 증가).

○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40대의 목격 경험률이 21.1%로 가장 높으며, 20대와 30대, 50대는 각각 16.2%, 17.4%, 15.1%로 유사한 수준임.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의 목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Ⅳ-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전체, 단위: %)




[표 Ⅳ-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본 적 있음 | 17.5 | 16.2 | 17.4 | 21.1 | 15.1 | 19.6 | 15.4 |
| 본 적 없음 | 82.5 | 83.8 | 82.6 | 78.9 | 84.9 | 80.4 | 8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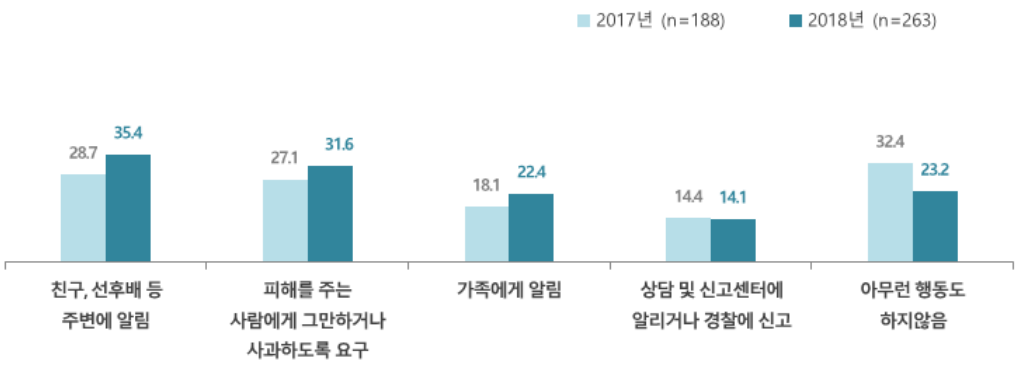
(2) 목격 후 대응

○ 사이버폭력 목격 후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35.4%로 가장 많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31.6%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임.

○ 가족 또는 친구/선후배 등 주변에 알리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이 특징적임. 유사한 맥락으로 사이버폭력 목격 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32.4%에서 올해 23.2%로 하락함.

[그림 Ⅳ-7] 목격 후 대응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 Ⅳ-7] 목격 후 대응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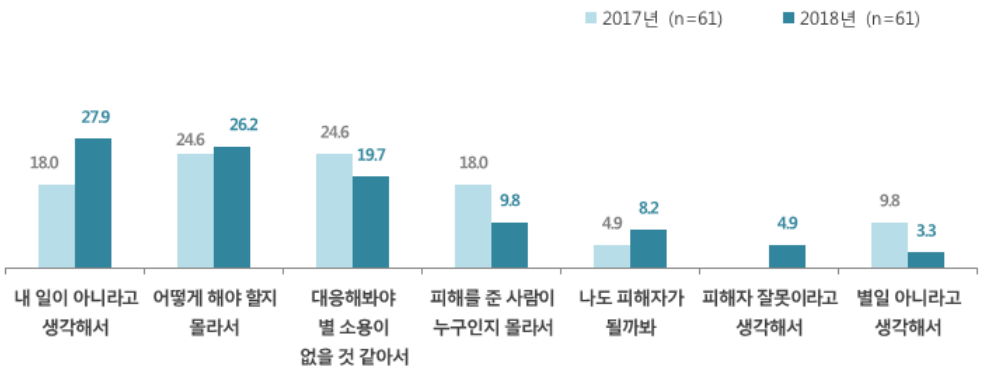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263) | (53) | (61) | (87) | (62) | (150) | (113) |
|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주변에 알렸다 | 35.4 | 34.0 | 34.4 | 34.5 | 38.7 | 29.3 | 43.4 |
|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 31.6 | 32.1 | 29.5 | 26.4 | 40.3 | 30.7 | 32.7 |
| 가족에게 알렸다 | 22.4 | 18.9 | 24.6 | 25.3 | 19.4 | 20.7 | 24.8 |
| 상담 및 신고센터(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14.1 | 13.2 | 9.8 | 16.1 | 16.1 | 12.7 | 15.9 |
|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23.2 | 30.2 | 27.9 | 18.4 | 19.4 | 27.3 | 17.7 |

(3) 목격 후 미대응 이유[18]

- 사이버폭력 상황을 목격한 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7.9%)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6.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음.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에 대한 응답률은 전년도에 이어 목격 후 미대응 행동에 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남. 반면, 전년 대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에 대한 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임.

[그림 Ⅳ-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목격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표 Ⅳ-8] 목격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목격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61) | (16) | (17) | (16) | (12) | (41) | (20) |
|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27.9 | 43.8 | 17.6 | 18.8 | 33.3 | 22.0 | 40.0 |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26.2 | 18.8 | 17.6 | 31.3 | 41.7 | 24.4 | 30.0 |
| 대응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19.7 | 18.8 | 5.9 | 31.3 | 25.0 | 22.0 | 15.0 |
|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 9.8 | 6.3 | 23.5 | 6.3 | 0.0 | 14.6 | 0.0 |
|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 8.2 | 6.3 | 17.6 | 6.3 | 0.0 | 7.3 | 10.0 |
|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19] | 4.9 | 6.3 | 11.8 | 0.0 | 0.0 | 4.9 | 5.0 |
|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3.3 | 0.0 | 5.9 | 6.3 | 0.0 | 4.9 | 0.0 |

18) 총 사례 수 61이며, 연령대별/성별 사례수가 각각 25미만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 있음
19) 2018년 조사에서 신규로 생성된 보기 항목임

## 2. 사이버폭력 특성

### 가. 가해 행태

#### (1) 가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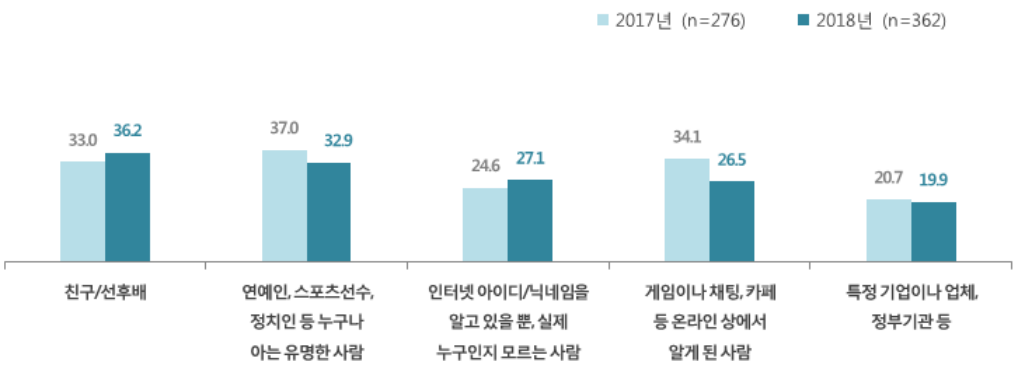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한 대상을 확인한 결과, '친구 또는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인 경우가 36.2%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32.9%) >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 아는 모르는 사람'(27.1%) > '게임/채팅/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26.5%) > '특정 기업/업체/기관 등'(19.9%)의 순으로 집계됨.

○ 전년 대비 '주변 지인' 및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

○ 여성 및 50대 집단은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Ⅳ-9] 가해 대상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 Ⅳ-9] 가해 대상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362) | (114) | (83) | (86) | (79) | (238) | (124) |
| 친구/선후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 36.2 | 39.5 | 32.5 | 26.7 | 45.6 | 34.0 | 40.3 |
|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 32.9 | 22.8 | 43.4 | 33.7 | 35.4 | 32.4 | 33.9 |
|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27.1 | 33.3 | 27.7 | 30.2 | 13.9 | 27.7 | 25.8 |
|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 | 26.5 | 25.4 | 31.3 | 29.1 | 20.3 | 26.1 | 27.4 |
| 특정 기업이나 업체, 정부기관 등 | 19.9 | 21.1 | 19.3 | 20.9 | 17.7 | 23.1 | 1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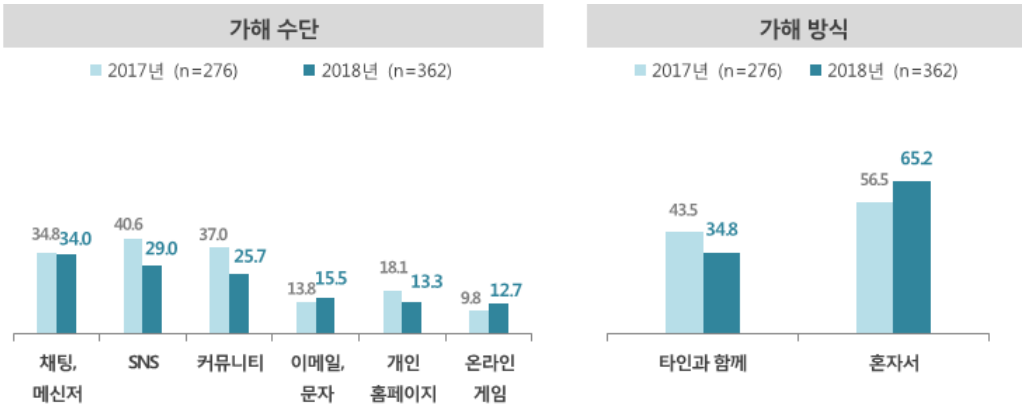
(2) 가해 수단 및 방식

○ 가해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은 '채팅, 메신저'(34.0%)임. 그 외 'SNS'(29.0%)와 '커뮤니티'(25.7%) 상에서도 가해 행동을 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20대는 타 연령대 집단 대비 '게임'에서의 가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 가해 방식은 '혼자서' 했다는 응답이 65.2%로 '타인과 함께' 했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Ⅳ-10]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표 Ⅳ-10] 가해 수단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362) | (114) | (83) | (86) | (79) | (238) | (124) |
|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쳇 등) | 34.0 | 30.7 | 36.1 | 27.9 | 43.0 | 32.4 | 37.1 |
|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 29.0 | 23.7 | 30.1 | 25.6 | 39.2 | 31.9 | 23.4 |
|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25.7 | 17.5 | 28.9 | 40.7 | 17.7 | 24.8 | 27.4 |
| 이메일, 문자메시지 | 15.5 | 12.3 | 14.5 | 18.6 | 17.7 | 14.7 | 16.9 |
|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13.3 | 9.6 | 20.5 | 10.5 | 13.9 | 10.5 | 18.5 |
| 온라인 게임 | 12.7 | 22.8 | 8.4 | 12.8 | 2.5 | 15.1 | 8.1 |

[표 Ⅳ-11] 가해 방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362) | (114) | (83) | (86) | (79) | (238) | (124) |
| 타인과 함께 | 34.8 | 23.7 | 48.2 | 33.7 | 38.0 | 30.3 | 43.5 |
| 혼자서 | 65.2 | 76.3 | 51.8 | 66.3 | 62.0 | 69.7 | 5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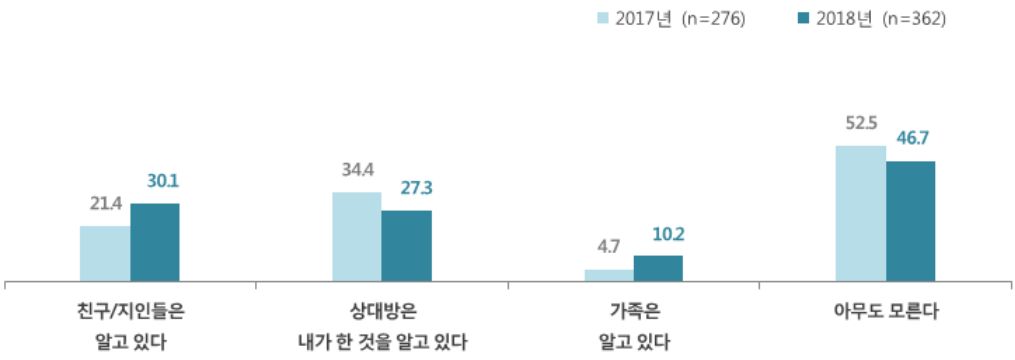
(3) 가해 사실 주변인지

○ 응답자 본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에 대하여 주변에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음. 특히 '상대방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7.3%에 그쳐,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10명 중 2~3명 이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나 지인' 또는 '가족'에게 본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알리는 경우가 많음.

[그림 Ⅳ-11] 가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 Ⅳ-12] 가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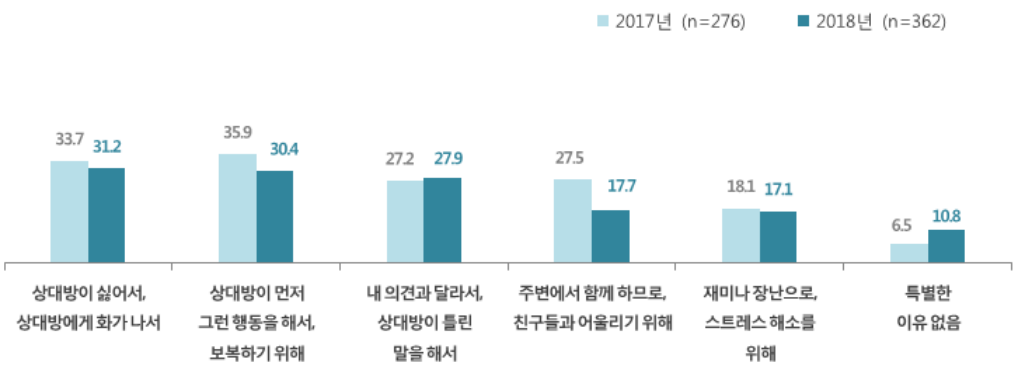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362) | (114) | (83) | (86) | (79) | (238) | (124) |
|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 | 30.1 | 29.8 | 31.3 | 22.1 | 38.0 | 28.6 | 33.1 |
| 상대방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 27.3 | 29.8 | 21.7 | 25.6 | 31.6 | 26.5 | 29.0 |
| 가족이 알고 있다 | 10.2 | 9.6 | 19.3 | 4.7 | 7.6 | 8.0 | 14.5 |
| 아무도 모른다 | 46.7 | 49.1 | 44.6 | 51.2 | 40.5 | 49.6 | 41.1 |

(4) 가해 이유

- 가해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31.2%)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30.4%),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27.9%)의 응답이 가장 많음.
- 전년도 결과와 비교 시 '상대방이 먼저 해서, 보복을 위해'의 응답이 1위에서 2위로 순위가 변동되었으며,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해 행동을 했다는 응답은 18.1%에서 17.1%로 하락함.
- 여성은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가해 행동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남성 집단은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가 이유인 경우가 가장 많음.

[그림 Ⅳ-12] 가해 이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 Ⅳ-13] 가해 이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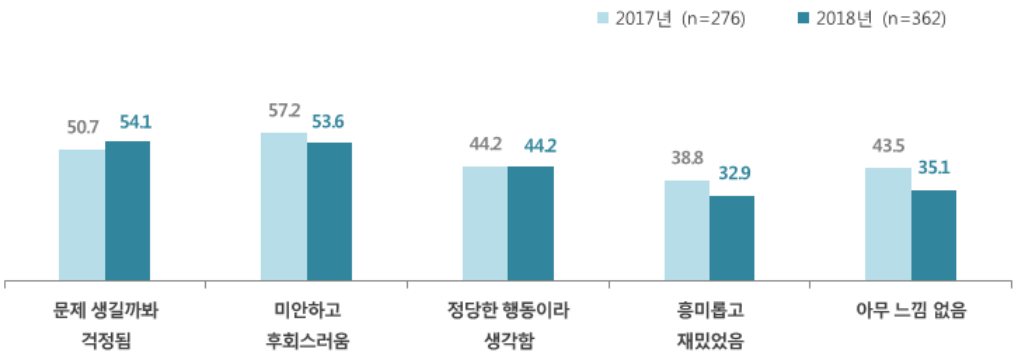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362) | (114) | (83) | (86) | (79) | (238) | (124) |
|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 31.2 | 29.8 | 33.7 | 30.2 | 31.6 | 33.2 | 27.4 |
|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 30.4 | 32.5 | 30.1 | 31.4 | 26.6 | 29.8 | 31.5 |
|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 27.9 | 23.7 | 24.1 | 36.0 | 29.1 | 25.2 | 33.1 |
|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 17.7 | 9.6 | 21.7 | 18.6 | 24.1 | 18.1 | 16.9 |
|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17.1 | 15.8 | 13.3 | 17.4 | 22.8 | 18.5 | 14.5 |
| 특별한 이유 없음 | 10.8 | 15.8 | 12.0 | 8.1 | 5.1 | 11.8 | 8.9 |

(5) 가해 후 심리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 경험자는 가해 후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걱정'(54.1%)과 '미안함/후회스러움'(53.6%)임. 반면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 '흥미롭고 재미있음', '아무 느낌 없음'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30~40%로 집계됨.
- 전년 대비 전반적인 응답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흥미롭고 재미있음' 및 '아무 느낌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임.
-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흥미롭고 재미있음' 및 '아무 느낌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음.

[그림 Ⅳ-13]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 Ⅳ-14]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362) | (114) | (83) | (86) | (79) | (238) | (124) |
|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음 | 54.1 | 55.3 | 51.8 | 60.5 | 48.1 | 53.8 | 54.8 |
|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음 | 53.6 | 49.1 | 61.4 | 52.3 | 53.2 | 55.0 | 50.8 |
|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함 | 44.2 | 50.9 | 43.4 | 44.2 | 35.4 | 45.4 | 41.9 |
| 흥미롭고 재밌었음 | 32.9 | 32.5 | 36.1 | 32.6 | 30.4 | 34.0 | 30.6 |
| 아무 느낌 없음 | 35.1 | 36.0 | 43.4 | 32.6 | 27.8 | 37.0 | 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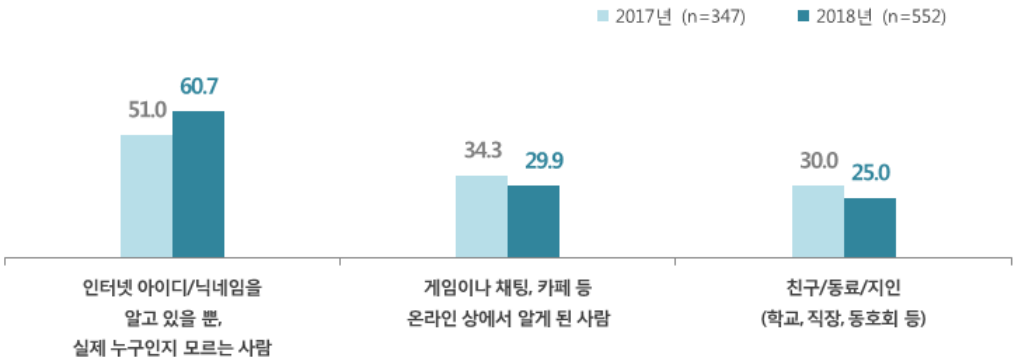
## 나. 피해 행태

### (1) 가해 주체

- 20~50대 성인 중 최근 1년 이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해 주체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 알고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60.7%로 가장 많음.
- 2017년 결과 대비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 알고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응답률은 증가하고, '게임/채팅/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 및 '직장/동료/지인'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감소함.
-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20~30대보다 40~50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에서 높게 집계됨. 반면, '친구/동료/지인'을 응답한 비율은 20~30대가 타 연령대 대비 높음.

[그림 Ⅳ-14] 가해 주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 Ⅳ-15] 가해 주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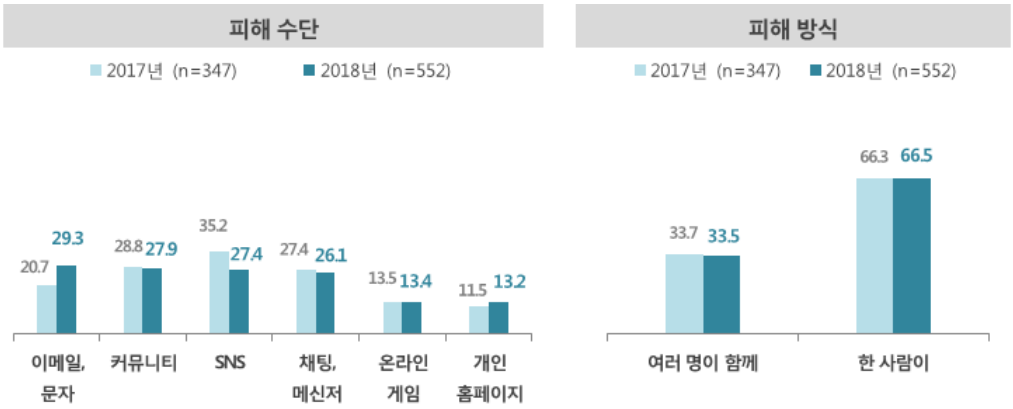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552) | (161) | (123) | (132) | (136) | (304) | (248) |
|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60.7 | 58.4 | 58.5 | 62.1 | 64.0 | 57.2 | 64.9 |
|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 | 29.9 | 29.2 | 28.5 | 35.6 | 26.5 | 29.9 | 29.8 |
| 친구/동료/지인(학교, 직장, 동호회 등) | 25.0 | 28.0 | 29.3 | 19.7 | 22.8 | 27.3 | 22.2 |

(2) 피해 수단 및 방식

- 온라인 공간 중 '이메일/문자'(29.3%) > '커뮤니티'(27.9%) > 'SNS'(27.4%) > '채팅/메신저'(26.1%) > '온라인 게임'(13.4%) > '개인 홈페이지'(13.2%)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음.
- 전년 대비 'SNS'를 통한 피해 경험률은 줄어들고 '이메일/문자'를 통한 경험률은 증가함.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이메일/문자' 응답률이 45.6%로 전 연령대 대비 약 10%p 이상 높게 나타는 것이 특징적임.
- 피해 방식으로는 '여러 명'보다 '한 사람'(66.5%)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더 많음.

[그림 Ⅳ-15]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표 Ⅳ-16] 피해 수단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552) | (161) | (123) | (132) | (136) | (304) | (248) |
| 이메일, 문자메시지 | 29.3 | 22.4 | 22.8 | 27.3 | 45.6 | 24.7 | 35.1 |
|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27.9 | 25.5 | 33.3 | 35.6 | 18.4 | 23.4 | 33.5 |
|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 27.4 | 27.3 | 27.6 | 26.5 | 27.9 | 28.9 | 25.4 |
|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쳇 등) | 26.1 | 28.0 | 24.4 | 25.0 | 26.5 | 28.9 | 22.6 |
| 온라인 게임 | 13.4 | 23.6 | 10.6 | 11.4 | 5.9 | 18.4 | 7.3 |
|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등) | 13.2 | 9.3 | 19.5 | 12.1 | 13.2 | 12.2 | 14.5 |

[표 Ⅳ-17] 피해 방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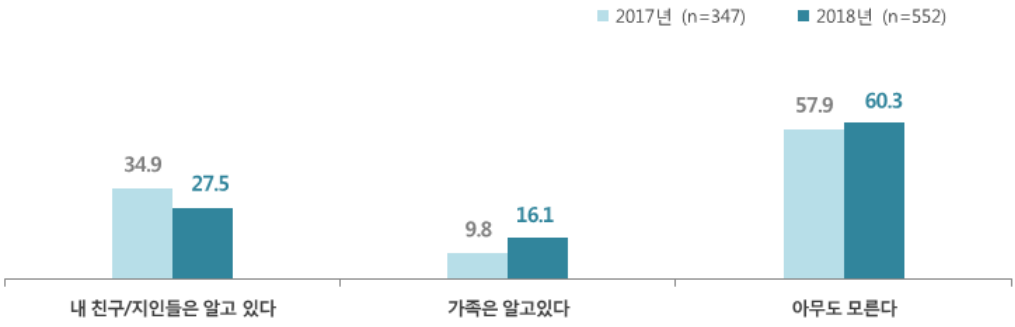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552) | (161) | (123) | (132) | (136) | (304) | (248) |
| 여러 명이 함께 | 33.5 | 28.0 | 40.7 | 31.1 | 36.0 | 37.2 | 29.0 |
| 한 사람이 | 66.5 | 72.0 | 59.3 | 68.9 | 64.0 | 62.8 | 71.0 |

(3) 피해 사실 주변인지

- 피해 사실에 대해 주변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친구/지인' 또는 '가족'이 알고 있는 경우는 약 40%임.
- 전년 대비 '친구/지인'의 인지율은 감소한 반면, '가족'의 피해 사실 인지율은 증가함. '아무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57.9%, 2018년 60.3%로 유사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20대가 '아무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가장 높음.

[그림 Ⅳ-16] 피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 Ⅳ-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552) | (161) | (123) | (132) | (136) | (304) | (248) |
| 내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 | 27.5 | 26.7 | 29.3 | 30.3 | 24.3 | 26.6 | 28.6 |
| 가족은 알고 있다 | 16.1 | 13.7 | 20.3 | 13.6 | 17.6 | 13.8 | 19.0 |
| 아무도 모른다 | 60.3 | 65.2 | 53.7 | 59.1 | 61.8 | 63.8 | 56.0 |

(4) 피해 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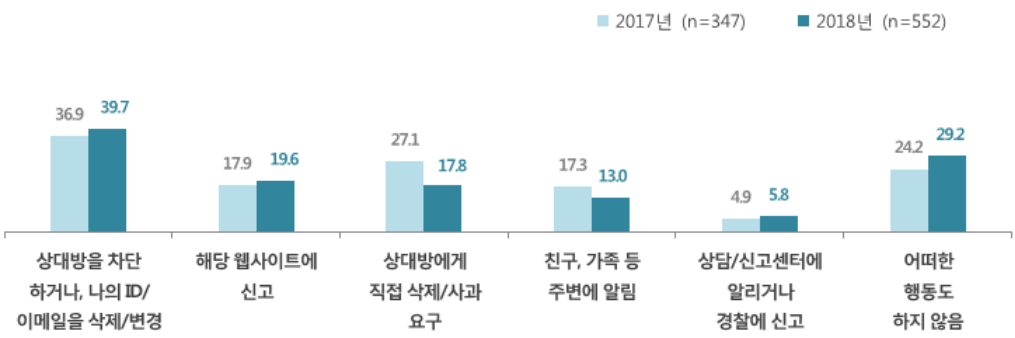
○ 피해 후 대응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이메일을 삭제/변경'하는 경우가 39.7%로 가장 많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0명 중 3명꼴임.

○ 전년 대비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사과를 요구'하는 직접 대면의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감소한 반면,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거나 '상담/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동시에 비대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소폭 증가함.

○ 50대는 타 연령대 대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이메일을 삭제/변경'하는 소극적인 방식의 대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

[그림 Ⅳ-17] 피해 후 대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 Ⅳ-19] 피해 후 대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552) | (161) | (123) | (132) | (136) | (304) | (248) |
|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 39.7 | 32.3 | 39.8 | 40.9 | 47.1 | 35.2 | 45.2 |
|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 19.6 | 24.2 | 19.5 | 18.2 | 15.4 | 19.4 | 19.8 |
|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 17.8 | 16.8 | 18.7 | 19.7 | 16.2 | 18.8 | 16.5 |
| 친구, 가족, 교수님, 동료 등 주변에 알렸다 | 13.0 | 11.2 | 17.1 | 11.4 | 13.2 | 12.5 | 13.7 |
| 상담 및 신고센터(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5.8 | 7.5 | 8.1 | 5.3 | 2.2 | 6.6 | 4.8 |
|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29.2 | 31.7 | 23.6 | 30.3 | 30.1 | 31.6 | 2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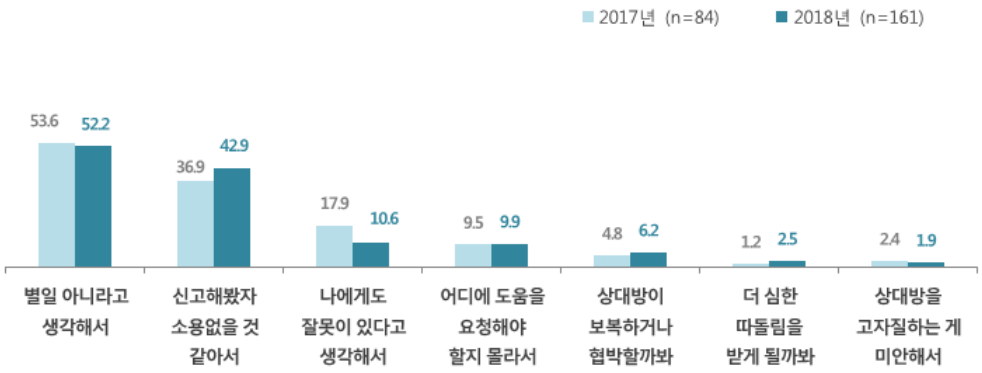
(5) 피해 후 미대응 이유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42.9%로 두 번째를 차지함.

○ 40~50대의 경우 20~30대에 비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평소 사이버폭력 관련 신고 또는 상담기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그림 Ⅳ-18] 피해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표 Ⅳ-20] 피해 후 미대응 이유

(사이버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61) | (51) | (29) | (40) | (41) | (96) | (65) |
|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52.2 | 54.9 | 51.7 | 42.5 | 58.5 | 54.2 | 49.2 |
| 신고해봤자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 42.9 | 41.2 | 48.3 | 47.5 | 36.6 | 37.5 | 50.8 |
|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 10.6 | 13.7 | 13.8 | 12.5 | 2.4 | 13.5 | 6.2 |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 9.9 | 7.8 | 3.4 | 10.0 | 17.1 | 7.3 | 13.8 |
|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 6.2 | 7.8 | 10.3 | 2.5 | 4.9 | 7.3 | 4.6 |
| 주위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 2.5 | 3.9 | 0.0 | 2.5 | 2.4 | 0.0 | 6.2 |
|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 1.9 | 0.0 | 3.4 | 2.5 | 2.4 | 2.1 | 1.5 |

(6) 피해 후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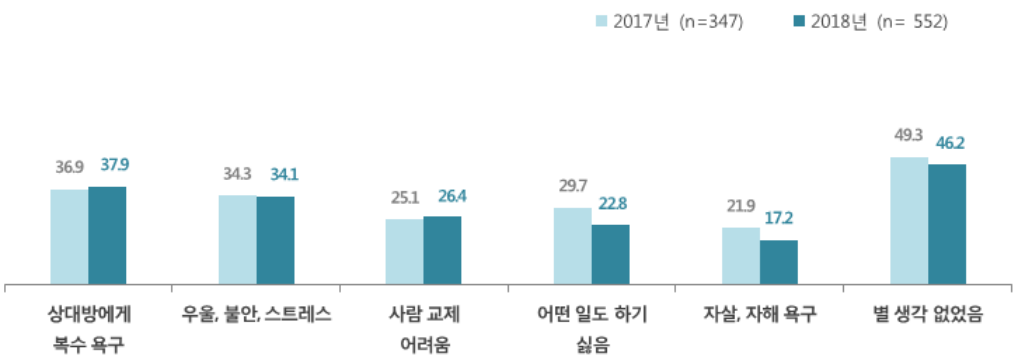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10명 중 3명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상대방에 대한 '복수 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심하게는 '자살, 자해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17.2%로 낮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어떤 일도 하기 싫음', '자살, 자해 욕구를 느낌'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감소함.

○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후 '복수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약 10%p 높음.

[그림 Ⅳ-19]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 Ⅳ-21]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552) | (161) | (123) | (132) | (136) | (304) | (248) |
|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 | 37.9 | 39.1 | 39.0 | 43.2 | 30.1 | 42.1 | 32.7 |
| 우울, 불안, 스트레스 | 34.1 | 28.0 | 35.0 | 43.9 | 30.9 | 32.2 | 36.3 |
| 사람 교제 어려움 | 26.4 | 27.3 | 30.1 | 25.8 | 22.8 | 24.7 | 28.6 |
| 어떤 일도 하기 싫음 | 22.8 | 24.2 | 30.1 | 19.7 | 17.6 | 22.7 | 23.0 |
| 자살, 자해 욕구 | 17.2 | 18.6 | 23.6 | 16.7 | 10.3 | 20.7 | 12.9 |
| 별 생각 들지 않음 | 46.2 | 47.2 | 39.0 | 46.2 | 51.5 | 45.1 | 47.6 |

## 3. 사이버폭력 원인

###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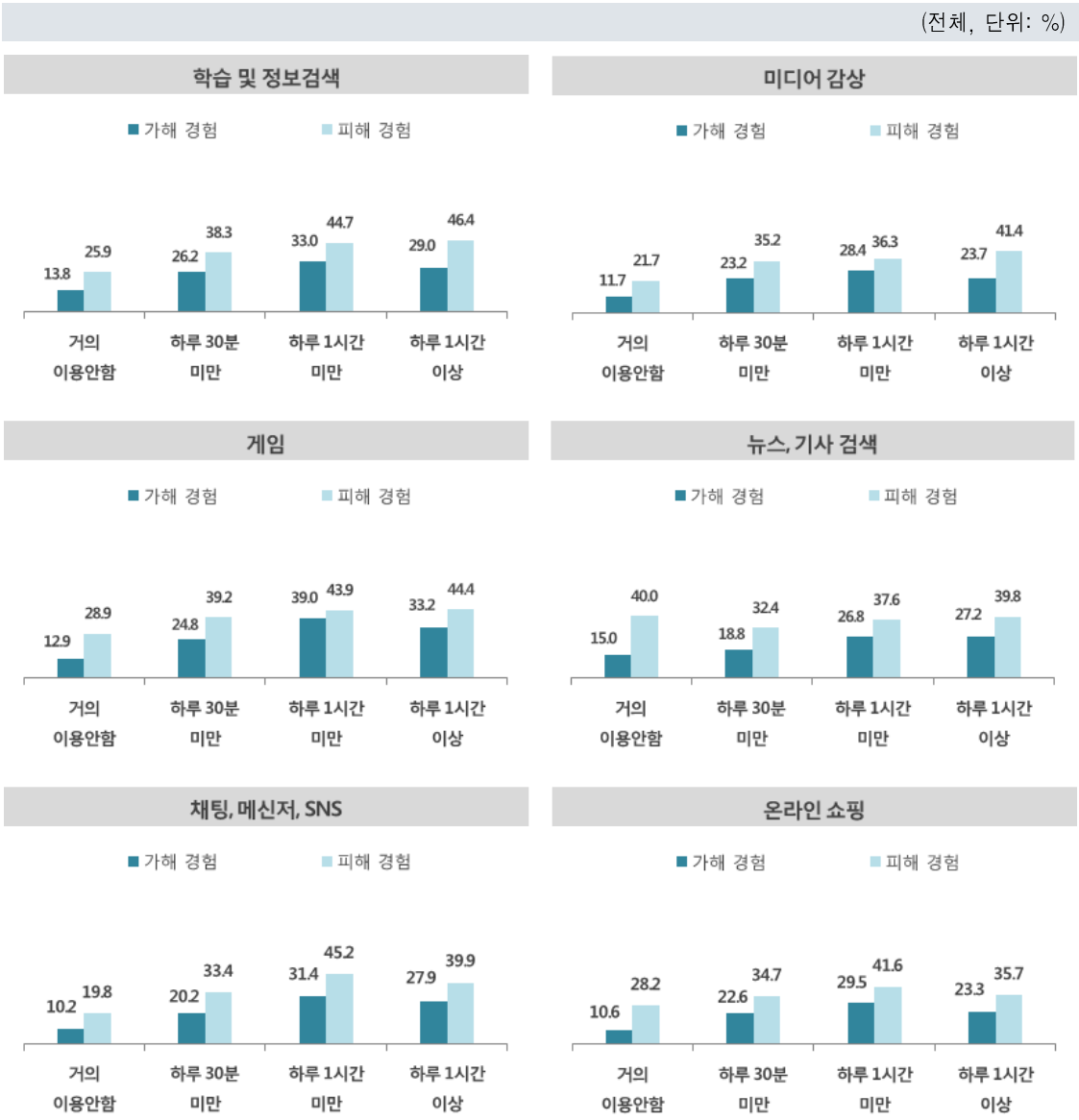
#### (1)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가해 또는 피해) 비율이 높은데, 이는 이용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이버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직·간접적으로 타인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되며, 이는 사이버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학습 및 정보검색', '게임'을 목적으로 '하루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를 경험한 경우가 각각 46.4%, 44.4%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20]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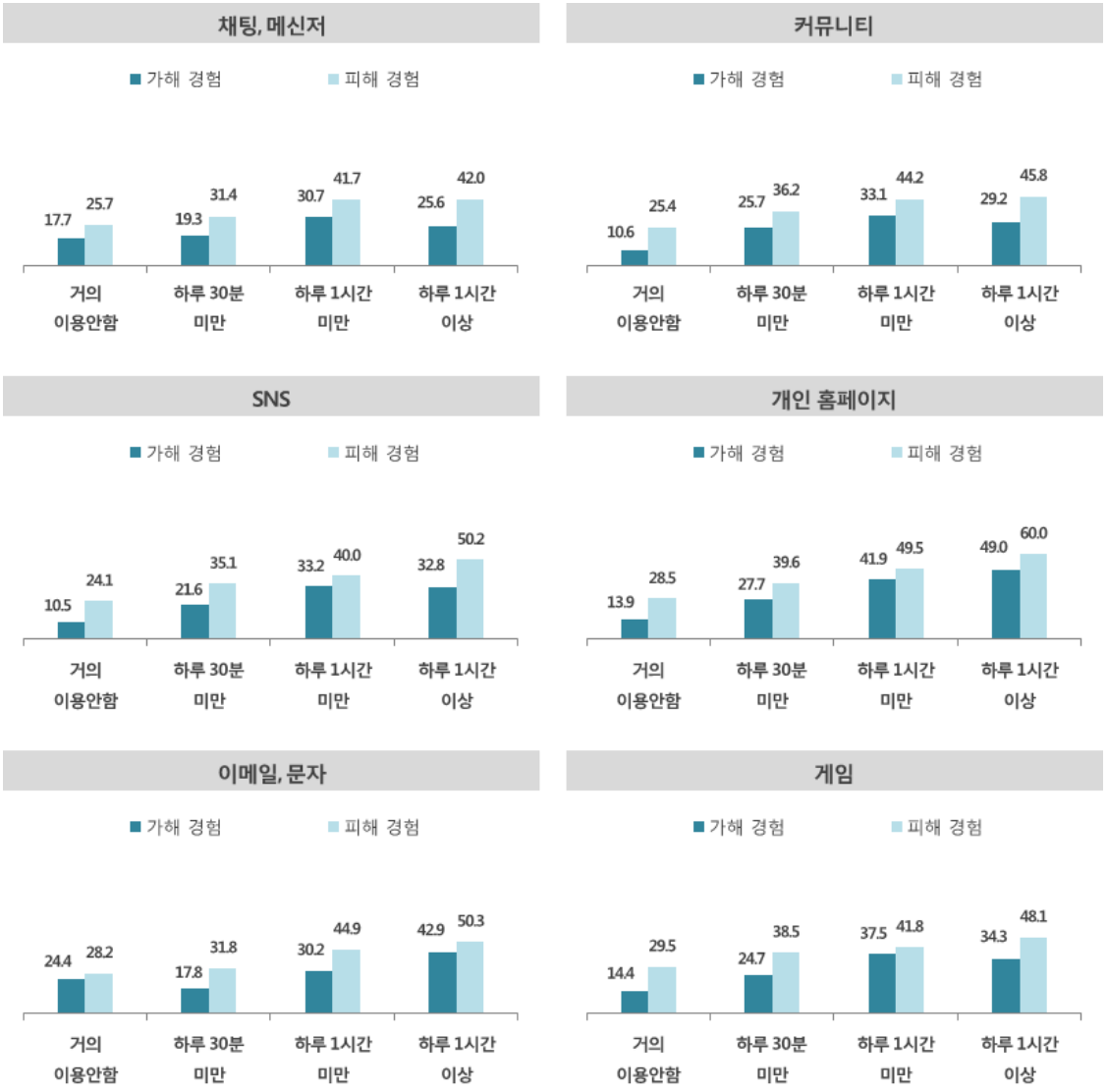
(2)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역시 이용목적별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높은 경향 있음.

○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등)'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를 '하루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집단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2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남.

[그림 Ⅳ-21]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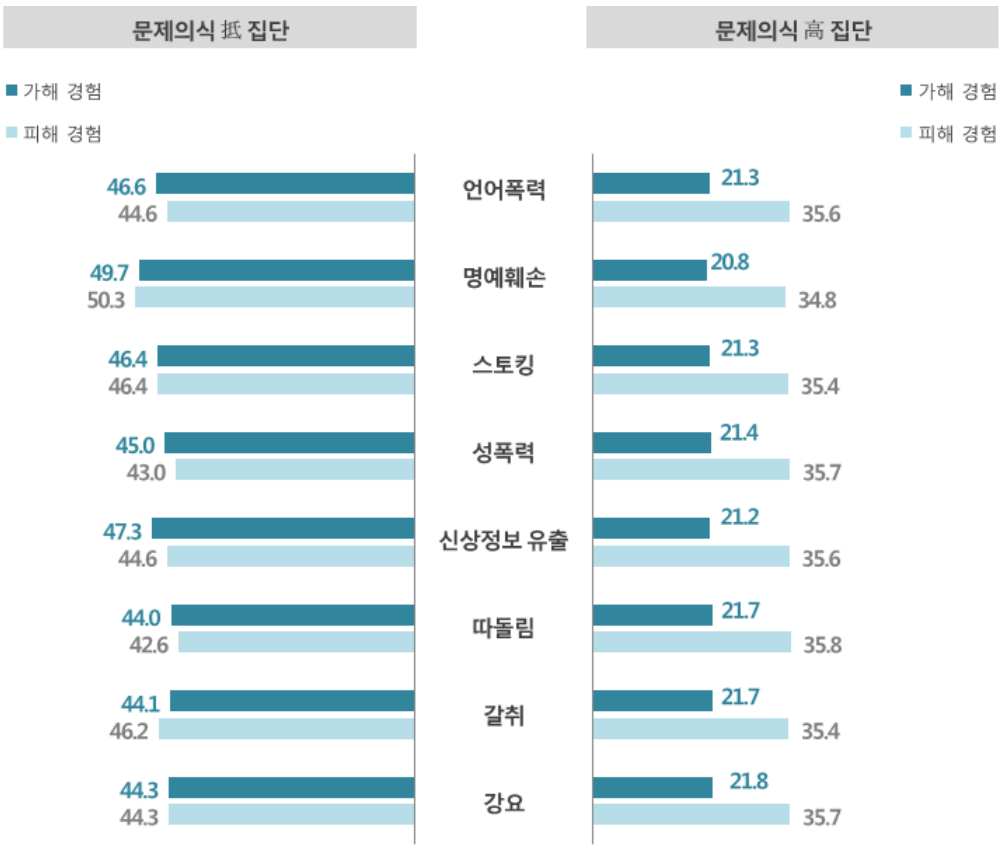
(3)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은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침.

○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높은 집단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20~21%대인 반면, 문제의식이 낮은 집단은 2배에 달하는 44~49%대의 가해 경험률을 보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이 높은 집단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36%를 넘지 않는데 비해 문제의식이 낮은 집단은 40%대 이상, 많게는 50%의 피해 경험률을 보임.

[그림 Ⅳ-22]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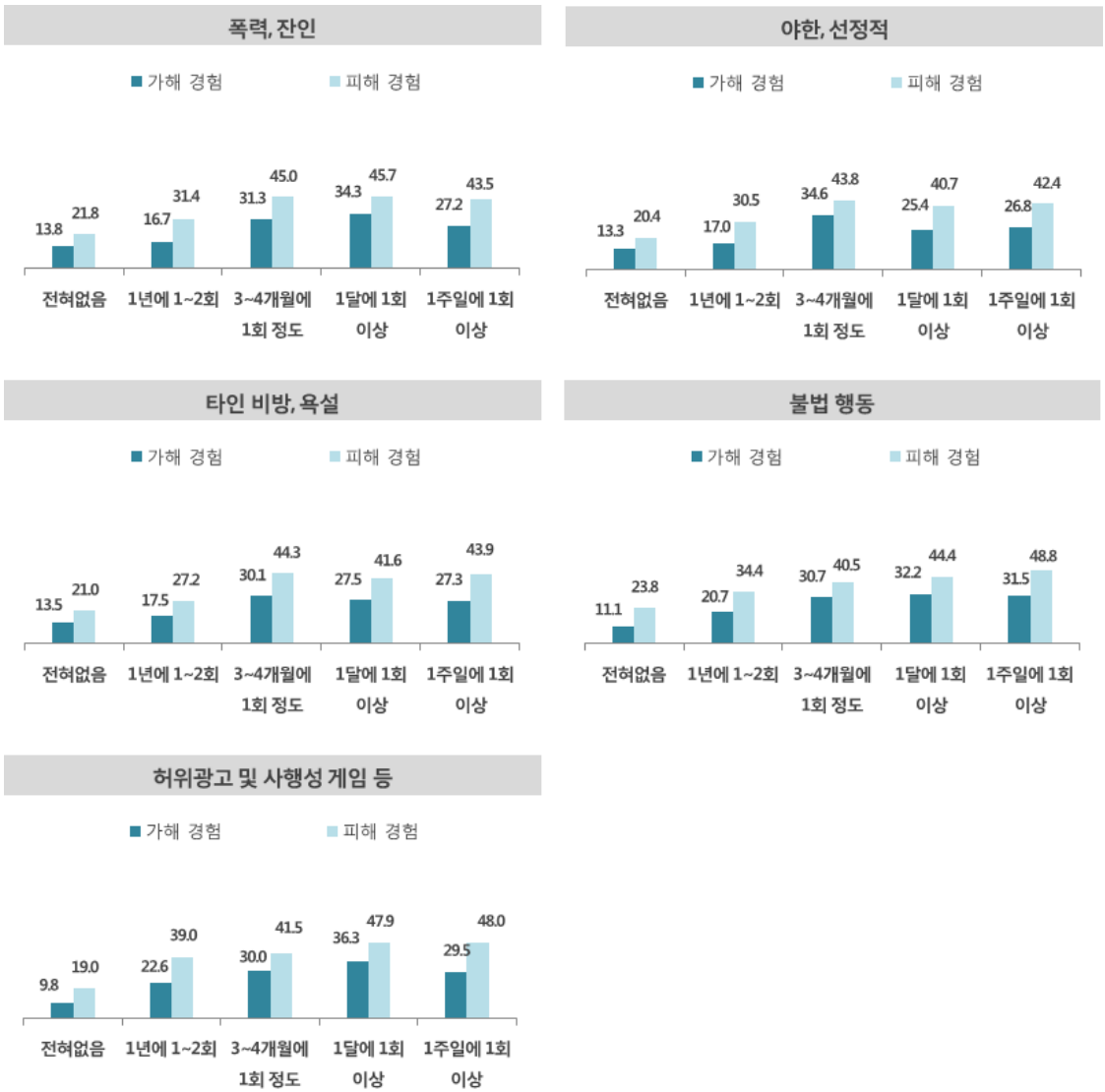
(4)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 유해 콘텐츠 접촉빈도 역시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해(불법) 행동'이나 '허위광고 및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콘텐츠를 '1주일에 1회 이상' 접촉한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48%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IV-23]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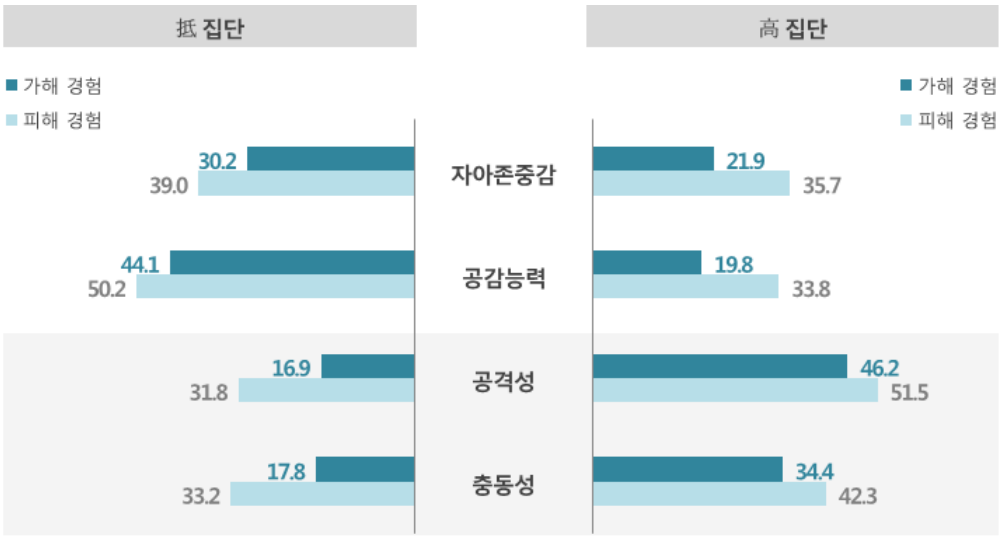
(1) 개인 심리요인

○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됨. 특히, 피해 경험률보다는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가해 경험률(21.9%)은 낮은 집단보다 경험률이 약 10%p 낮으며, '공감능력'이 높은 집단의 가해 경험률(19.8%)은 낮은 집단보다 경험률이 20%p 이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 역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특히, 본인의 '공격성'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사이버폭력 가해를 경험한 경우가 46.2%,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5%에 달함.

[그림 Ⅳ-24]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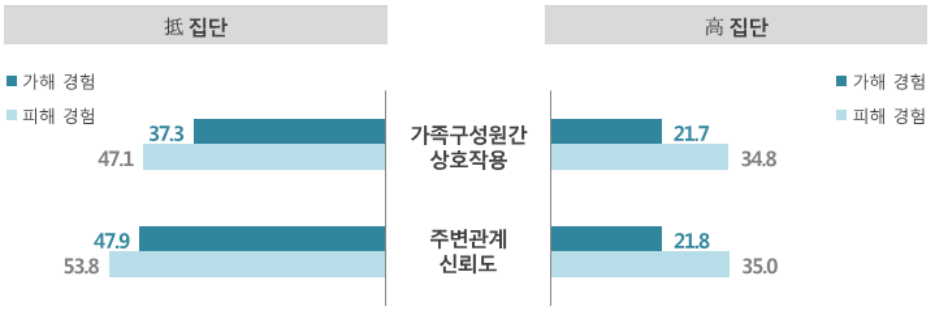


(2) 대인관계 요인

- 평소 대인관계 역시 사이버폭력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집단의 경우 가해 경험이 21.7%인 것에 비해 상호작용이 저조한 집단은 그보다 15.6%p 높은 37.3%의 가해 경험률을 보임. 피해 경험률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집단의 피해 경험률이 더 낮음.
- '주변관계 신뢰도'에 따른 경험률도 유사한 양상임. 주변인들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가해 경험률이 47.9%, 피해 경험률이 53.8%로 매우 높게 집계된 반면, 신뢰도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가해 경험률 21.8%, 피해 경험률 35.0%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Ⅳ-25]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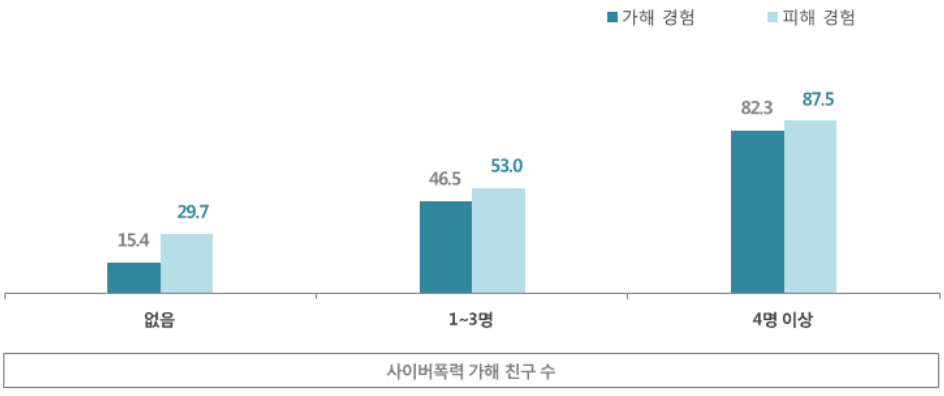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경험한 친구가 주변에 많은 응답자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이 높음.
- 주변에 사이버폭력 가해 친구가 '1-3명'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사이버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이 각각 53.0%, 46.5%인데 비해,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87.5%, 가해 경험이 82.3%로 매우 높음.

[그림 Ⅳ-26]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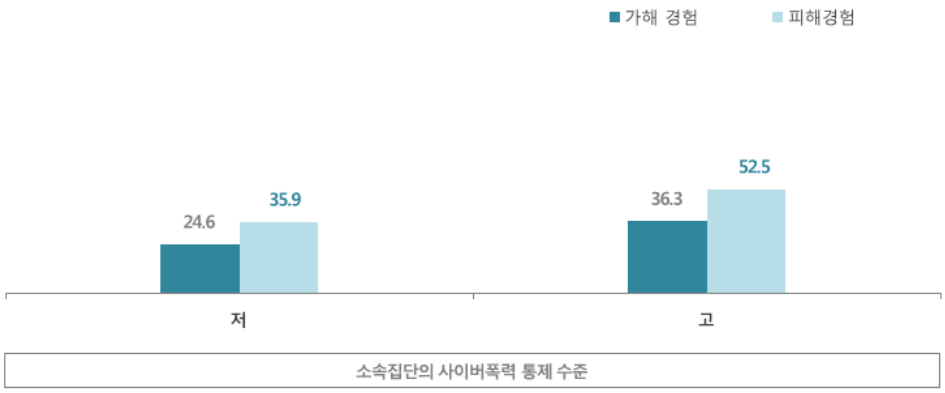


(4)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

○ 소속집단의 사이버폭력 통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언급이나 예방 홍보물 노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폭력 행위 역시 '폭력'으로 간주함에 따른 결과로 보임.

[그림 Ⅳ-27]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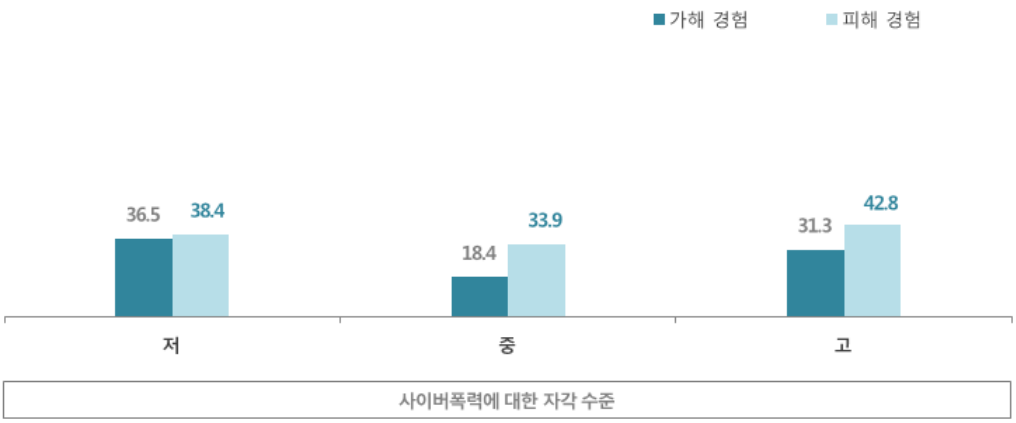



(5)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

○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상담 및 신고처, 처벌 인지 등)이 높은 집단의 경우, 타 집단 대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음.

[그림 Ⅳ-28]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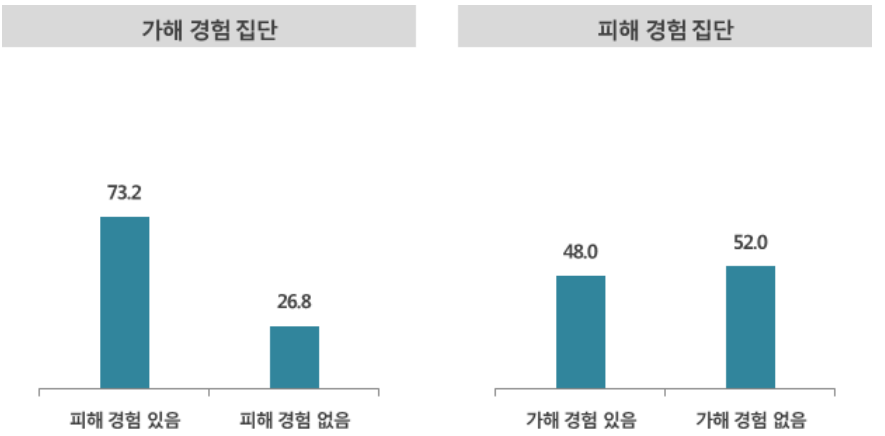


다.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20~50대 성인 중 73.2%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있으며, 피해 경험자의 48.0%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29]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전체, 단위: %)



## 4. 온라인 정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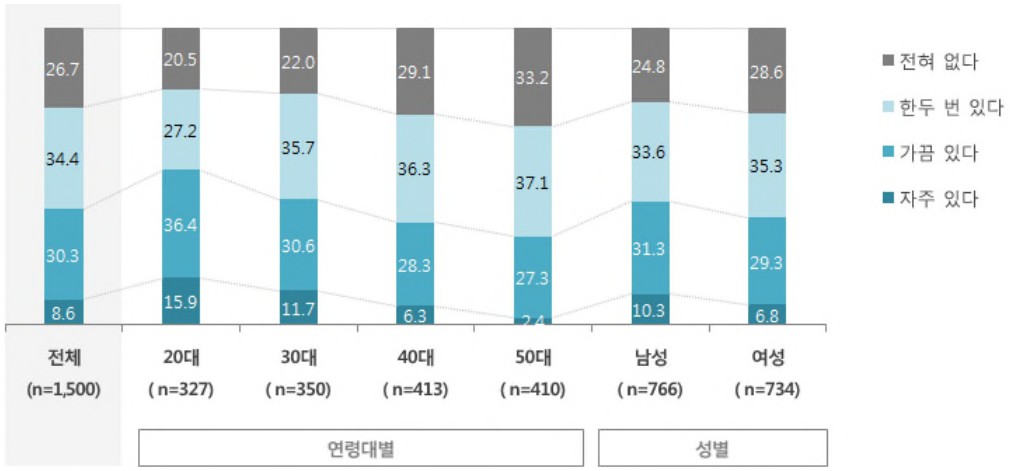
### 가. 정보 판별 태도

#### (1) 사실 확인 경험

- 조사에 응한 20~50대 성인 중 73.3%가 최근 6개월 이내 온라인상의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본 적 있다'고 응답함.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26.7%는 '전혀 확인해본 적 없다'고 응답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정보 판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20대와 30대는 약 78%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본 적 있는 반면, 40대는 70.9%, 50대는 66.8%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확인 비율을 보임.
- 사실인지 아닌지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연령대 중 20대가 가장 높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Ⅳ-30]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표 Ⅳ-22]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전혀 없다 | | 26.7 | 20.5 | 22.0 | 29.1 | 33.2 | 24.8 | 28.6 |
| 한두 번 있다 | | 34.4 | 27.2 | 35.7 | 36.3 | 37.1 | 33.6 | 35.3 |
| 가끔 있다 | | 30.3 | 36.4 | 30.6 | 28.3 | 27.3 | 31.3 | 29.3 |
| 자주 있다 | | 8.6 | 15.9 | 11.7 | 6.3 | 2.4 | 10.3 | 6.8 |
| 종합 결과 | 경험 없음 | 26.7 | 20.5 | 22.0 | 29.1 | 33.2 | 24.8 | 28.6 |
| | 경험 있음 | 73.3 | 79.5 | 78.0 | 70.9 | 66.8 | 75.2 | 7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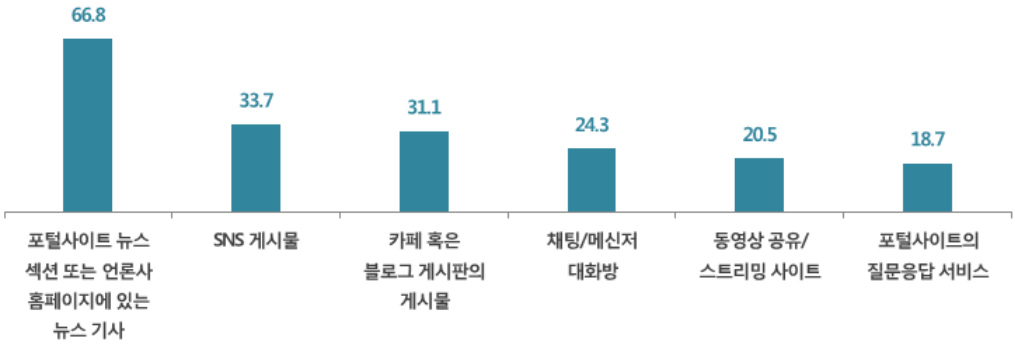
(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정보의 종류는 '포털사이트 뉴스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SNS 게시물'(33.7%)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31.1%) > '채팅/메신저 대화방'(24.3%)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20.5%)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18.7%)의 순임.

○ 40~50대는 '포털사이트/언론사 뉴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타 연령대 대비 더 많으며, 20~30대는 'SNS 게시물'이나 '카페/블로그의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50대 대비 높음.

[그림 Ⅳ-3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 Ⅳ-23]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100) | (260) | (273) | (293) | (274) | (576) | (524)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66.8 | 61.5 | 64.5 | 70.0 | 70.8 | 65.8 | 67.9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33.7 | 42.7 | 38.5 | 31.4 | 23.0 | 34.7 | 32.6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31.1 | 34.2 | 36.3 | 31.4 | 22.6 | 29.7 | 32.6 |
|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24.3 | 27.3 | 23.4 | 23.9 | 22.6 | 25.2 | 23.3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20.5 | 20.4 | 16.1 | 23.5 | 21.9 | 23.4 | 17.4 |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18.7 | 15.4 | 16.1 | 22.5 | 20.4 | 18.4 | 1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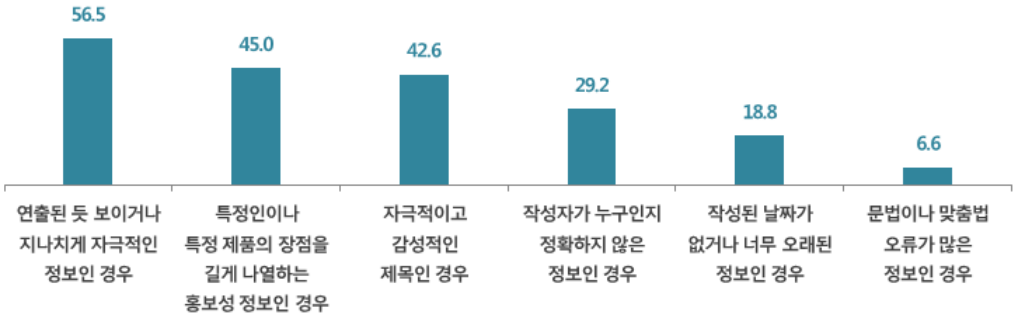
(3) 사실 확인 이유

○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이유로는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56.5%)로 보였기 때문임. 그 외 '특정인/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45.0%)이거나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42.6%)인 경우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조사됨.

○ 성별 또는 연령대별로 응답 결과에 큰 차이 없음.

[그림 Ⅳ-32]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 Ⅳ-24]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100) | (260) | (273) | (293) | (274) | (576) | (524) |
|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56.5 | 60.0 | 56.0 | 57.0 | 53.3 | 57.5 | 55.5 |
|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45.0 | 41.9 | 44.0 | 48.8 | 44.9 | 44.3 | 45.8 |
|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42.6 | 44.6 | 46.9 | 42.7 | 36.5 | 40.6 | 44.8 |
|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29.2 | 27.3 | 25.3 | 32.8 | 31.0 | 31.9 | 26.1 |
|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18.8 | 20.4 | 19.4 | 20.8 | 14.6 | 18.4 | 19.3 |
|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6.6 | 5.4 | 6.6 | 8.2 | 6.2 | 6.9 | 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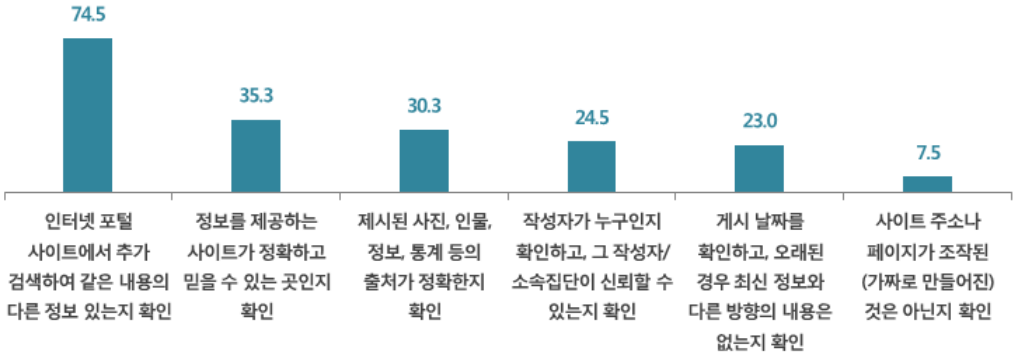
(4) 사실 확인 방법

○ 사실 확인을 위해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74.5%)함. 그 외 '정보제공 사이트가 정확한지 확인'(35.3%), '제시된 사진/인물/정보/통계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30.3%)함.

○ 남성보다는 여성이 '포털 사이트 추가 검색' 방법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임.

[그림 Ⅳ-33]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 Ⅳ-25]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100) | (260) | (273) | (293) | (274) | (576) | (524) |
|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74.5 | 74.2 | 72.9 | 75.8 | 75.2 | 70.5 | 79.0 |
|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35.3 | 35.4 | 36.6 | 37.9 | 31.0 | 32.3 | 38.5 |
|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30.3 | 28.8 | 35.9 | 28.7 | 27.7 | 33.2 | 27.1 |
|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24.5 | 25.0 | 24.9 | 26.6 | 21.5 | 26.9 | 21.9 |
|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23.0 | 24.2 | 23.8 | 24.6 | 19.3 | 24.0 | 21.9 |
|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7.5 | 7.3 | 7.0 | 7.2 | 8.8 | 9.4 | 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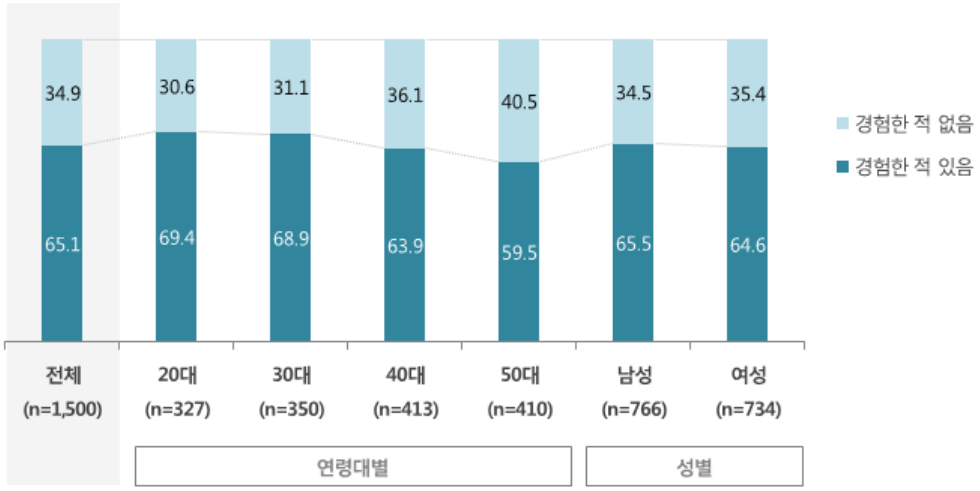
## 나. 허위정보 피해 경험

### (1)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전체의 65.1%로, 10명 중 6명꼴임.
- 40~50대(40대 63.9%, 50대 59.5%) 보다는 20~30대(20대 69.4%, 30대 68.9%)의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Ⅳ-34]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전체, 단위: %)




[표 Ⅳ-26] 잘못된 정보 접촉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경험한 적 있음 | 65.1 | 69.4 | 68.9 | 63.9 | 59.5 | 65.5 | 64.6 |
| 경험한 적 없음 | 34.9 | 30.6 | 31.1 | 36.1 | 40.5 | 34.5 | 3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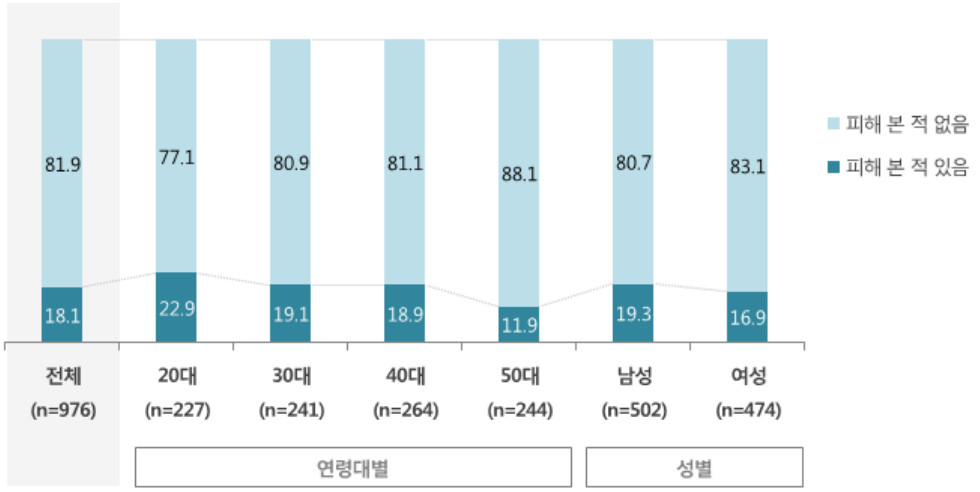
(2)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자 중 18.1%가 실제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적 있다'고 응답함.

○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률은 20대가 22.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50대가 11.9%로 가장 낮음. 여성보다는 남성의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Ⅳ-35]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자, 단위: %)




[표 Ⅳ-27]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잘못된 온라인 정보 접촉 경험자,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976) | (227) | (241) | (264) | (244) | (502) | (474) |
| 피해 본 적 있음 | 18.1 | 22.9 | 19.1 | 18.9 | 11.9 | 19.3 | 16.9 |
| 피해 본 적 없음 | 81.9 | 77.1 | 80.9 | 81.1 | 88.1 | 80.7 | 83.1 |

(3) 잘못된 정보 종류

- 잘못된 온라인 정보에 인한 피해는 주로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45.2%)과 'SNS 게시물'(44.6%)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음. 뒤이어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39.5%), '채팅/메신저 대화방의 글'(35.0%) 등이 있음.
- 여성과 40대는 타 집단에 비해 특히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중 잘못된 정보를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SNS 게시물' 형태의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접함.

[그림 Ⅳ-36] 잘못된 정보 종류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 Ⅳ-28] 잘못된 정보 종류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77) | (52) | (46) | (50) | (29) | (97) | (80)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5.2 | 36.5 | 43.5 | 64.0 | 31.0 | 39.2 | 52.5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44.6 | 63.5 | 34.8 | 40.0 | 34.5 | 46.4 | 42.5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39.5 | 50.0 | 30.4 | 32.0 | 48.3 | 36.1 | 43.8 |
|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5.0 | 30.8 | 37.0 | 40.0 | 31.0 | 39.2 | 30.0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19.8 | 17.3 | 10.9 | 24.0 | 31.0 | 24.7 | 13.8 |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12.4 | 3.8 | 13.0 | 18.0 | 17.2 | 14.4 | 10.0 |

##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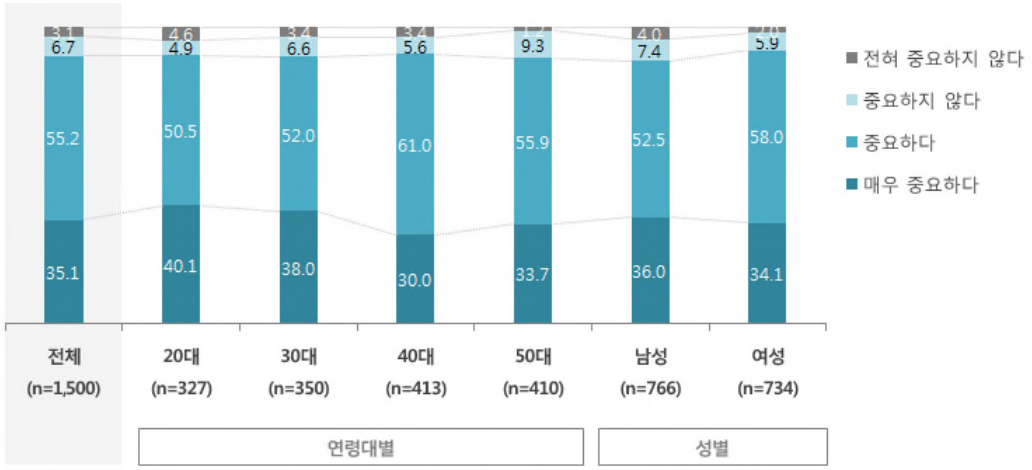
### (1)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온라인상에서 정보 접촉 시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중요하다(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2%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0대에 비해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응답 비율이 소폭 높음.

[그림 Ⅳ-37]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표 Ⅳ-29] 정보 접촉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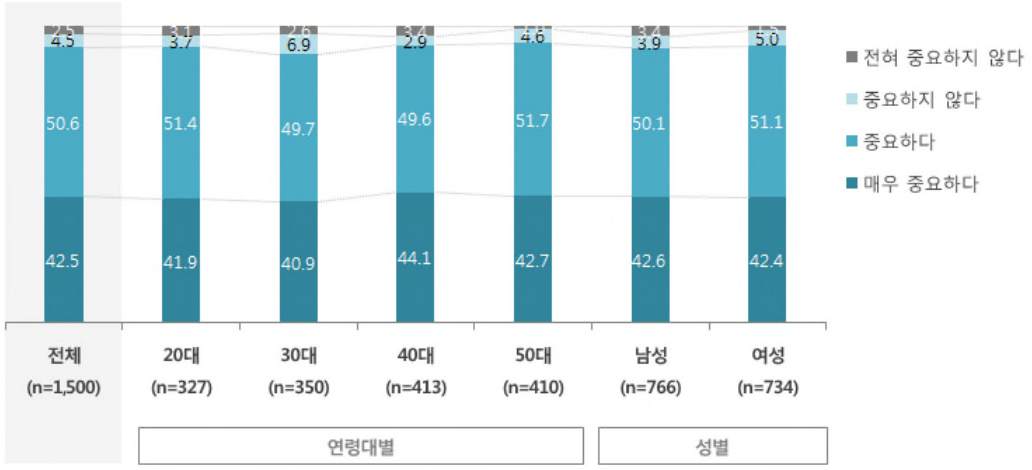
| 구분 |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3.1 | 4.6 | 3.4 | 3.4 | 1.2 | 4.0 | 2.0 |
| ② 중요하지 않다 | | 6.7 | 4.9 | 6.6 | 5.6 | 9.3 | 7.4 | 5.9 |
| ③ 중요하다 | | 55.2 | 50.5 | 52.0 | 61.0 | 55.9 | 52.5 | 58.0 |
| ④ 매우 중요하다 | | 35.1 | 40.1 | 38.0 | 30.0 | 33.7 | 36.0 | 34.1 |
| 종합결과 | ①+② 중요하지 않음 | 9.8 | 9.5 | 10.0 | 9.0 | 10.5 | 11.4 | 7.9 |
| | ③+④ 중요함 | 90.2 | 90.5 | 90.0 | 91.0 | 89.5 | 88.6 | 92.1 |

(2)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 온라인 정보를 접촉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사실 확인 여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3.0%가 '중요하다(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함. 이는 온라인 정보 접촉 과정은 물론, 공유 행위에 있어서도 정보 판별의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Ⅳ-38]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표 Ⅳ-30]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2.5 | 3.1 | 2.6 | 3.4 | 1.0 | 3.4 | 1.5 |
| ② 중요하지 않다 | | 4.5 | 3.7 | 6.9 | 2.9 | 4.6 | 3.9 | 5.0 |
| ③ 중요하다 | | 50.6 | 51.4 | 49.7 | 49.6 | 51.7 | 50.1 | 51.1 |
| ④ 매우 중요하다 | | 42.5 | 41.9 | 40.9 | 44.1 | 42.7 | 42.6 | 42.4 |
| 종합 결과 | ①+② 중요하지 않음 | 7.0 | 6.8 | 9.5 | 6.3 | 5.6 | 7.3 | 6.5 |
| | ③+④ 중요함 | 93.0 | 93.2 | 90.5 | 93.7 | 94.4 | 92.7 | 9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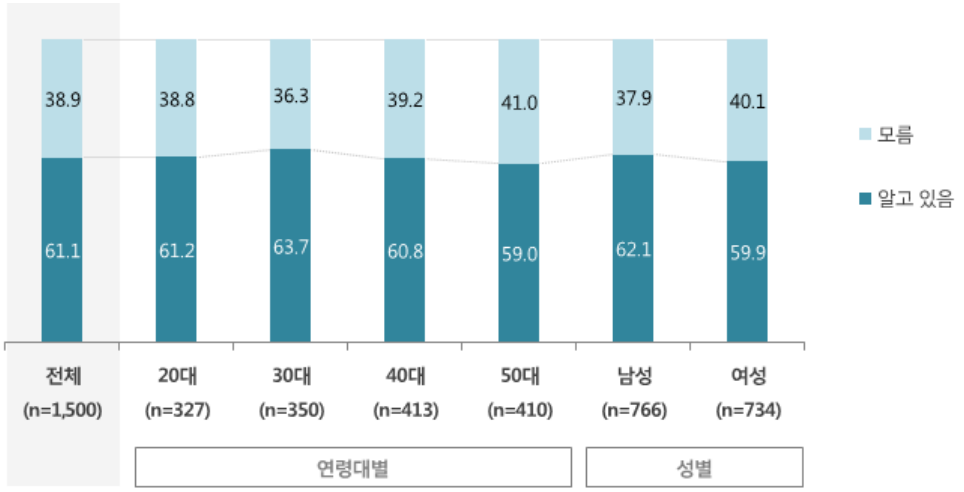
(3)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공유(유포)하는 경우,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로 10명 중 6명꼴임.

○ 앞서 제시된 정보 접촉 및 공유 시 사실 확인 중요성에 대한 인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약 90%)인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임.

[그림 Ⅳ-39]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표 Ⅳ-31]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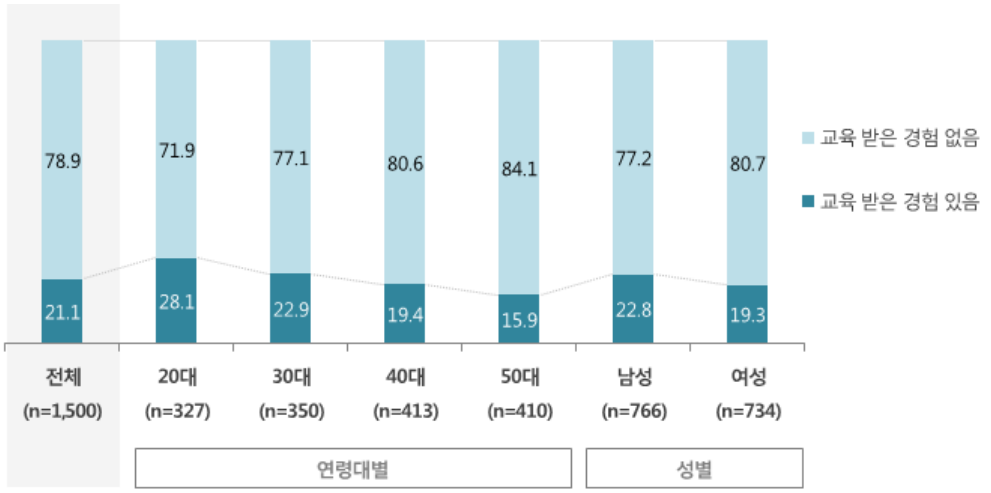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알고 있음 | 61.1 | 61.2 | 63.7 | 60.8 | 59.0 | 62.1 | 59.9 |
| 모름 | 38.9 | 38.8 | 36.3 | 39.2 | 41.0 | 37.9 | 40.1 |

(4)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 조사에 응한 20~50대 성인 중 온라인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1%에 불과함.
- 20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교육 이수 경험률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0대는 22.9%, 40대는 19.4%, 50대는 15.9%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이수 경험률(또는 상기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그림 Ⅳ-40]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전체, 단위: %)




[표 Ⅳ-32]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교육 받은 경험 있음 | 21.1 | 28.1 | 22.9 | 19.4 | 15.9 | 22.8 | 19.3 |
| 교육 받은 경험 없음 | 78.9 | 71.9 | 77.1 | 80.6 | 84.1 | 77.2 | 8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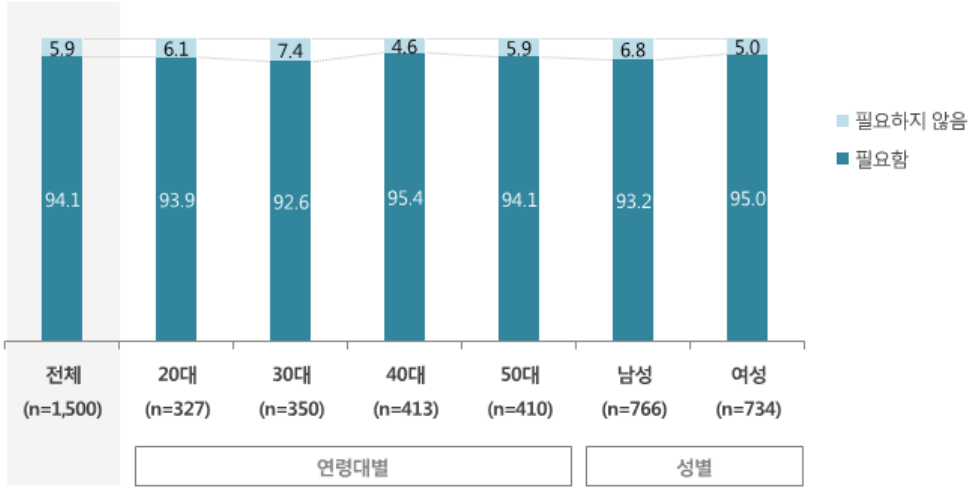
(5)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 성인 응답자의 94.1%는 온라인 정보 판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해당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정보 판별력 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 수준은 90%대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그에 비해 실제 교육 이수 경험률(21.1%)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Ⅳ-41]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전체, 단위: %)




[표 Ⅳ-33] 정보 판별력 교육 이수 필요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연령대별 | | | | 성별 | |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남성 | 여성 |
| (사례수) | | (1,500) | (327) | (350) | (413) | (410) | (766) | (734)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1.3 | 1.5 | 2.0 | 0.5 | 1.2 | 1.7 | 0.8 |
| ② 필요하지 않다 | | 4.7 | 4.6 | 5.4 | 4.1 | 4.6 | 5.1 | 4.2 |
| ③ 필요하다 | | 57.1 | 50.8 | 56.0 | 58.6 | 61.5 | 56.9 | 57.2 |
| ④ 매우 필요하다 | | 37.0 | 43.1 | 36.6 | 36.8 | 32.7 | 36.3 | 37.7 |
| 종합결과 | ①+② 필요하지 않음 | 5.9 | 6.1 | 7.4 | 4.6 | 5.9 | 6.8 | 5.0 |
| | ③+④ 필요함 | 94.1 | 93.9 | 92.6 | 95.4 | 94.1 | 93.2 | 95.0 |

# Ⅴ. 교사 대상 조사결과


1. 지도 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 105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05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08
가. 사이버폭력 인식 108
나. 사이버폭력 대응 111

3. 사이버폭력 예방 114
가. 사이버폭력 교육 114

4. 온라인 정보 활용 118
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118
나. 허위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120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122
라. 교사의 정보 판별 태도 124

# 1. 지도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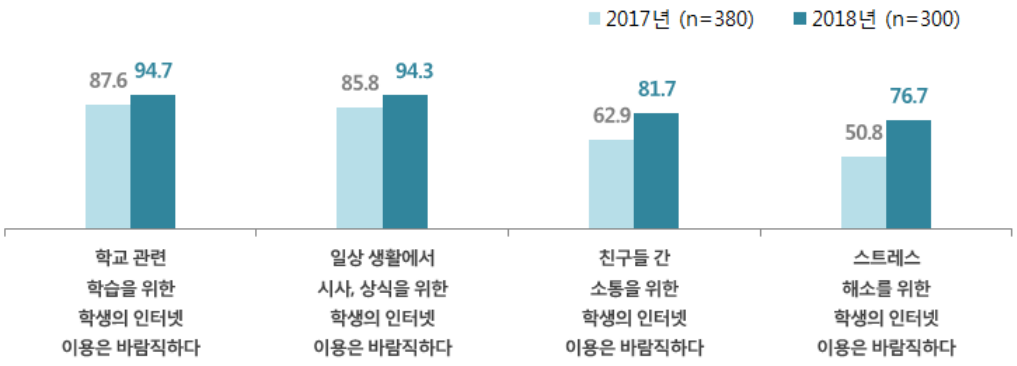
##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 (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 시사, 상식을 위한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긍정적임.
- 전년 대비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 이용 및 학생의 개인적인 놀이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증가함.
- 고등학교 교사들은 타 교급 교사 대비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학생 교급이 높을수록 교우간 소통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있음.

[그림 V-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전체,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V-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전체,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20] | 비수도권[21]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학교 관련 학습을 위한 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94.7 | 94.7 | 94.2 | 95.1 | 92.6 | 95.6 |
|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을 위한 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94.3 | 93.6 | 97.1 | 92.2 | 93.7 | 94.6 |
| 친구들간 소통을 위한 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81.7 | 71.3 | 83.5 | 89.3 | 86.3 | 79.5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76.7 | 71.3 | 76.7 | 81.6 | 74.7 | 7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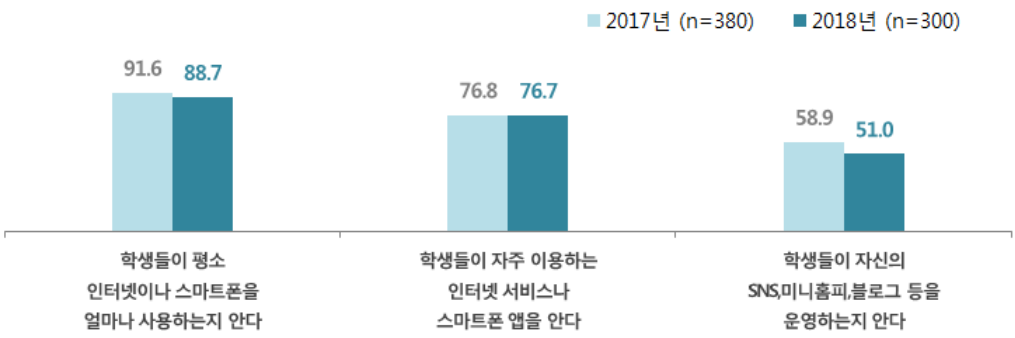
20)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1) 비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평소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알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들이 운영하는 개인 SNS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절반 정도 인지하고 있음.
-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타 교급 교사 대비 중학교 교사들의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율이 높음.

[그림 V-2]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표Ⅴ-2]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학생들이 평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안다 | 88.7 | 87.2 | 91.3 | 87.4 | 86.3 | 89.8 |
|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을 안다 | 76.7 | 78.7 | 79.6 | 71.8 | 77.9 | 76.1 |
| 학생들이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지 안다 | 51.0 | 48.9 | 53.4 | 50.5 | 53.7 | 4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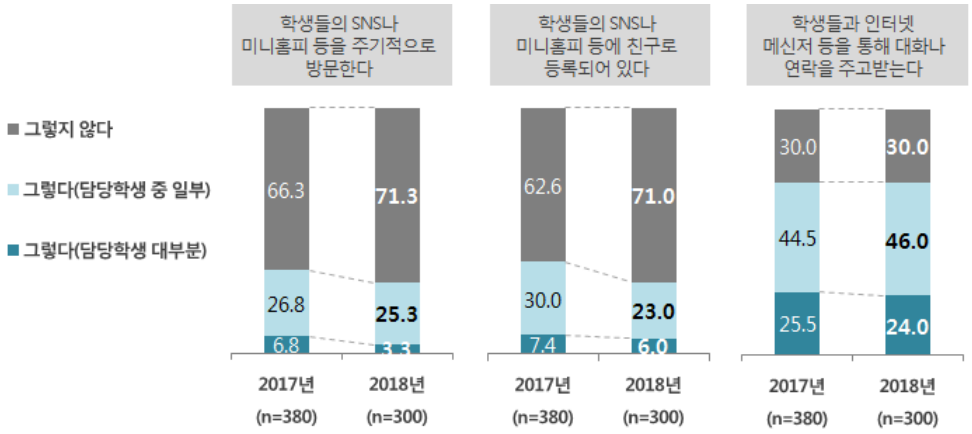
(3)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 교사 10명 중 약 7명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SNS나 미니홈피 방문 혹은 메신저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속된 학교의 교급이 높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온라인 교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

[그림 V-3]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전체, 단위: %)




[표Ⅴ-3]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학생들의 SNS나 미니홈피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 28.7 | 23.4 | 30.1 | 32.0 | 24.2 | 30.7 |
| 학생들의 SNS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 29.0 | 16.0 | 32.0 | 37.9 | 27.4 | 29.8 |
| 학생들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한다 | 70.0 | 62.8 | 70.9 | 75.7 | 64.2 | 72.7 |

##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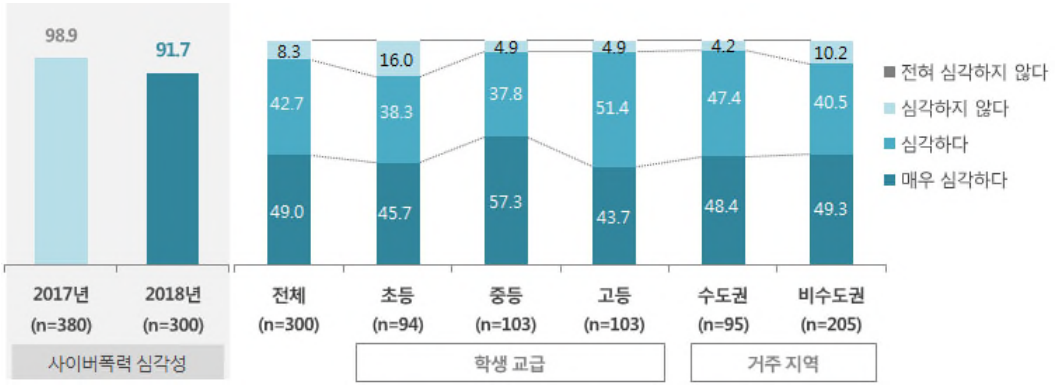
### 가. 사이버폭력 인식

#### (1) 사이버폭력 심각성

- 교사 중 91.7%가 사이버폭력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함.
- 사이버폭력에 대해 98.9%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던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추세임.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4]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표Ⅴ-4]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0.0 | 0.0 | 0.0 | 0.0 | 0.0 | 0.0 |
| ② 심각하지 않다 | | 8.3 | 16.0 | 4.9 | 4.9 | 4.2 | 10.2 |
| ③ 심각하다 | | 42.7 | 38.3 | 37.8 | 51.4 | 47.4 | 40.5 |
| ④ 매우 심각하다 | | 49.0 | 45.7 | 57.3 | 43.7 | 48.4 | 49.3 |
| 종합 결과 | ①+② 심각하지 않음 | 8.3 | 16.0 | 4.9 | 4.9 | 4.2 | 10.2 |
| | ③+④ 심각함 | 91.7 | 84.0 | 95.1 | 95.1 | 95.8 | 89.8 |

(2)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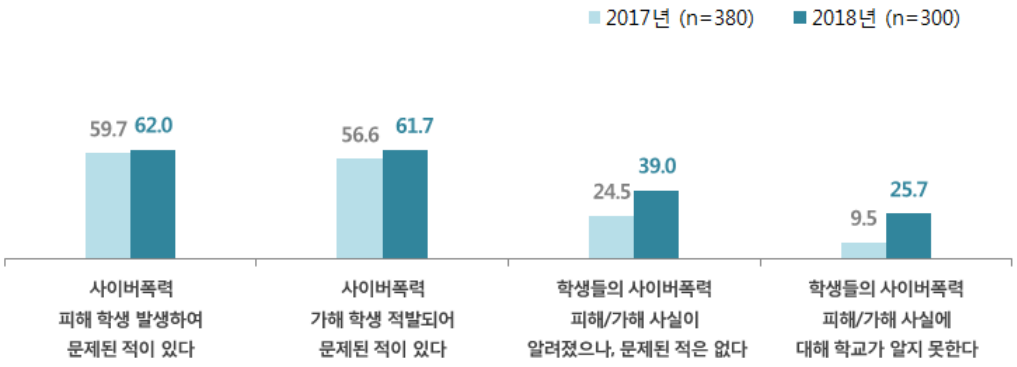
○ 교사 10명 중 6명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거나 가해 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를 겪은 경험 있음.

○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보다 문제된 적이 없거나 학교가 사이버폭력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증가함.

○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이 이슈화되지 않거나 학교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V-5]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표V-5]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 | 62.0 | 47.9 | 73.8 | 63.1 | 67.4 | 59.5 |
|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 | 61.7 | 47.9 | 70.9 | 65.0 | 64.2 | 60.5 |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알려졌으나, 문제된 적은 없다 | 39.0 | 22.3 | 51.5 | 41.7 | 38.9 | 39.0 |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가 알지 못한다 | 25.7 | 13.8 | 32.0 | 30.1 | 25.3 | 2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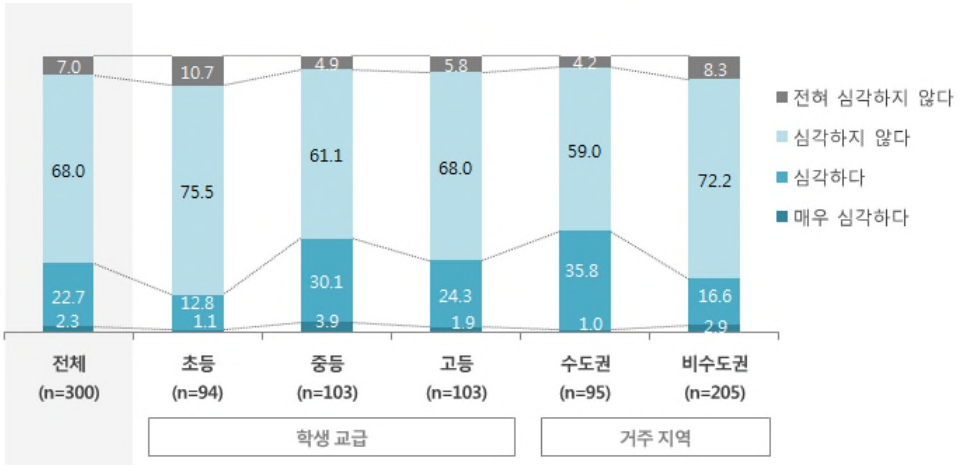
(3)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 교사의 약 1/4만이 근무 중인 학교의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초등학교 교사는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낮은 편임. 거주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교사 대비 수도권 교사들이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V-6]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표Ⅴ-6]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7.0 | 10.7 | 4.9 | 5.8 | 4.2 | 8.3 |
| ② 심각하지 않다 | | 68.0 | 75.5 | 61.1 | 68.0 | 59.0 | 72.2 |
| ③ 심각하다 | | 22.7 | 12.8 | 30.1 | 24.3 | 35.8 | 16.6 |
| ④ 매우 심각하다 | | 2.3 | 1.1 | 3.9 | 1.9 | 1.0 | 2.9 |
| 종합 결과 | ①+② 심각하지 않음 | 75.0 | 86.2 | 66.0 | 73.8 | 63.2 | 80.5 |
| | ③+④ 심각함 | 25.0 | 13.8 | 34.0 | 26.2 | 36.8 | 1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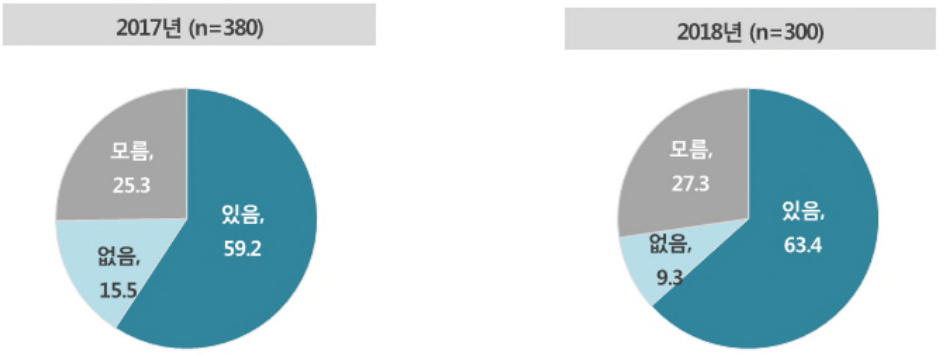
## 나. 사이버폭력 대응

### (1)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여부

- 교사 중 약 63%가 재직 학교에 사이버폭력 관련 공식 규정 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27%는 해당 규정 또는 프로그램 유무에 대해 모르고 있음.
- 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들이 관련 교내 규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교사들의 관련 규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7]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여부

(전체, 단위: %)




[표V-7]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여부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있음 | 63.4 | 52.1 | 71.8 | 65.0 | 64.2 | 62.9 |
| 없음 | 9.3 | 10.7 | 6.8 | 10.7 | 9.5 | 9.3 |
| 잘 모르겠음 | 27.3 | 37.2 | 21.4 | 24.3 | 26.3 | 2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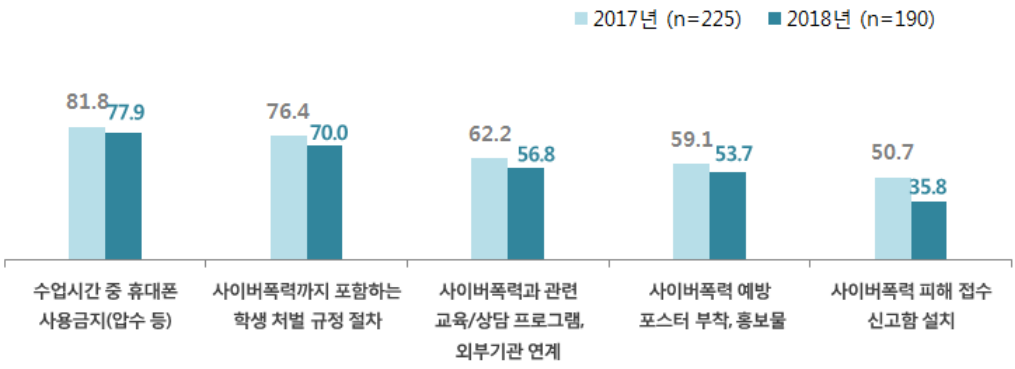
(2)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의 77.9%는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70.0%는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를 보유하고 있음.

○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규정 및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수 운영하고 있음. 초등학교는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가 타 교급 대비 적음. 비수도권 지역은 관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함.

[그림 V-8]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재직 학교에서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중인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V-8]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재직 학교에서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중인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90) | (49) | (74) | (67) | (61) | (129) |
|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압수 등) | 77.9 | 71.4 | 79.7 | 80.6 | 78.7 | 77.5 |
|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 70.0 | 46.9 | 77.0 | 79.1 | 65.6 | 72.1 |
|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 | 56.8 | 57.1 | 56.8 | 56.7 | 62.3 | 54.3 |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 53.7 | 53.1 | 56.8 | 50.7 | 55.7 | 52.7 |
|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 35.8 | 32.7 | 40.5 | 32.8 | 32.8 | 37.2 |

(3)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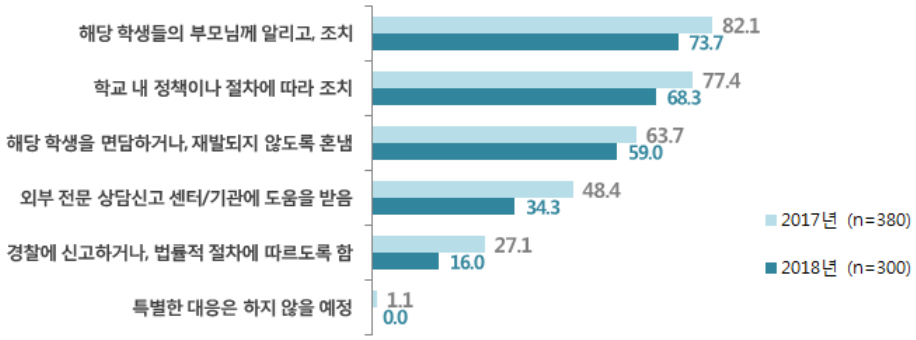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고지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응답함.

○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법률적 절차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비율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은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알리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음.

[그림 V-9]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전체, 단위: %, 복수응답)




[표V-9]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알리고, 조치 | 73.7 | 79.8 | 75.7 | 66.0 | 73.7 | 73.7 |
|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 | 68.3 | 57.4 | 68.0 | 78.6 | 66.3 | 69.3 |
|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혼냄 | 59.0 | 68.1 | 55.3 | 54.4 | 51.6 | 62.4 |
|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기관에 도움을 받음 | 34.3 | 33.0 | 33.0 | 36.9 | 29.5 | 36.6 |
|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에 따르도록 함 | 16.0 | 8.5 | 19.4 | 19.4 | 17.9 | 15.1 |
|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 | 0.0 | 0.0 | 0.0 | 0.0 | 0.0 | 0.0 |

## 3. 사이버폭력 예방

### 가. 사이버폭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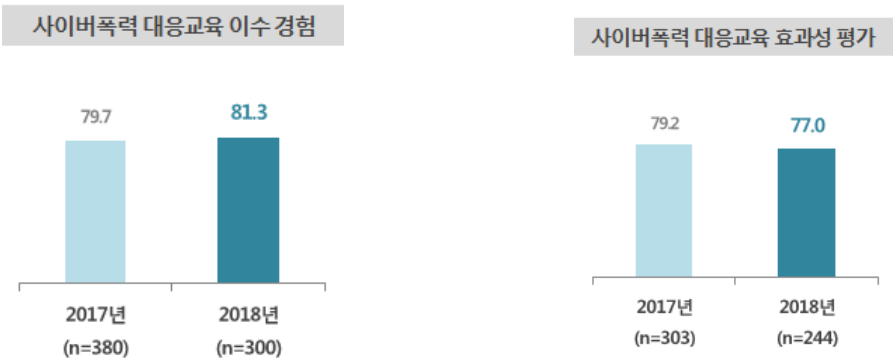
#### (1)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및 평가

○ 교사 10명 중 약 8명이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함. 고등학교 교사의 이수 경험률이 타 교급 대비 가장 낮으며, 수도권 교사들이 비수도권 교사에 비해 교육 이수 경험률이 다소 높음.

○ 사이버폭력 교육 이수자의 77.0%가 해당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지도 학생 교급이 낮은 교사일수록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V-10]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및 평가

(좌: 전체, 단위: % / 우: 교육 이수자, 단위: %, '효과적이다' 응답 비율)




[표Ⅴ-10]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이수 경험 있음 | 81.3 | 85.1 | 83.5 | 75.7 | 84.2 | 80.0 |
| 이수 경험 없음 | 18.7 | 14.9 | 16.5 | 24.3 | 15.8 | 20.0 |

[표Ⅴ-11]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평가

(교육 이수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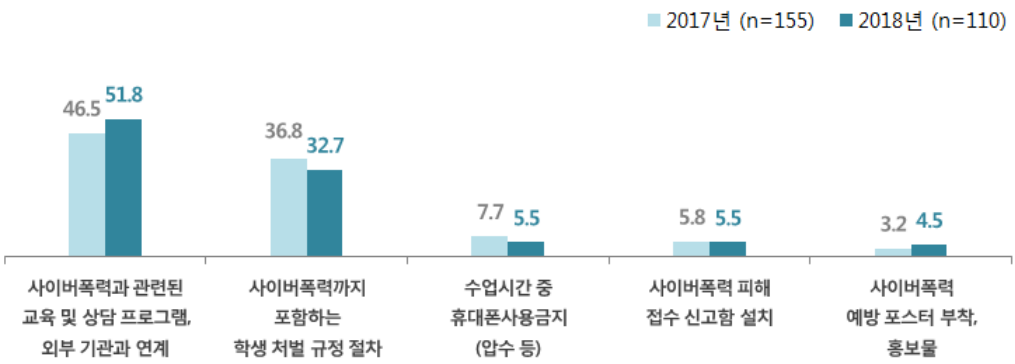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244) | (80) | (86) | (78) | (80) | (164) |
| 효과적임 | 77.0 | 87.5 | 79.1 | 64.1 | 77.5 | 76.8 |
| 효과적이지 않음 | 23.0 | 12.5 | 20.9 | 35.9 | 22.5 | 23.2 |

(2)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재직 중인 학교에 별도의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의 경우, 과반수가 외부 기관과 연계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2017년도 대비 약 5%p 증가함).
- 세부집단별로는 재직 중인 학교의 교급이 낮을수록, 외부 기관과 연계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율 높음.
- 반면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및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함.

[그림 V-11]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재직 학교에 관련 규정/프로그램 없는 응답자, 단위: %)




[표V-12]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재직 학교에 관련 규정/프로그램 없는 응답자, 단위: %)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 | (45) | (29) | (36) | (34) | (76) |
|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 | 51.8 | 62.2 | 48.3 | 41.7 | 55.9 | 50.0 |
|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 32.7 | 26.7 | 34.5 | 38.9 | 44.1 | 27.6 |
|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압수 등) | 5.5 | 4.4 | 6.9 | 5.6 | 0.0 | 7.9 |
|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 5.5 | 4.4 | 6.9 | 5.6 | 0.0 | 7.9 |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 4.5 | 2.2 | 3.4 | 8.3 | 0.0 |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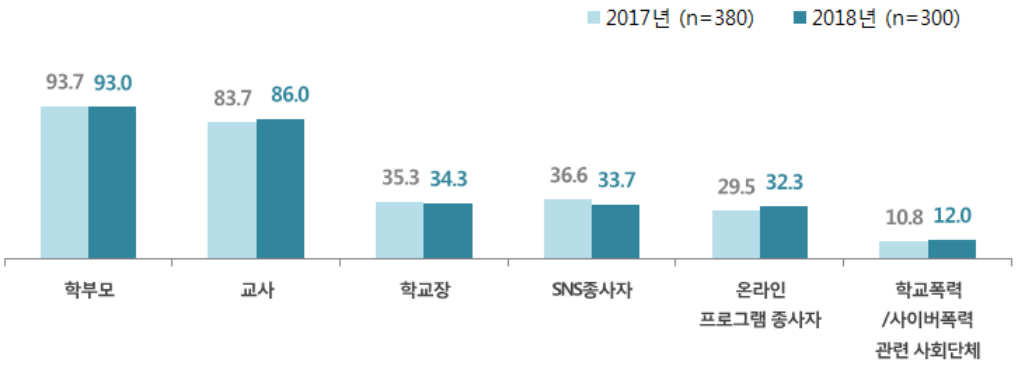
(3) 교육 대상 우선순위

○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부모와 교사가 각각 압도적인 1순위 및 2순위로 꼽힘.

○ 교급이 낮을수록 학부모가 교육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중학교의 경우 SNS 종사자가 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타 교급 교사 대비 높음.

[그림 V-12] 교육 대상 우선순위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표Ⅴ-13] 교육 대상 우선순위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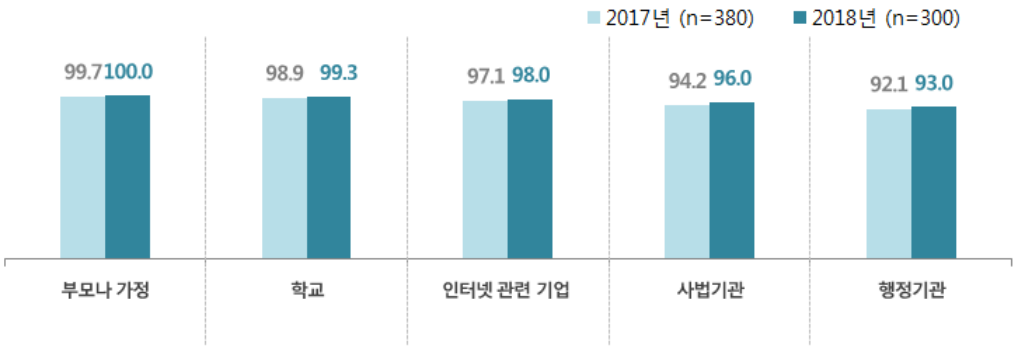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학부모 | 93.0 | 95.7 | 93.2 | 90.3 | 97.9 | 90.7 |
| 교사 | 86.0 | 87.2 | 87.4 | 83.5 | 86.3 | 85.9 |
| 학교장 | 34.3 | 40.4 | 23.3 | 39.8 | 27.4 | 37.6 |
| SNS 종사자 | 33.7 | 27.7 | 41.7 | 31.1 | 31.6 | 34.6 |
| 온라인 프로그램 종사자 | 32.3 | 33.0 | 33.0 | 31.1 | 31.6 | 32.7 |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 12.0 | 8.5 | 15.5 | 11.7 | 12.6 | 11.7 |

(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 학생들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관은 부모나 가정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사법기관(경찰이나 검찰)의 중요성이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진 것이 특징적임.
- 중학교 교사들은 타 교급 교사 대비 인터넷 관련 기업과 사법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V-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전체, 단위: %,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




[표V-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전체, 단위: %,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부모나 가정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학교 | 99.3 | 100.0 | 99.0 | 99.0 | 98.9 | 99.5 |
| 인터넷 관련 기업 | 98.0 | 97.9 | 99.0 | 97.1 | 96.8 | 98.5 |
| 사법기관 | 96.0 | 94.7 | 97.1 | 96.1 | 97.9 | 95.1 |
| 행정기관 | 93.0 | 96.8 | 91.3 | 91.3 | 92.6 | 93.2 |

## 4. 온라인 정보 활용

### 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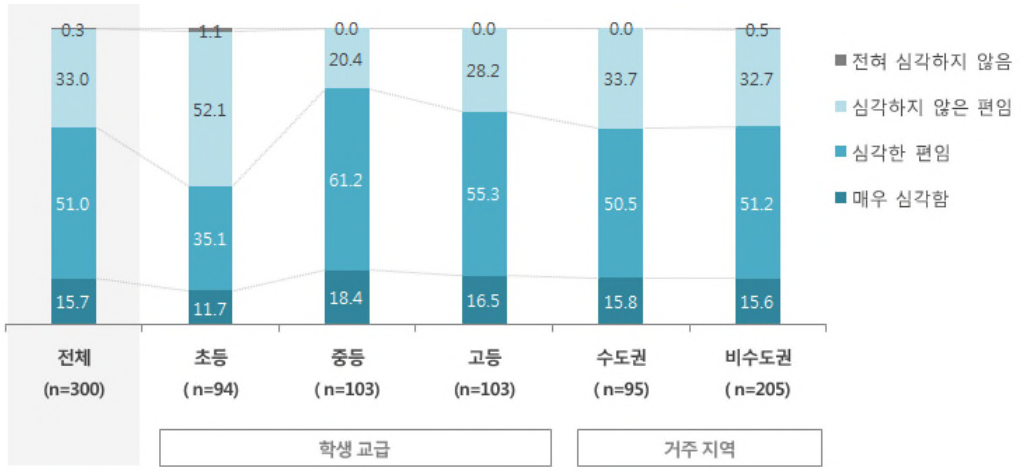
#### (1) 학생간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 지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온라인 정보 공유에 대하여 약 66%의 교사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들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Ⅴ-14] 학생간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전체, 단위: %)




[표Ⅴ-15] 학생간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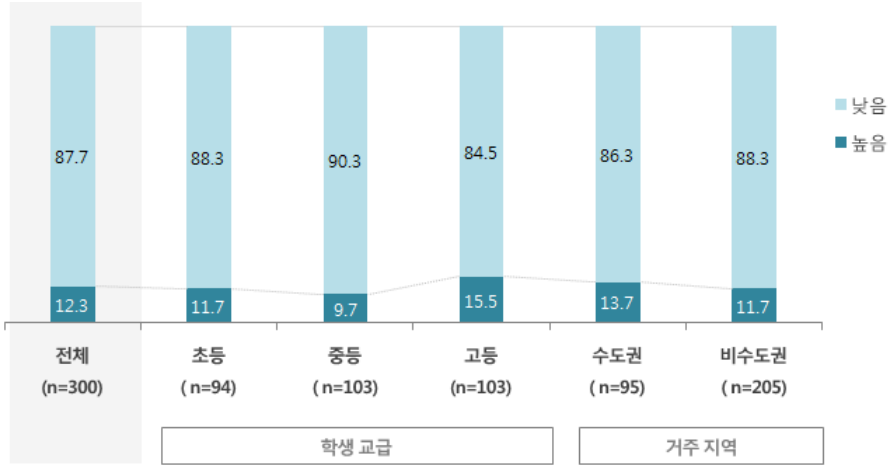
| 구분 |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 | 0.3 | 1.1 | 0.0 | 0.0 | 0.0 | 0.5 |
| ② 심각하지 않은 편임 | | 33.0 | 52.1 | 20.4 | 28.2 | 33.7 | 32.7 |
| ③ 심각한 편임 | | 51.0 | 35.1 | 61.2 | 55.3 | 50.5 | 51.2 |
| ④ 매우 심각함 | | 15.7 | 11.7 | 18.4 | 16.5 | 15.8 | 15.6 |
| 종합 결과 | ①+② 심각하지 않음 | 33.3 | 53.2 | 20.4 | 28.2 | 33.7 | 33.2 |
| | ③+④ 심각함 | 66.7 | 46.8 | 79.6 | 71.8 | 66.3 | 66.8 |

(2) 학생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력

- 교사 10명 중 8~9명은 지도 학생들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 능력에 대하여 낮다고 평가함.
-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력이 높다는 비율은 고등학교(15.5%) > 초등학교(11.7%) > 중학교(9.7%) 순임.

[그림 V-15] 학생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력

(전체, 단위: %)




[표V-16] 학생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력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낮음 | 87.7 | 88.3 | 90.3 | 84.5 | 86.3 | 88.3 |
| 높음 | 12.3 | 11.7 | 9.7 | 15.5 | 13.7 |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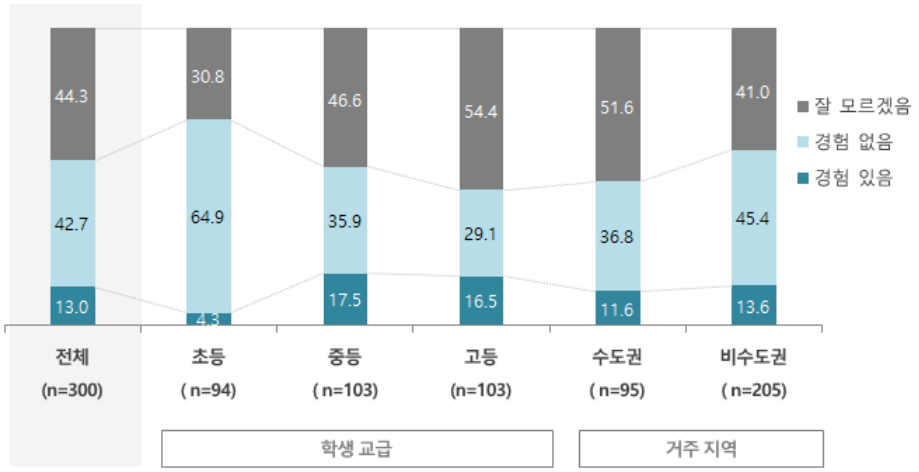
## 나. 허위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 (1)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 재직 중인 학교 내 지도 학생의 '잘못된 온라인 정보' 피해 경험 여부를 인지(학생 피해 경험 있음+학생 피해 경험 없음)하고 있는 교사는 10명 중 5~6명 수준임.
- 교급이 높을수록 학생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인지율 낮은 경향 있음.
-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한 지도 학생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0%임.
- 교급별로는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교사 순으로 허위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률 높음.

[그림 V-16]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전체, 단위: %)




[표Ⅴ-17]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학생 피해 경험 있음 | 13.0 | 4.3 | 17.5 | 16.5 | 11.6 | 13.6 |
| 학생 피해 경험 없음 | 42.7 | 64.9 | 35.9 | 29.1 | 36.8 | 45.4 |
| 잘 모르겠음 | 44.3 | 30.8 | 46.6 | 54.4 | 51.6 | 4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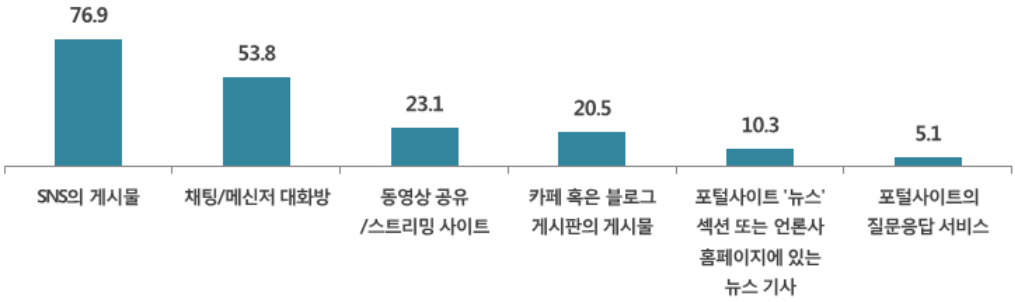
(2) 학생이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22)]

○ 학생이 피해 경험한 잘못된 온라인 정보는 SNS 게시물, 채팅 또는 메신저 대화방이 가장 많음.

○ 중학교 교급은 채팅이나 메신저 대화방에서 접촉한 정보 의해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타 교급 대비 낮음.

[그림 V-17] 학생이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유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Ⅴ-18] 학생이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생 피해 유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9) | (4) | (18) | (17) | (11) | (28) |
| SNS의 게시물 | 76.9 | 75.0 | 77.8 | 76.5 | 90.9 | 71.4 |
| 채팅/메신저 대화방 | 53.8 | 75.0 | 44.4 | 58.8 | 45.5 | 57.1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 | 23.1 | 25.0 | 22.2 | 23.5 | 36.4 | 17.9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20.5 | 25.0 | 22.2 | 17.6 | 27.3 | 17.9 |
|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0.3 | 25.0 | 5.6 | 11.8 | 0.0 | 14.3 |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 | 5.1 | 25.0 | 0.0 | 5.9 | 0.0 | 7.1 |

22) 사례 수가 25 미만인 경우는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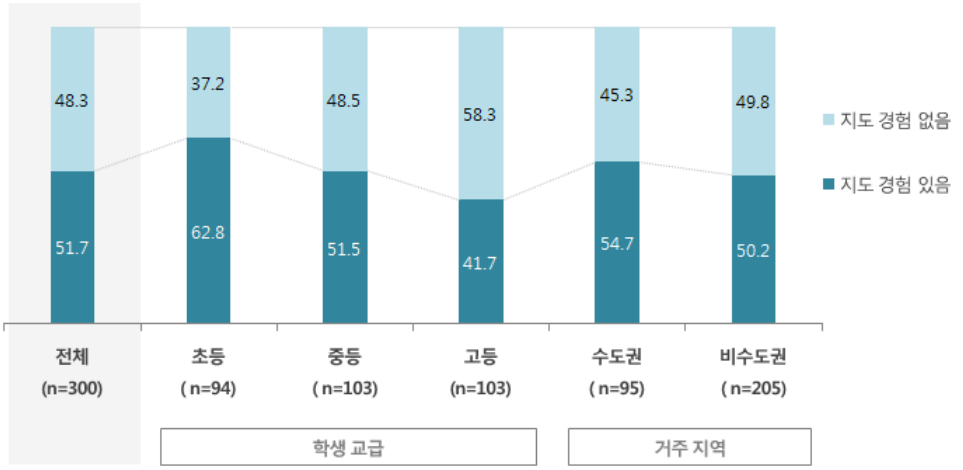
##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 (1) 학생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 판별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이나 지도를 했던 교사는 약 50%임.
- ○ 교급이 높을수록 지도 경험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교사의 지도 경험률이 약간 높음.

[그림 V-18] 학생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전체, 단위: %)




[표Ⅴ-19] 학생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지도 경험 있음 | 51.7 | 62.8 | 51.5 | 41.7 | 54.7 | 50.2 |
| 지도 경험 없음 | 48.3 | 37.2 | 48.5 | 58.3 | 45.3 | 4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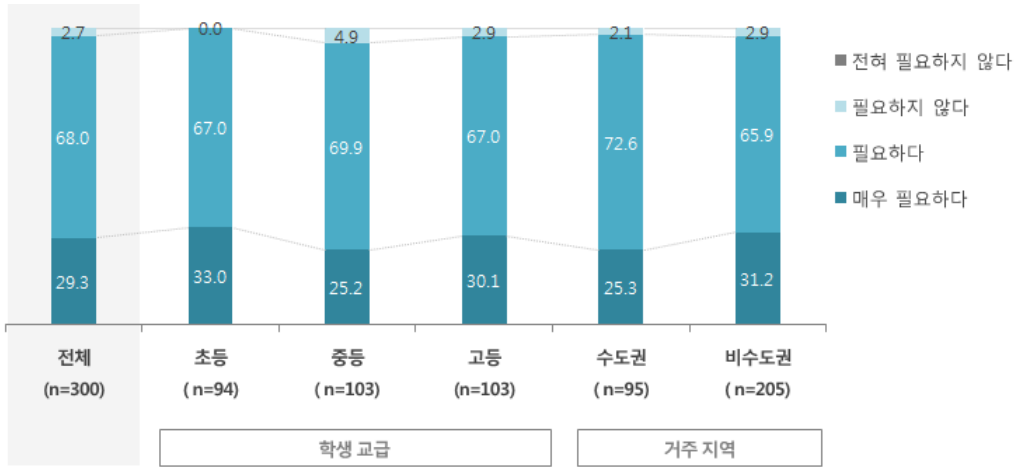
(2) 학생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 및 전파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함.

○ 초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V-19] 학생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전체, 단위: %)




[표V-20] 학생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0.0 | 0.0 | 0.0 | 0.0 | 0.0 | 0.0 |
| ② 필요하지 않다 | | 2.7 | 0.0 | 4.9 | 2.9 | 2.1 | 2.9 |
| ③ 필요하다 | | 68.0 | 67.0 | 69.9 | 67.0 | 72.6 | 65.9 |
| ④ 매우 필요하다 | | 29.3 | 33.0 | 25.2 | 30.1 | 25.3 | 31.2 |
| 종합 결과 | ①+② 필요하지 않음 | 2.7 | 0.0 | 4.9 | 2.9 | 2.1 | 2.9 |
| | ③+④ 필요함 | 97.3 | 100.0 | 95.1 | 97.1 | 97.9 | 97.1 |

라. 교사의 정보 판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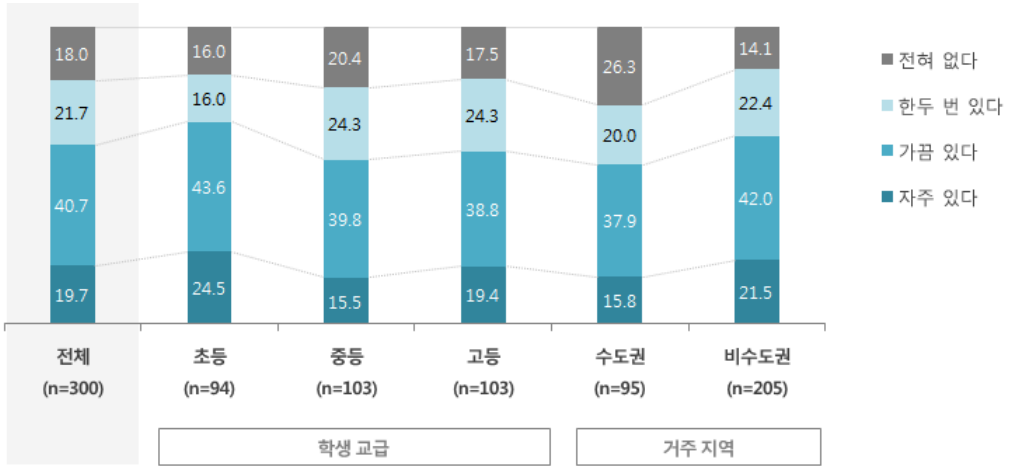
(1) 사실 확인 경험

○ 조사에 응한 교사 중 82.0%가 최근 6개월 이내 온라인상의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본 적 있다' 응답함.

○ 지도 학생 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의 '확인 해본 적 있음' 응답 비율이 79.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교사의 확인 비율(85.9%)이 높음.

[그림 Ⅴ-20]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표Ⅴ-21]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전혀 없다 | | 18.0 | 16.0 | 20.4 | 17.5 | 26.3 | 14.1 |
| 한두 번 있다 | | 21.7 | 16.0 | 24.3 | 24.3 | 20.0 | 22.4 |
| 가끔 있다 | | 40.7 | 43.6 | 39.8 | 38.8 | 37.9 | 42.0 |
| 자주 있다 | | 19.7 | 24.5 | 15.5 | 19.4 | 15.8 | 21.5 |
| 종합 결과 | 경험 없음 | 18.0 | 16.0 | 20.4 | 17.5 | 26.3 | 14.1 |
| | 경험 있음 | 82.0 | 84.0 | 79.6 | 82.5 | 73.7 | 8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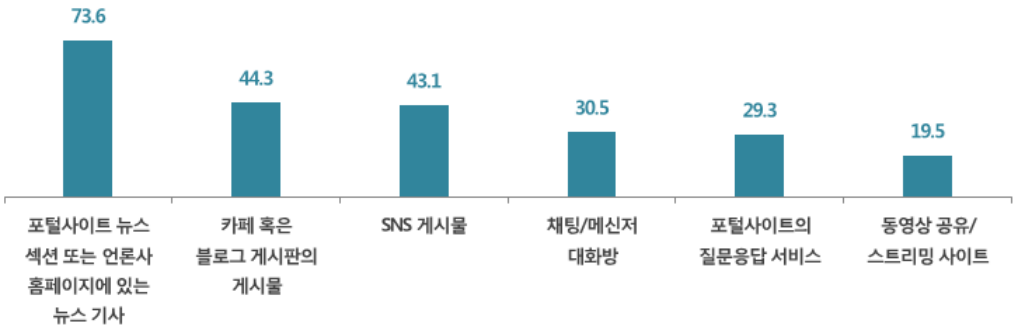
(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정보의 종류는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인 경우가 73.6%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44.3%), 'SNS 게시물'(43.1%) 등임.

○ 중학교 교사는 초등 또는 고등학교 교사 집단 대비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V-2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V-2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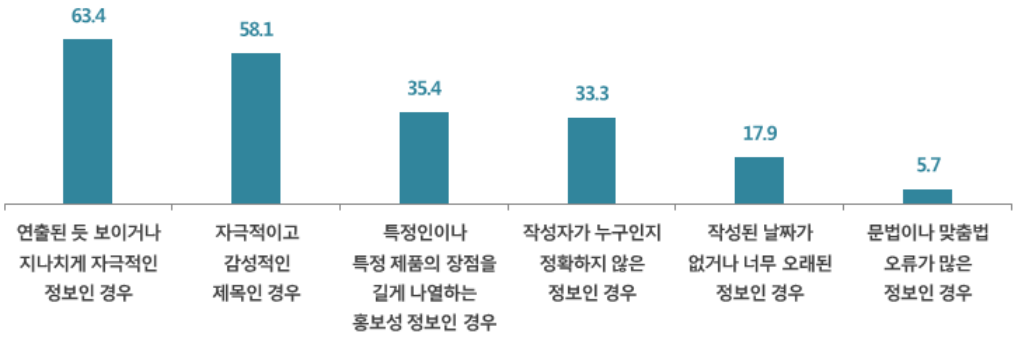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246) | (79) | (82) | (85) | (70) | (176)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73.6 | 67.1 | 72.0 | 81.2 | 77.1 | 72.2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4.3 | 43.0 | 39.0 | 50.6 | 51.4 | 41.5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43.1 | 38.0 | 53.7 | 37.6 | 50.0 | 40.3 |
|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0.5 | 31.6 | 29.3 | 30.6 | 27.1 | 31.8 |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iN', 다음 '팁') | 29.3 | 20.3 | 26.8 | 40.0 | 31.4 | 28.4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19.5 | 15.2 | 17.1 | 25.9 | 14.3 | 21.6 |

(3) 사실 확인 이유

○ 앞서 제시된 종류의 정보에 대해 사실을 확인을 한 이유로는,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63.4%) >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58.1%) >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35.4%) >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33.3%) 등의 순임.

[그림 V-22]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Ⅴ-23]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246) | (79) | (82) | (85) | (70) | (176) |
|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63.4 | 55.7 | 63.4 | 70.6 | 60.0 | 64.8 |
|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58.1 | 53.2 | 56.1 | 64.7 | 55.7 | 59.1 |
|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35.4 | 30.4 | 29.3 | 45.9 | 35.7 | 35.2 |
|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33.3 | 39.2 | 28.0 | 32.9 | 41.4 | 30.1 |
|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17.9 | 17.7 | 13.4 | 22.4 | 17.1 | 18.2 |
|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5.7 | 6.3 | 2.4 | 8.2 | 7.1 | 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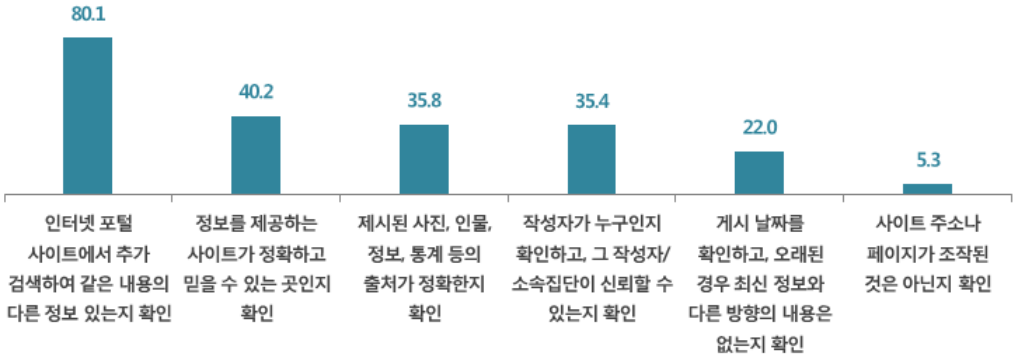
(4) 사실 확인 방법

○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80.1%)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함.

○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 작성자/소속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등의 방법도 약 35~40%임.

[그림 V-23]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V-24]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246) | (79) | (82) | (85) | (70) | (176) |
|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80.1 | 81.0 | 78.0 | 81.2 | 80.0 | 80.1 |
|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40.2 | 36.7 | 32.9 | 50.6 | 35.7 | 42.0 |
|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35.8 | 27.8 | 31.7 | 47.1 | 35.7 | 35.8 |
|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35.4 | 29.1 | 39.0 | 37.6 | 40.0 | 33.5 |
|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22.0 | 21.5 | 17.1 | 27.1 | 21.4 | 22.2 |
|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5.3 | 2.5 | 7.3 | 5.9 | 10.0 |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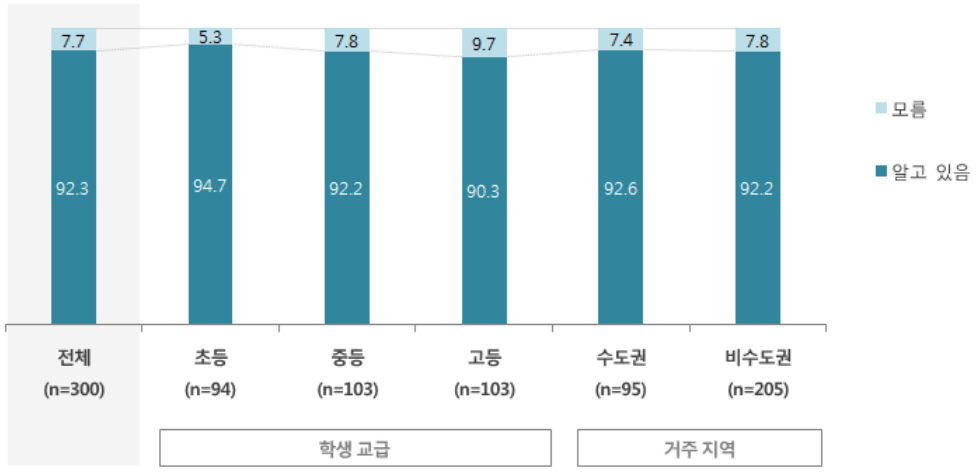
(5)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조사에 응한 전체 교사의 92.3%가 설령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지도 학생의 교급이 낮은 교사일수록 인지율이 소폭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그림 V-24]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표Ⅴ-25]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학생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00) | (94) | (103) | (103) | (95) | (205) |
| 알고 있음 | 92.3 | 94.7 | 92.2 | 90.3 | 92.6 | 92.2 |
| 모름 | 7.7 | 5.3 | 7.8 | 9.7 | 7.4 | 7.8 |

# Ⅵ.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1.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 131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31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34
가. 사이버폭력 인식 134
나. 사이버폭력 대응 137

3. 사이버폭력 예방 139
가. 사이버폭력 교육 139

4. 온라인 정보 활용 144
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144
나. 허위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146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148
라. 학부모의 정보 판별 태도 150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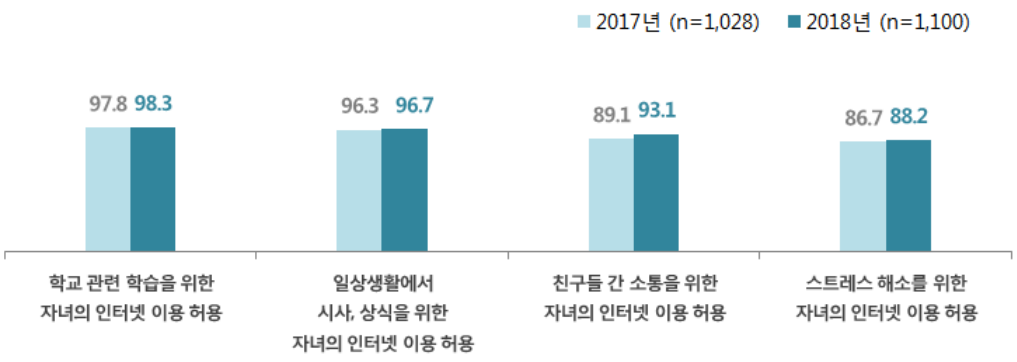
##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이나 시사, 상식을 위한 인터넷 이용과 친구들간 소통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허용적인 태도를 보유함.
- 2017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허용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친구들간 소통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허용 비율이 가장 많이 높아짐.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 비해 인터넷 이용에 대한 허용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Ⅵ-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전체,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Ⅵ-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견해

(전체,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23] | 비수도권[24]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학교 관련 학습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 허용 | 98.3 | 98.8 | 98.6 | 97.5 | 98.2 | 98.3 |
|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 허용 | 96.7 | 95.2 | 98.3 | 96.5 | 96.9 | 96.6 |
| 친구들 간의 소통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 허용 | 93.1 | 87.5 | 95.9 | 95.3 | 93.4 | 92.9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 허용 | 88.2 | 81.8 | 89.5 | 92.3 | 88.5 | 8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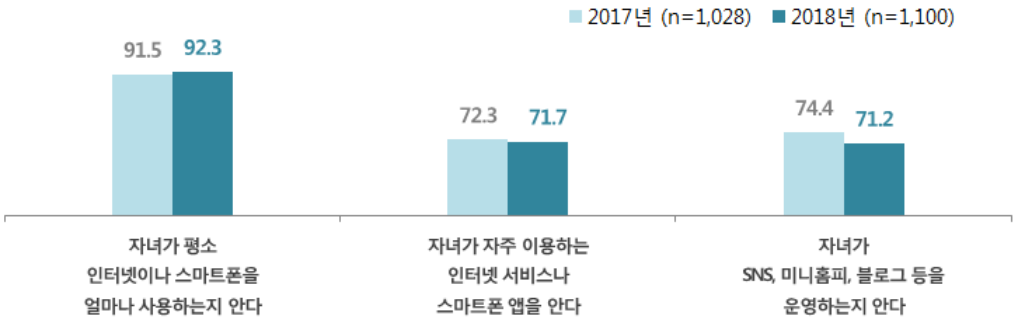
23)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4) 비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학부모의 대부분은 자녀가 평소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92.3%).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하지만,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SNS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약 70%정도로 사용량에 대한 인지도 대비 낮은 수준임.
- 자녀의 교급이 낮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량 및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 범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그림 Ⅵ-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표Ⅵ-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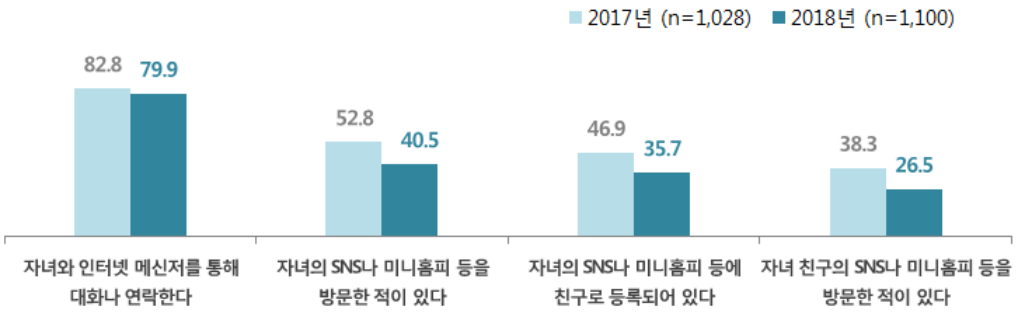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자녀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안다 | 92.3 | 97.3 | 91.4 | 88.8 | 92.3 | 92.2 |
|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을 안다 | 71.7 | 88.1 | 71.3 | 58.5 | 73.0 | 71.0 |
| 자녀가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지 안다 | 71.2 | 87.8 | 70.2 | 58.2 | 74.2 | 69.5 |

(3)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자녀와 연락함.
- 전년 대비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방식(채널)에 대한 다양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자녀 교급이 높을수록 자녀의 SNS나 미니홈피를 방문하거나 친구로 등록하는 비율은 낮음. 비수도권 학부모들은 수도권 학부모에 비해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률이 높은 편임.

[그림 VI-3]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표VI-3]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자녀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화나 연락한다 | 79.9 | 76.2 | 81.2 | 81.8 | 76.5 | 81.8 |
| 자녀의 SNS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 | 40.5 | 47.6 | 39.2 | 35.6 | 38.3 | 41.7 |
| 자녀의 SNS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 35.7 | 41.1 | 35.1 | 31.8 | 31.4 | 38.1 |
| 자녀 친구의 SNS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 | 26.5 | 30.4 | 24.0 | 25.6 | 25.0 | 27.4 |

##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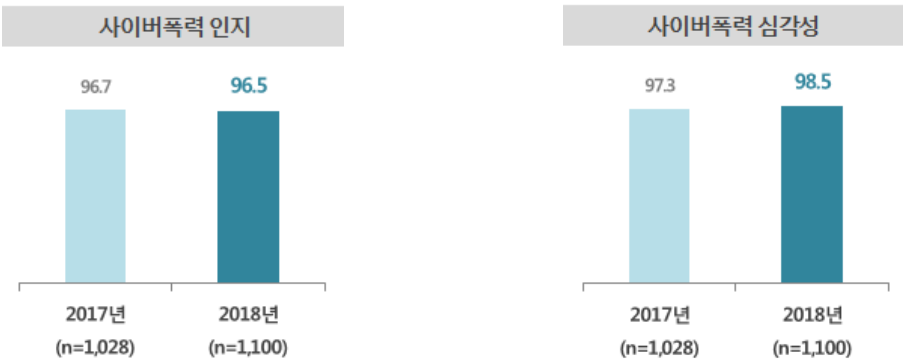
### 가. 사이버폭력 인식

#### (1) 사이버폭력 인지 및 심각성

- 사이버폭력 인지율 및 심각성은 각각 96.5%와 98.5%임.
-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비율은 다소 증가함.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Ⅵ-4] 사이버폭력 인지 및 심각성

(전체, 단위: %, 좌: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 비율, 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응답비율)




[표Ⅵ-4]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0.5 | 0.0 | 0.6 | 0.7 | 0.3 | 0.6 |
| ② 심각하지 않다 | | 1.0 | 0.6 | 1.4 | 1.0 | 0.8 | 1.1 |
| ③ 심각하다 | | 40.5 | 35.4 | 35.8 | 49.0 | 39.0 | 41.4 |
| ④ 매우 심각하다 | | 58.0 | 64.0 | 62.2 | 49.3 | 59.9 | 56.9 |
| 종합 결과 | ①+② 심각하지 않음 | 1.5 | 0.6 | 2.0 | 1.7 | 1.1 | 1.7 |
| | ③+④ 심각함 | 98.5 | 99.4 | 98.0 | 98.3 | 98.9 | 9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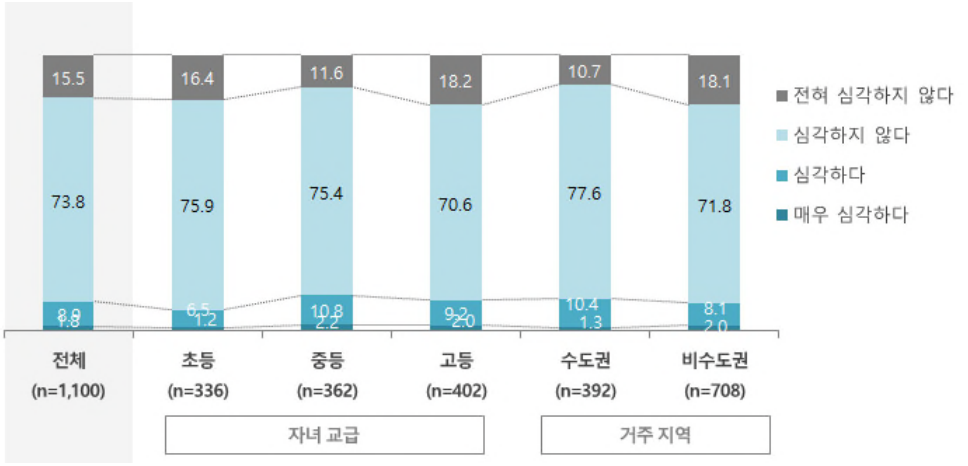
(2) 자녀 학교의 사이버폭력 심각성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학부모 10명 중 9명 정도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교급별로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음.

[그림 VI-5] 자녀 학교의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표VI-5] 자녀 학교의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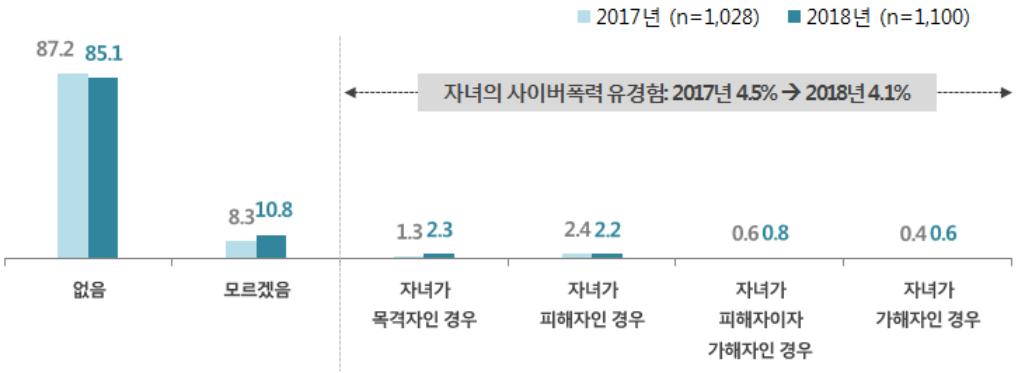
| 구분 |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15.5 | 16.4 | 11.6 | 18.2 | 10.7 | 18.1 |
| ② 심각하지 않다 | | 73.8 | 75.9 | 75.4 | 70.6 | 77.6 | 71.8 |
| ③ 심각하다 | | 8.9 | 6.5 | 10.8 | 9.2 | 10.4 | 8.1 |
| ④ 매우 심각하다 | | 1.8 | 1.2 | 2.2 | 2.0 | 1.3 | 2.0 |
| 종합 결과 | ①+② 심각하지 않음 | 89.3 | 92.3 | 87.0 | 88.8 | 88.3 | 89.9 |
| | ③+④ 심각함 | 10.7 | 7.7 | 13.0 | 11.2 | 11.7 | 10.1 |

(3)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 학부모의 약 85%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10%정도 차지함.
- 전년 대비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학부모 비율은 0.4%p 감소함.
-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중학생(4.4%), 초등학생(4.2%), 고등학생(3.8%) 자녀를 둔 학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남.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비수도권 거주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 사이버폭력 경험이 많음.

[그림 Ⅵ-6]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복수응답)




[표Ⅵ-6]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없음 | 85.1 | 85.4 | 84.0 | 85.8 | 83.2 | 86.2 |
| 모르겠음 | 10.8 | 10.4 | 11.6 | 10.4 | 12.2 | 10.0 |
| 자녀의 사이버폭력 유경험 | 4.1 | 4.2 | 4.4 | 3.8 | 4.6 | 3.8 |
| ①자녀가 목격자인 경우 | 2.3 | 2.4 | 2.8 | 1.7 | 3.8 | 1.4 |
| ②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 2.2 | 2.4 | 1.9 | 2.2 | 1.5 | 2.5 |
| ③자녀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 | 0.8 | 0.6 | 0.8 | 1.0 | 0.5 | 1.0 |
| ④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 0.6 | 0.6 | 0.3 | 1.0 | 0.5 |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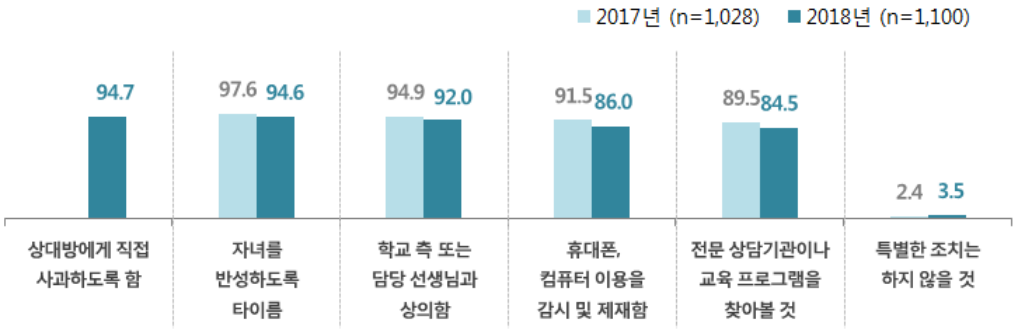
## 나. 사이버폭력 대응

### (1)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25]

-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행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자녀를 반성하도록 타이르거나 학교 측 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것이라는 의견 순임.
-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부모 대비 높음.

[그림 Ⅵ-7]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표Ⅵ-7]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함 | 94.7 | 95.8 | 93.4 | 95.0 | 94.6 | 94.8 |
|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름 | 94.6 | 95.2 | 94.8 | 94.0 | 95.2 | 94.4 |
| 학교 측 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함 | 92.0 | 94.0 | 92.3 | 90.0 | 91.3 | 92.4 |
| 휴대폰, 컴퓨터 이용을 감시 및 제재함 | 86.0 | 92.0 | 81.8 | 84.8 | 85.5 | 86.3 |
| 전문 상담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볼 것 | 84.5 | 86.9 | 86.5 | 80.8 | 85.2 | 84.2 |
|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 | 3.5 | 2.1 | 2.2 | 5.7 | 3.8 | 3.2 |

25)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함'은 2018년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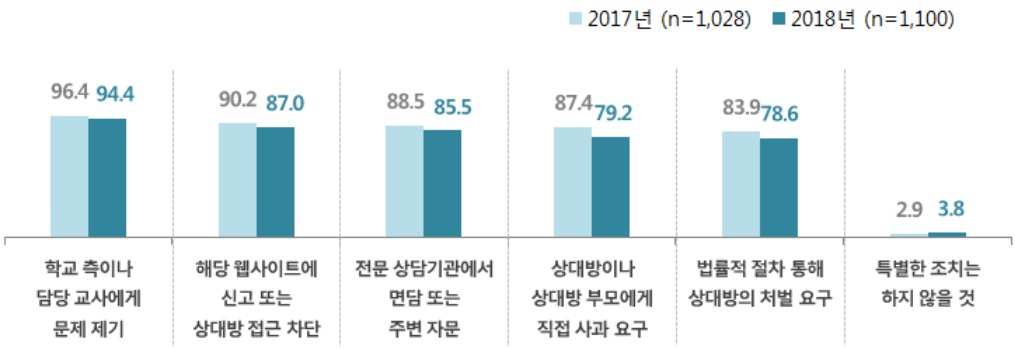
(2)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 자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학부모의 약 94%는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응답함.

○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나 해당 웹 사이트의 조치에 의존하는 편이며, 자녀 교급이 높을수록 상대방 측에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법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 있음. 특히 법률 절차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음.

[그림 Ⅵ-8]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표Ⅵ-8]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 제기 | 94.4 | 97.0 | 95.0 | 91.5 | 94.6 | 94.2 |
|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 또는 상대방 접근 차단 | 87.0 | 90.5 | 86.5 | 84.6 | 89.0 | 85.9 |
| 전문 상담기관에서 면담 또는 주변 자문 | 85.5 | 87.5 | 88.7 | 80.8 | 88.3 | 83.9 |
|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사과 요구 | 79.2 | 77.7 | 77.9 | 81.6 | 78.8 | 79.4 |
| 법률적 절차 통해 상대방의 처벌 요구 | 78.6 | 72.9 | 80.7 | 81.6 | 81.4 | 77.1 |
|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 | 3.8 | 1.5 | 3.9 | 5.7 | 3.6 | 4.0 |

# 3. 사이버폭력 예방

## 가. 사이버폭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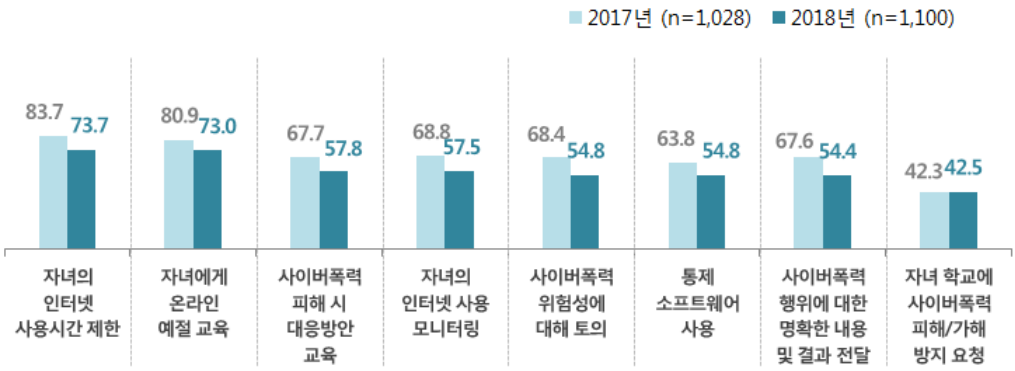
### (1) 기존 예방 방법

○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10명 중 7명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을 하고 있음.

○ 자녀 교급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예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음.

[그림 VI-9] 기존 예방 방법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표VI-9] 기존 예방 방법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 | 73.7 | 88.7 | 76.8 | 58.5 | 76.8 | 72.0 |
|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 73.0 | 84.5 | 73.8 | 62.7 | 76.3 | 71.2 |
|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 57.8 | 62.5 | 60.5 | 51.5 | 60.7 | 56.2 |
| 자녀의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 | 57.5 | 81.3 | 53.6 | 41.3 | 59.7 | 56.4 |
| 사이버폭력 위험성에 대해 토의 | 54.8 | 63.4 | 59.4 | 43.5 | 58.7 | 52.7 |
|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 54.8 | 72.9 | 53.0 | 41.3 | 55.6 | 54.4 |
|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결과 전달 | 54.4 | 62.2 | 57.2 | 45.3 | 59.2 | 51.7 |
| 자녀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 요청 | 42.5 | 47.3 | 42.8 | 38.1 | 44.6 | 4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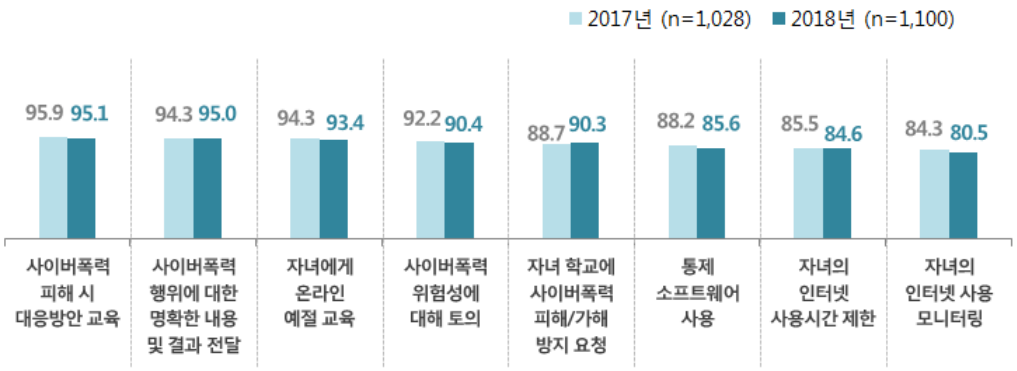
(2)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방 방법

○ 학부모들은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을 교육하는 것과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과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결과 전달'에 대해서는 자녀 교급이 중·고등학교 교급인 학부모의 응답 비율은 비슷하나, 초등학교 교급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음. 나머지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Ⅵ-10]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방 방법

(전체,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Ⅵ-10]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방 방법

(전체,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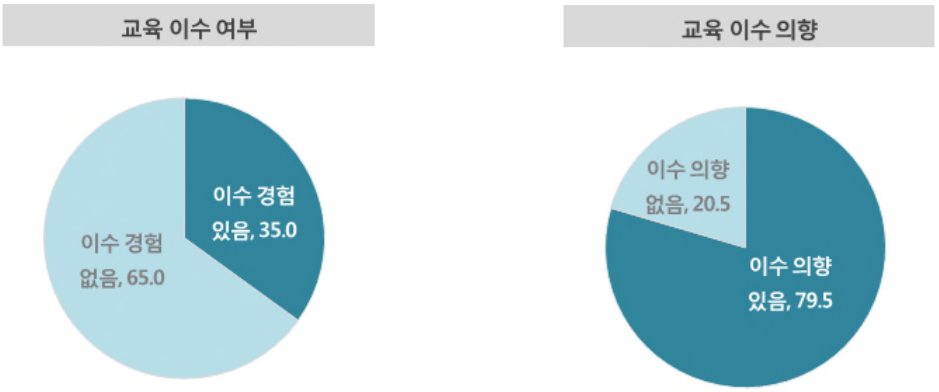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 95.1 | 98.8 | 93.4 | 93.5 | 96.7 | 94.2 |
|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결과 전달 | 95.0 | 97.6 | 93.9 | 93.8 | 95.9 | 94.5 |
|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 93.4 | 98.2 | 94.2 | 88.6 | 95.2 | 92.4 |
| 사이버폭력 위험성에 대해 토의 | 90.4 | 95.5 | 90.9 | 85.6 | 91.8 | 89.5 |
| 자녀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 요청 | 90.3 | 94.6 | 90.9 | 86.1 | 91.1 | 89.8 |
|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 85.6 | 93.8 | 85.4 | 79.1 | 84.7 | 86.2 |
|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 84.6 | 94.3 | 84.5 | 76.6 | 85.5 | 84.2 |
| 자녀의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 | 80.5 | 93.8 | 77.6 | 72.1 | 81.4 | 80.1 |

(3) 교육 이수 여부 및 향후 이수 의향

-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는 35%에 불과하나,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시함.
-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학부모들의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교육 이수 의향이 높으며, 수도권 거주 학부모의 교육 이수 의향률이 비수도권 학부모에 비해 높음.

[그림 VI-11] 교육 이수 여부 및 향후 이수 의향

(전체, 단위: %)




[표VI-11] 교육 이수 여부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이수 경험 있음 | 35.0 | 26.8 | 39.5 | 37.8 | 31.4 | 37.0 |
| 이수 경험 없음 | 65.0 | 73.2 | 60.5 | 62.2 | 68.6 | 63.0 |

[표VI-12] 교육 이수 의향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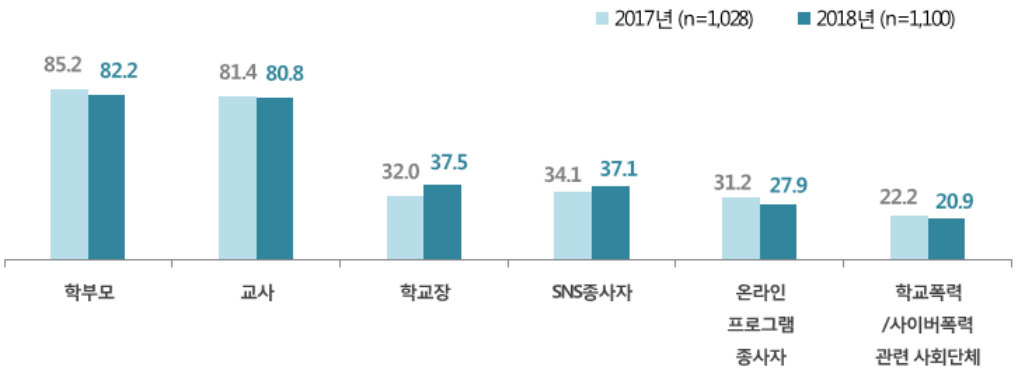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이수 의향 있음 | 79.5 | 84.8 | 78.2 | 76.4 | 81.6 | 78.4 |
| 이수 의향 없음 | 20.5 | 15.2 | 21.8 | 23.6 | 18.4 | 21.6 |

(4) 교육 대상 우선순위

- 학부모 대부분은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가 받아야 한다고 응답함.
-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학교장과 SNS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함.
-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학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그림 Ⅵ-12] 교육 대상 우선순위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표Ⅵ-13] 교육 대상 우선순위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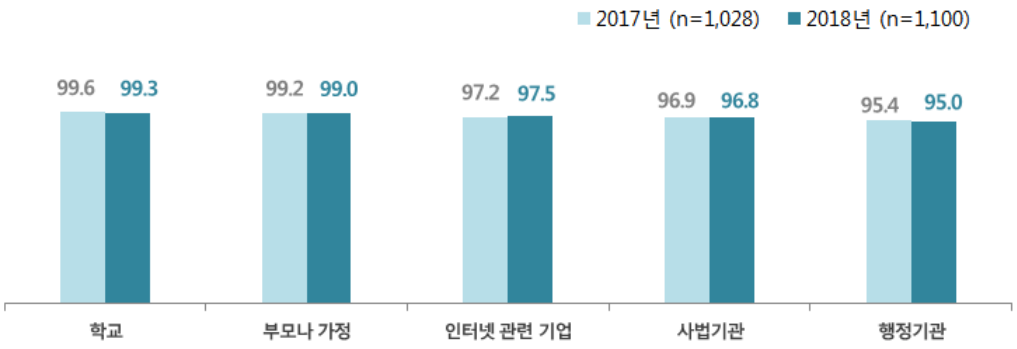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학부모 | 82.2 | 89.3 | 82.0 | 76.4 | 87.0 | 79.5 |
| 교사 | 80.8 | 81.3 | 82.0 | 79.4 | 80.9 | 80.8 |
| 학교장 | 37.5 | 31.8 | 39.8 | 40.3 | 34.7 | 39.1 |
| SNS 종사자 | 37.1 | 33.9 | 35.1 | 41.5 | 36.7 | 37.3 |
| 온라인 프로그램 종사자 | 27.9 | 27.7 | 27.3 | 28.6 | 29.1 | 27.3 |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 20.9 | 19.3 | 21.8 | 21.4 | 20.2 | 21.3 |

(5)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김.
- 2017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학교, 가정, 인터넷 관련 기업, 사법기관, 행정기관 순으로 나타남.
-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교부터 행정기관까지 모든 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교급과 상관없이 학교와 가정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VI-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전체, 단위: %, '중요하다' 및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




[표VI-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전체, 단위: %, '중요하다' 및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학교 | 99.3 | 100.0 | 99.4 | 98.5 | 99.5 | 99.2 |
| 부모나 가정 | 99.0 | 100.0 | 98.9 | 98.3 | 99.5 | 98.7 |
| 인터넷 관련 기업 | 97.5 | 98.2 | 98.6 | 96.0 | 97.4 | 97.6 |
| 사법기관 | 96.8 | 98.2 | 97.0 | 95.5 | 96.4 | 97.0 |
| 행정기관 | 95.0 | 97.3 | 94.8 | 93.3 | 94.4 | 95.3 |

## 4. 온라인 정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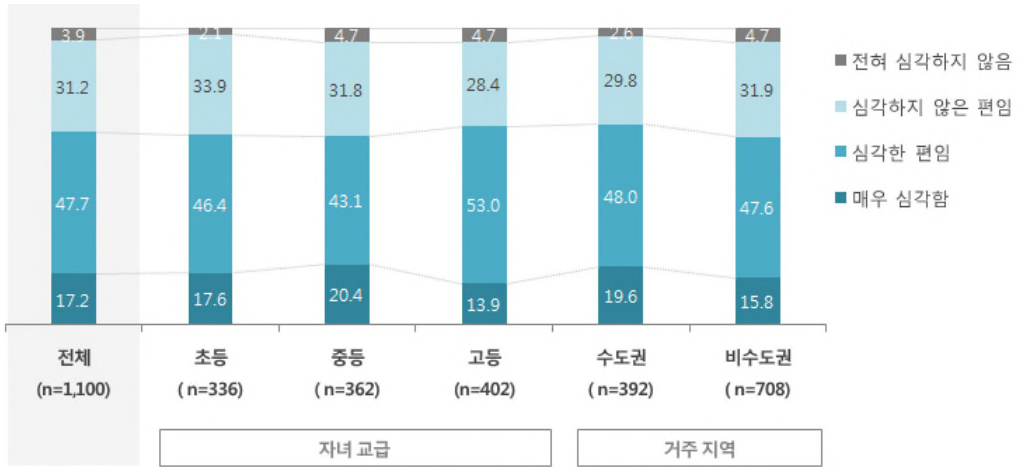
### 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 (1) 자녀 주변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 자녀 주변에서 사실이 아닌 온라인 정보가 공유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 10명 중 약 6명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 비해 온라인 허위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
- 수도권의 학부모들이 비수도권 학부모에 비해 온라인 허위 정보 공유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큼.

[그림 Ⅵ-14] 자녀 주변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전체, 단위: %)




[표Ⅵ-15] 자녀 주변 허위사실 공유 심각성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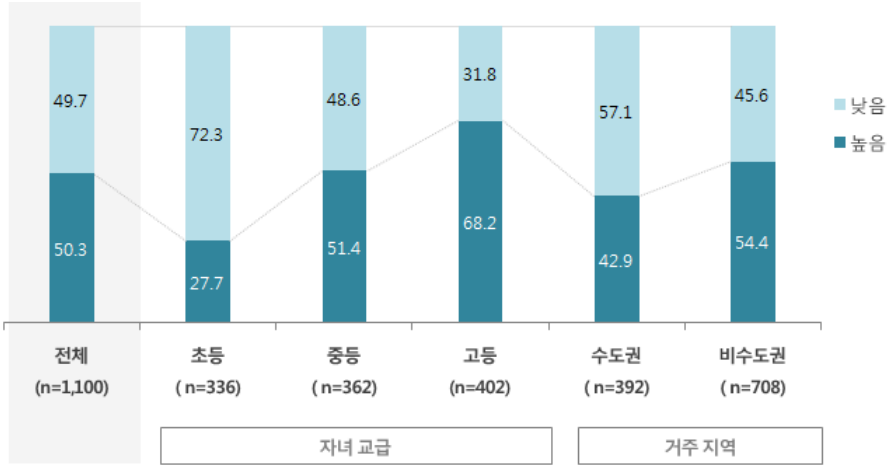
| 구분 |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 | 3.9 | 2.1 | 4.7 | 4.7 | 2.6 | 4.7 |
| ② 심각하지 않은 편임 | | 31.2 | 33.9 | 31.8 | 28.4 | 29.8 | 31.9 |
| ③ 심각한 편임 | | 47.7 | 46.4 | 43.1 | 53.0 | 48.0 | 47.6 |
| ④ 매우 심각함 | | 17.2 | 17.6 | 20.4 | 13.9 | 19.6 | 15.8 |
| 종합 결과 | ①+② 심각하지 않음 | 35.1 | 36.0 | 36.5 | 33.1 | 32.4 | 36.6 |
| | ③+④ 심각함 | 64.9 | 64.0 | 63.5 | 66.9 | 67.6 | 63.4 |

(2) 자녀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단력

- 학부모의 절반은 자녀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단력이 높다고 평가함.
- 자녀의 교급이 높을수록 자녀의 온라인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 있음.
-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판단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15] 자녀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단력

(전체, 단위: %)




[표VI-16] 자녀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단력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낮음 | 49.7 | 72.3 | 48.6 | 31.8 | 57.1 | 45.6 |
| 높음 | 50.3 | 27.7 | 51.4 | 68.2 | 42.9 | 5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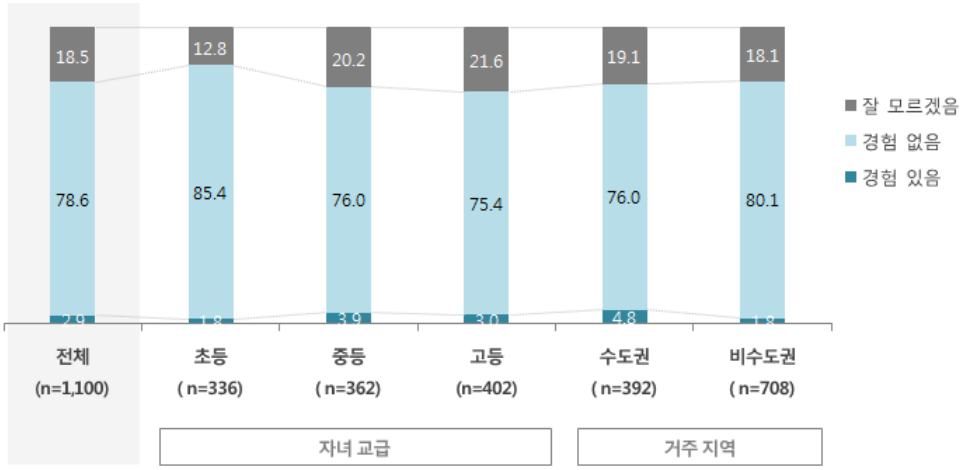
## 나. 허위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 (1)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 사실이 아닌 온라인 정보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전체의 2.9%임.
- 자녀 교급별로는 중학생(3.9%), 고등학생(3.0%), 초등학생(1.8%) 순으로 피해 경험 있으며, 자녀의 교급이 높을수록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 있음.
- 거주 지역 기준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비수도권 거주 학부모 대비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됨.

[그림 Ⅵ-16]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전체, 단위: %)




[표Ⅵ-17]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자녀 피해 경험 있음 | 2.9 | 1.8 | 3.9 | 3.0 | 4.8 | 1.8 |
| 자녀 피해 경험 없음 | 78.6 | 85.4 | 76.0 | 75.4 | 76.0 | 80.1 |
| 잘 모르겠음 | 18.5 | 12.8 | 20.2 | 21.6 | 19.1 | 1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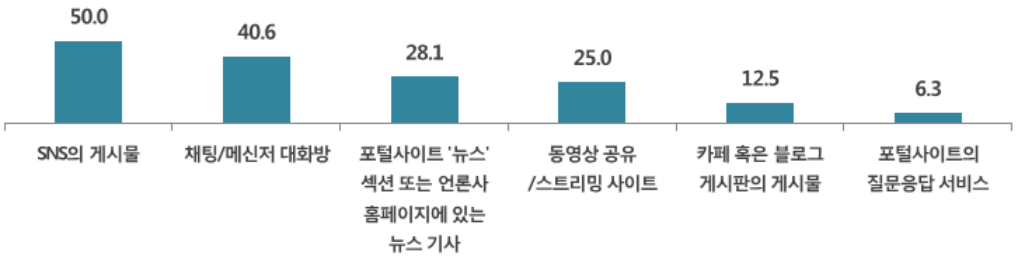
(2) 자녀가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26)]

○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해 자녀가 피해 받은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절반은 SNS 게시물 때문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채팅이나 메신저 대화방,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홈페이지의 뉴스 기사,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물 등으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동영상 공유 및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접촉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피해를 겪은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음.

[그림 VI-17] 자녀가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유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VI-18] 자녀가 피해 경험한 잘못된 정보 접촉 경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자녀 피해 유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32) | (6) | (14) | (12) | (19) | (13)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50.0 | 16.7 | 57.1 | 58.3 | 47.4 | 53.8 |
| 채팅/메신저 대화방 | 40.6 | 0.0 | 64.3 | 33.3 | 47.4 | 30.8 |
|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28.1 | 0.0 | 35.7 | 33.3 | 42.1 | 7.7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25.0 | 83.3 | 14.3 | 8.3 | 15.8 | 38.5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12.5 | 0.0 | 14.3 | 16.7 | 15.8 | 7.7 |
| 포털 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 | 6.3 | 0.0 | 0.0 | 16.7 | 10.5 | 0.0 |

26) 총 사례 수 32이며, 자녀 교급별/거주 지역별 사례수가 각각 25 미만인 것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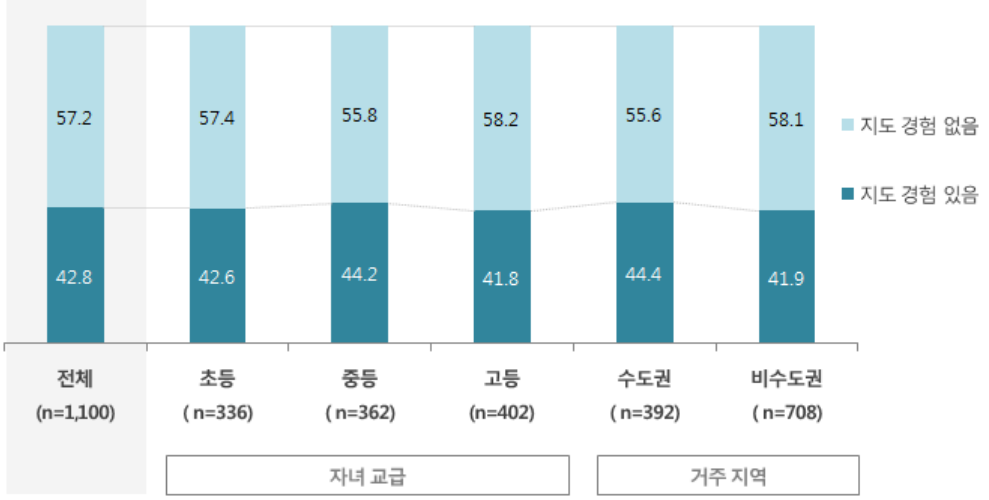
## 다. 정보 판별 필요성 인식

### (1) 자녀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 학부모 10명 중 4명꼴로 자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 경험이 있음.

[그림 Ⅵ-18] 자녀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전체, 단위: %)




[표Ⅵ-19] 자녀 대상 정보 판별 지도 경험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지도 경험 있음 | 42.8 | 42.6 | 44.2 | 41.8 | 44.4 | 41.9 |
| 지도 경험 없음 | 57.2 | 57.4 | 55.8 | 58.2 | 55.6 | 5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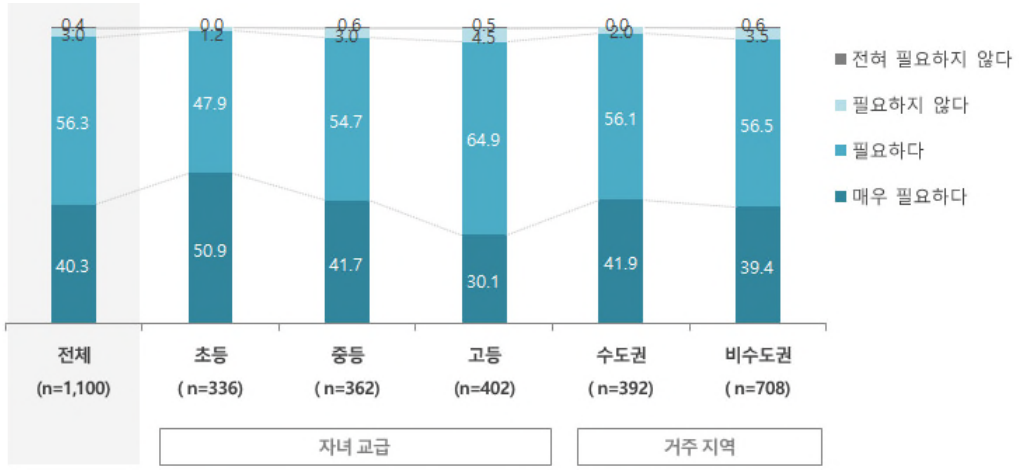
(2) 자녀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온라인 정보 판별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학부모는 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비수도권 거주 학부모에 비해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음.

[그림 VI-19] 자녀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전체, 단위: %)




[표VI-20] 자녀 대상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

(전체, 단위: %)

| 구분 |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0.4 | 0.0 | 0.6 | 0.5 | 0.0 | 0.6 |
| ② 필요하지 않다 | | 3.0 | 1.2 | 3.0 | 4.5 | 2.0 | 3.5 |
| ③ 필요하다 | | 56.3 | 47.9 | 54.7 | 64.9 | 56.1 | 56.5 |
| ④ 매우 필요하다 | | 40.3 | 50.9 | 41.7 | 30.1 | 41.9 | 39.4 |
| 종합 결과 | ①+② 필요하지 않음 | 3.4 | 1.2 | 3.6 | 5.0 | 2.0 | 4.1 |
| | ③+④ 필요함 | 96.6 | 98.8 | 96.4 | 95.0 | 98.0 | 95.9 |

라. 학부모의 정보 판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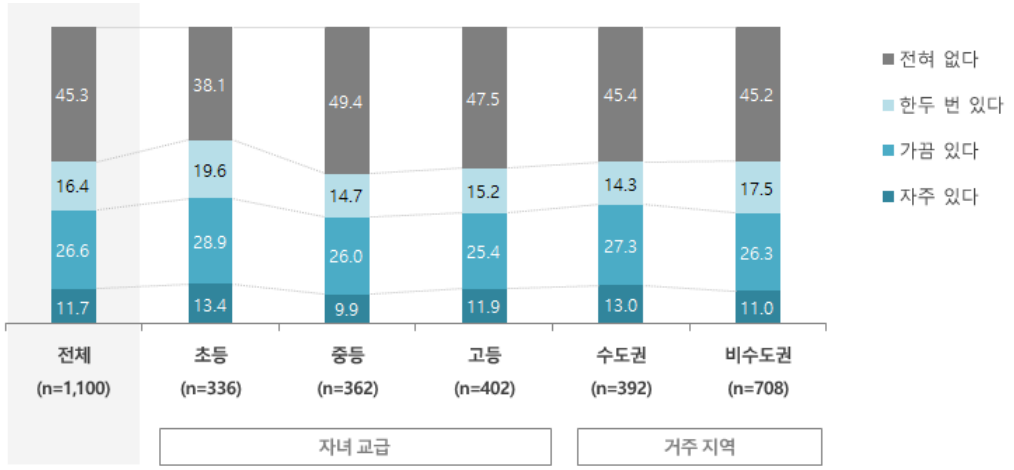
(1) 사실 확인 경험

○ 조사에 응한 학부모의 절반 정도인 54.7%가 최근 6개월 이내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본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 비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사실 확인 경험률이 61.9%로 가장 높음(중·고등학생 자녀 학부모의 확인 경험률 50~52%대 수준).

[그림 Ⅵ-20]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표Ⅵ-21] 사실 확인 경험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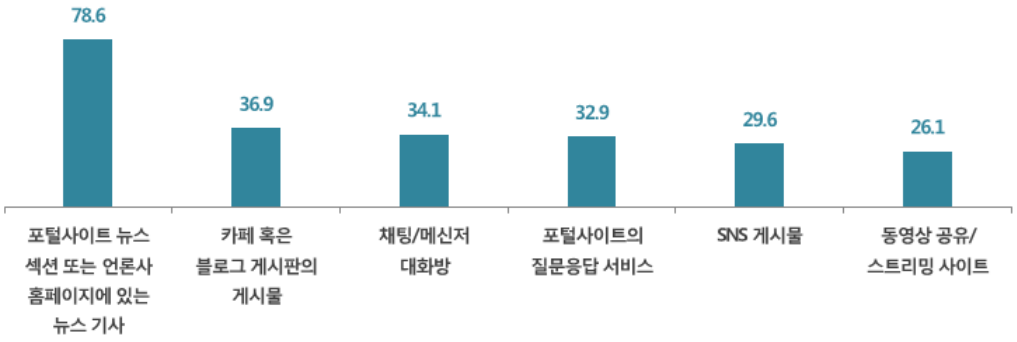
| 구분 |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전혀 없다 | | 45.3 | 38.1 | 49.4 | 47.5 | 45.4 | 45.2 |
| 한두 번 있다 | | 16.4 | 19.6 | 14.7 | 15.2 | 14.3 | 17.5 |
| 가끔 있다 | | 26.6 | 28.9 | 26.0 | 25.4 | 27.3 | 26.3 |
| 자주 있다 | | 11.7 | 13.4 | 9.9 | 11.9 | 13.0 | 11.0 |
| 종합 결과 | 경험 없음 | 45.3 | 38.1 | 49.4 | 47.5 | 45.4 | 45.2 |
| | 경험 있음 | 54.7 | 61.9 | 50.6 | 52.5 | 54.6 | 54.8 |

(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 사실인지 확인한 정보의 종류는 '포털 사이트 뉴스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가 78.6%로 가장 많음. 그 외, 10명 중 약 3명꼴로 '카페/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채팅/메신저 대화방 글', '포털 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 게시물', 'SNS 게시물' 등의 종류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됨.

[그림 VI-21]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VI-22] 사실 확인 정보 종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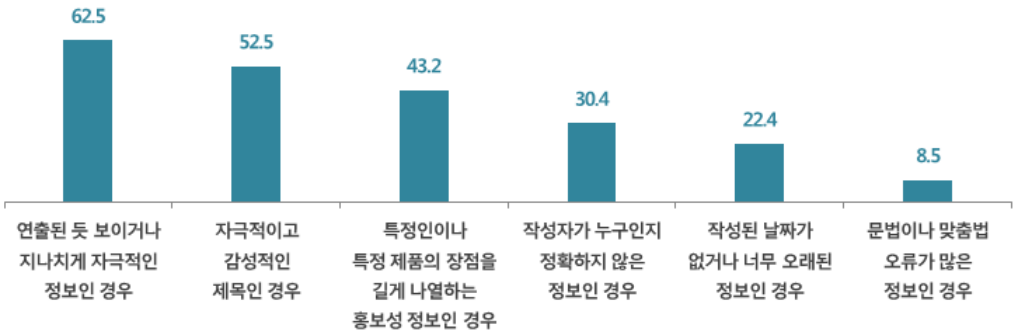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602) | (208) | (183) | (211) | (214) | (388)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78.6 | 78.8 | 76.0 | 80.6 | 77.6 | 79.1 |
|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36.9 | 37.5 | 35.5 | 37.4 | 36.0 | 37.4 |
|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4.1 | 32.2 | 31.7 | 37.9 | 32.7 | 34.8 |
|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32.9 | 34.6 | 32.2 | 31.8 | 35.5 | 31.4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9.6 | 21.6 | 30.6 | 36.5 | 31.8 | 28.4 |
|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26.1 | 29.3 | 20.8 | 27.5 | 28.5 | 24.7 |

(3) 사실 확인 이유

○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라서'(62.5%) >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이라서'(52.5%) >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성 정보라서'(43.2%) 등의 이유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

[그림 Ⅵ-22]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Ⅵ-23] 사실 확인 이유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602) | (208) | (183) | (211) | (214) | (388) |
|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62.5 | 65.4 | 55.2 | 65.9 | 63.1 | 62.1 |
|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52.5 | 58.2 | 47.0 | 51.7 | 55.1 | 51.0 |
|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43.2 | 43.3 | 42.6 | 43.6 | 41.1 | 44.3 |
|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30.4 | 26.9 | 31.1 | 33.2 | 30.8 | 30.2 |
|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22.4 | 14.4 | 25.7 | 27.5 | 20.1 | 23.7 |
|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8.5 | 8.7 | 6.0 | 10.4 | 7.5 |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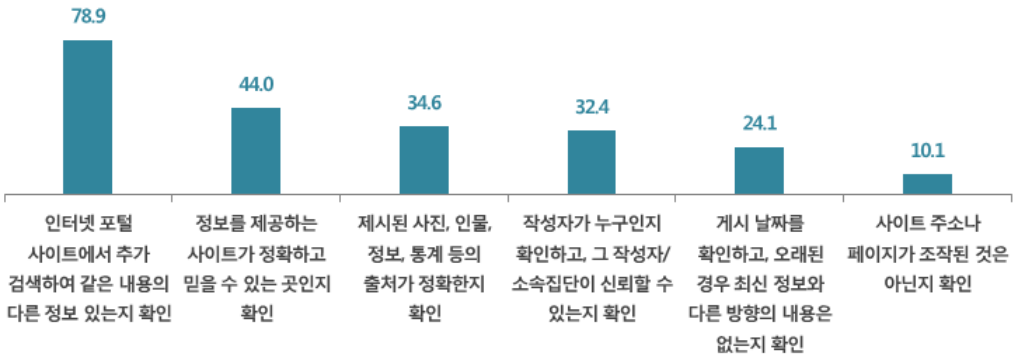
(4) 사실 확인 방법

○ 온라인 정보의 사실 확인 방법으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78.9%)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44.0%) >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34.6%) >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자/소속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32.4%)의 순으로 응답률 높음.

[그림 VI-23]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VI-24] 사실 확인 방법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확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602) | (208) | (183) | (211) | (214) | (388) |
|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78.9 | 78.8 | 82.5 | 75.8 | 79.9 | 78.4 |
|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44.0 | 46.2 | 41.5 | 44.1 | 42.1 | 45.1 |
|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34.6 | 34.6 | 29.5 | 38.9 | 29.4 | 37.4 |
|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32.4 | 30.3 | 32.8 | 34.1 | 36.0 | 30.4 |
|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24.1 | 18.8 | 29.5 | 24.6 | 24.8 | 23.7 |
|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10.1 | 8.7 | 8.2 | 13.3 | 11.2 |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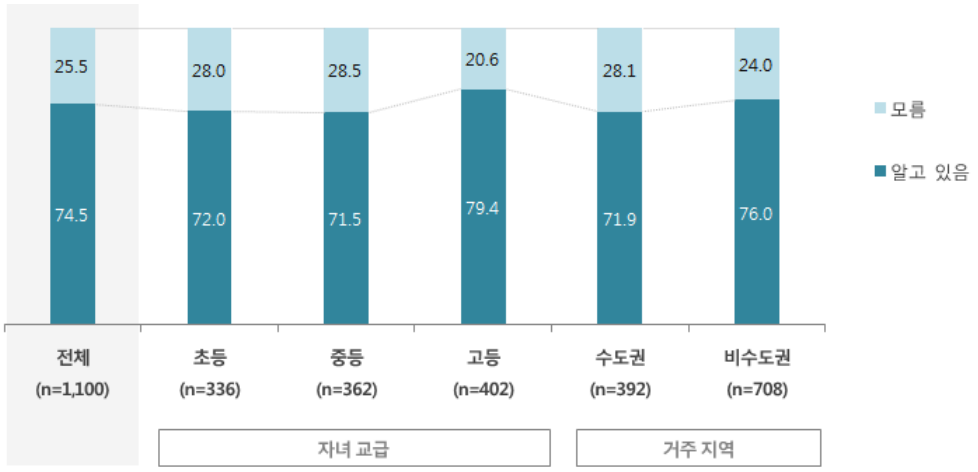
(5)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에 대하여 전체 학부모 응답자의 74.5%가 인지하고 있음.

○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인지율은 약 72%로 유사한 수준이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집단은 그보다 높은 79.4%의 인지율로 집계됨.

[그림 Ⅵ-24]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표Ⅵ-25] 허위사실 전파행동의 문제성 인식

(전체, 단위: %)

| 구분 | 전체 | 자녀 교급 | | | 거주 지역 | |
|---|---|---|---|---|---|---|
| | | 초등 | 중등 | 고등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례수) | (1,100) | (336) | (362) | (402) | (392) | (708) |
| 알고 있음 | 74.5 | 72.0 | 71.5 | 79.4 | 71.9 | 76.0 |
| 모름 | 25.5 | 28.0 | 28.5 | 20.6 | 28.1 | 24.0 |

# Ⅶ. 부록


1. 설문지 157
가. 학생용 157
나. 성인용 168
다. 교사용 178
라. 학부모용 185

# 1. 설문지

## 가. 학생용

|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생용) | ID | | | | | |
|---|---|---|---|---|---|---|

| 검증원 확인 | (학교에서 기입할 필요 없음) | 코딩원 확인 | (학교에서 기입할 필요 없음) |
|---|---|---|---|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을 파악하여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답변 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최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기관 |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
| 조사내용 문의 | (주)코리아리서치센터<br>– 홈페이지 : http://www.kric.com<br>– 담당자 : 이재인 선임연구원 (☎02-3415-5195) | | | | |

〈 응답방법 〉
※ 질문을 읽은 후 내 생각이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 또는 ㅁ칸에 ✔로 표시해 주세요.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세요.
※ 진행자(선생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마세요.

**〈응답자 정보〉**
학생 여러분의 성별, 학교 지역, 학년을 ✔로 표시해 주세요. 몇 반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쓸 필요 없습니다.

| 성별 | □ 1) 남 □ 2) 여 | |
|---|---|---|
| 학교지역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 |
| 학년 | □ 1) 초등학생 | □1) 4학년 □2) 5학년 □3) 6학년 |
| | □ 2) 중학생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
| | □ 3) 고등학생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
| 학교 명 | | |
| 설문 일시 | 2018년 (_____) 월 (_____) 일 (오전/오후) (_____) 시 (_____) 분 | |

(선생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마세요.)

## 1.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부하기, 기사 검색하기, 카카오톡하기, 동영상보기, TV보기, 음악듣기, 게임하기 등)

**문1번.** 학생은 평상시에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나요? **평일과 주말/공휴일 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 | **PC, 노트북 등**을 사용한 인터넷 이용시간 |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시간 |
|---|---|---|
| **평일** | 하루 평균 ( )시간 ( )분 | 하루 평균 ( )시간 ( )분 |
| **주말/공휴일** |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문2번.** 학생은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거의 이용 안 함 | 하루 30분 미만 | 하루 1시간 미만 | 하루 1시간 이상 |
|---|---|---|---|---|
| 1) 교육 · 학습 사이트 이용 및 학습 정보검색 | 1□ | 2□ | 3□ | 4□ |
| 2)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이용 | 1□ | 2□ | 3□ | 4□ |
| 3) 온라인 게임 이용 | 1□ | 2□ | 3□ | 4□ |
|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 1□ | 2□ | 3□ | 4□ |
| 5) 채팅,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 1□ | 2□ | 3□ | 4□ |
|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 1□ | 2□ | 3□ | 4□ |

**문3번.** 학생은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1)~6)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기타' 에 기입해주세요.

| 내 용 | 거의 이용 안 함 | 하루 30분 미만 | 하루 1시간 미만 | 하루 1시간 이상 |
|---|---|---|---|---|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1□ | 2□ | 3□ | 4□ |
|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1□ | 2□ | 3□ | 4□ |
| 3)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1□ | 2□ | 3□ | 4□ |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1□ | 2□ | 3□ | 4□ |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1□ | 2□ | 3□ | 4□ |
| 6) 온라인 게임 | 1□ | 2□ | 3□ | 4□ |
| 7) 기타(자세히: ) | 1□ | 2□ | 3□ | 4□ |

**문4번.** 다음 제시된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1)부터 8)까지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 1□ | 2□ | 3□ | 4□ |
|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동 | 1□ | 2□ | 3□ | 4□ |
| 3)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 | 1□ | 2□ | 3□ | 4□ |
| 4)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동 | 1□ | 2□ | 3□ | 4□ |
| 5)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동 | 1□ | 2□ | 3□ | 4□ |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 1□ | 2□ | 3□ | 4□ |
| 7)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동 | 1□ | 2□ | 3□ | 4□ |
| 8)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 1□ | 2□ | 3□ | 4□ |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5번.** 학생은 인터넷상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을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다면 얼마나 자주 봤나요? (인터넷 창에 우연히 팝업 되거나 채널 탐색을 하다가 원하지 않았으나 보게 된 것을 모두 포함)

| 내 용 | 전혀 없음 | 1년에 1~2회 | 3~4개월에 1회 정도 | 1달에 1회 이상 | 1주일에 1회 이상 |
|---|---|---|---|---|---|
| 1)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br>(예: 애완동물 학대, 폭행, 사고 현장 등) | 1☐ | 2☐ | 3☐ | 4☐ | 5☐ |
| 2) 야한 내용<br>(예: 신체 중요부위 노출, 성인 사이트 광고 등) | 1☐ | 2☐ | 3☐ | 4☐ | 5☐ |
| 3) 주변인, 혹은 유명인 등을 헐뜯는 내용<br>(예: 신상정보, 소문, 특정 집단 비하 등) | 1☐ | 2☐ | 3☐ | 4☐ | 5☐ |
| 4)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하는 불법 행동에 대한 내용<br>(예: 청소년이 담배 사는 법, 도둑질 등) | 1☐ | 2☐ | 3☐ | 4☐ | 5☐ |
| 5) 거짓 광고 및 돈거래 영상<br>(예: 거짓 제품 후기, 돈을 걸고 하는 게임 등) | 1☐ | 2☐ | 3☐ | 4☐ | 5☐ |
| ☞ 1)~5)의 5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 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6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br>☞ 나머지 응답자는 **문5_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 | | | |

**문5_1.** 학생은 위에서 본 적 있다고 선택한 인터넷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를 주로 어디서 봤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동영상 제공 서비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 1☐ |
| 2) SNS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 2☐ |
| 3) 온라인 사이트/커뮤니티 (홈페이지, 카페, 게시판 등) | 3☐ |
| 4) 기타(자세히: ) | 4☐ |

##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친구나 선후배,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잠깐!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행위
7. **사이버 갈취**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위
8.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문6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없음 | 지난 6개월간 한두번 | 한 달에 한두번 | 일주일에 한두번 | 거의 매일 |
|---|---|---|---|---|---|
| 1) 나는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3) 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4) 나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5)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7)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 있다. | 1□ | 2□ | 3□ | 4□ | 5□ |
| 8)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 있다. | 1□ | 2□ | 3□ | 4□ | 5□ |

☞ 1)~8)의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13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나머지 응답자는 **문7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7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누구에게** 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 1□ |
| 2)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 2□ |
| 3)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 3□ |
| 4)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 4□ |
| 5)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5□ |

**문8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했나요, 아니면 **혼자** 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여러 명과 함께 했다. | 1☐ |
| 2) 혼자서 했다. | 2☐ |

**문9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아무도 모른다. | 1☐ |
| 2)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 2☐ |
| 3) 친구들이 알고 있다. | 3☐ |
| 4)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 4☐ |

**문10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1☐ |
|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2☐ |
| 3)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3☐ |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4☐ |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5☐ |
| 6) 온라인 게임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11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1☐ |
| 2)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 2☐ |
| 3)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 3☐ |
| 4)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 4☐ |
| 5)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 5☐ |
| 6)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 6☐ |

**문12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후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1)부터 5)까지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 1☐ | 2☐ | 3☐ | 4☐ |
| 2)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 | 1☐ | 2☐ | 3☐ | 4☐ |
| 3)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 1☐ | 2☐ | 3☐ | 4☐ |
| 4)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 1☐ | 2☐ | 3☐ | 4☐ |
| 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 1☐ | 2☐ | 3☐ | 4☐ |

## 3.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친구나 선후배,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13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없음 | 지난 6개월간 한두번 | 한 달에 한두번 | 일주일에 한두번 | 거의 매일 |
|---|---|---|---|---|---|
| 1)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3)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4)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5) 누군가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7)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 있다. | 1□ | 2□ | 3□ | 4□ | 5□ |
| 8)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 있다. | 1□ | 2□ | 3□ | 4□ | 5□ |

☞ 1)~8)의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20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나머지 응답자는 **문14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14번.** 위와 같은 피해를 **누구로부터** 당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 1□ |
| 2)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 2□ |
| 3)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 3□ |
| 4)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4□ |

**문15번.** 위와 같은 피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주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주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 1□ |
| 2)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 2□ |

**문16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아무도 모른다. | 1□ |
| 2) 내 친구들이 알고 있다. | 2□ |
| 3)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 3□ |

**문17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다음 중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당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1☐ |
|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2☐ |
| 3)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3☐ |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4☐ |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5☐ |
| 6) 온라인 게임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18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지시문 |
|---|---|---|
| 1)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 1☐ | ☞ 문19번으로 이동 |
| 2)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 2☐ | |
| 3)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 3☐ | |
|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 4☐ | |
| 5)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5☐ | |
| 6)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 6☐ | ☞ 문18_1번으로 이동 |

**문18_1.** ☞ 문18번에서 6) 선택자만 응답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 1☐ |
| 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 2☐ |
| 3)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 3☐ |
| 4)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4☐ |
|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 5☐ |
| 6)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 6☐ |
| 7)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7☐ |
| 8)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 8☐ |

**문19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친구를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 1☐ | 2☐ | 3☐ | 4☐ |
| 2)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 | 1☐ | 2☐ | 3☐ | 4☐ |
| 3)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1☐ | 2☐ | 3☐ | 4☐ |
| 4)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1☐ | 2☐ | 3☐ | 4☐ |
|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 1☐ | 2☐ | 3☐ | 4☐ |
| 6)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 1☐ | 2☐ | 3☐ | 4☐ |

## 4.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친구나 선후배, 또는 모르는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문20번.** 최근 1년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본 적이 있다. | 1☐ ☞ **문2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 2) 본 적이 없다. | 2☐ ☞ **문22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문21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지시문 |
|---|---|---|
| 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 1☐ | ☞ **문22번**으로 이동 |
| 2)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 2☐ | |
| 3)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 3☐ | |
| 4)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4☐ | |
| 5)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5☐ | ☞ **문21_1번**으로 이동 |

**문21_1번.** ☞ 문21번에서 5) 선택자만 응답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 1☐ |
| 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2☐ |
| 3)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 3☐ |
| 4)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4☐ |
| 5)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 5☐ |
| 6) 대응해봐야 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6☐ |
| 7)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7☐ |

## 5. 온라인 정보 활용

지금부터는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22번.** 최근 6개월 간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적이 있나요?

| 전혀 없다 | 한, 두 번 있다 | 가끔 있다 | 자주 있다 |
|---|---|---|---|
| 1□<br>☞ 문23으로 이동 | 2□<br>☞ 문22_1로 이동 | 3□<br>☞ 문22_1로 이동 | 4□<br>☞ 문22_1로 이동 |

**문22_1번.** ☞ 문22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2_2번.** ☞ 문22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2□ |
| 3)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3□ |
| 4)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4□ |
| 5)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5□ |
| 6)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2_3번.** ☞ 문22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나요? 사용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2□ |
| 3)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3□ |
| 4)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4□ |
| 5)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5□ |
| 6)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3번.**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할 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 2☐ | 3☐ | 4☐ |

**문23_1.**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 2☐ | 3☐ | 4☐ |

**문24번.** 학교나 가정에서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중요하다' 는 내용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 내 용 | ✔ 선택 |
|---|---|
| 1) 예, 교육 받은 경험 있음 | 1☐ |
| 2) 아니오, 교육 받은 경험 없음 | 2☐ |

**문25번.** 온라인 정보 활용(사실 확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 2☐ | 3☐ | 4☐ |

**문26번.**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나요?

| 내 용 | ✔ 선택 |
|---|---|
| 1) 예, 경험한 적 있음 | 1☐ ☞ 문26_1로 이동 |
| 2) 아니오, 경험한 적 없음 | 2☐ ☞ 문27로 이동 |

**문26_1번.** ☞ 문26번에서 1) 선택자만 응답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 내 용 | ✔ 선택 |
|---|---|
| 1) 예, 피해를 본 적 있음 | 1☐ ☞ 문26_2로 이동 |
| 2) 아니오, 피해 본 적 없음 | 2☐ ☞ 문27로 이동 |

**문26_2번.** ☞ 문26_1번에서 1)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았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 다음 '팁' )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7번.**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유한 온라인 정보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내 용 | ✔ 선택 |
|---|---|
| 1) 알고 있었다. | 1☐ |
| 2) 몰랐다. | 2☐ |

## 6. 사회/심리 환경요인

**문28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주세요.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 1□ | 2□ | 3□ | 4□ |
| 2)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해본다 | 1□ | 2□ | 3□ | 4□ |
| 3)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못살게 굴던지 골려줘야 속이 시원하다 | 1□ | 2□ | 3□ | 4□ |
| 4) 나는 작은 일에도 흥분한다 | 1□ | 2□ | 3□ | 4□ |

**문29번.**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격려해주신다. | 1□ | 2□ | 3□ | 4□ |
| 2)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신다. | 1□ | 2□ | 3□ | 4□ |
| 3) 사소한 것도 여쭈어보면 잘 듣고 응답해주신다. | 1□ | 2□ | 3□ | 4□ |

**문30번.**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 1□ | 2□ | 3□ | 4□ |
|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1□ | 2□ | 3□ | 4□ |
| 3)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1□ | 2□ | 3□ | 4□ |

**문31번.**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없으면 '없음' 을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없음 | 1~3명 | 4~6명 | 7명 이상 |
|---|---|---|---|---|
| 채팅,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친구나 선후배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 1□ | 2□ | 3□ | 4□ |

**문32번.**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에 얼마나 관여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 ✔ 선택 |
|---|---|
| 1) 내 컴퓨터/스마트폰에 유해콘텐츠 차단 앱 또는 인터넷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나 앱을 설치해 둔다. | 1□ |
| 2) 나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앱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 2□ |
| 3)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가족 주민번호 등)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 3□ |
| 4) 나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해 둔다. | 4□ |
| 5) 위 4개 모두 해당되는 것 없음 | 5□ |

**문33번.** 우리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우리 학교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칙이 있다. | 1□ |
| 2) 우리 학교는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2□ |
| 3) 학교 선생님들은 평소 사이버폭력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 3□ |
| 4) 우리 학교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1년 이내). | 4□ |
| 5) 우리 학교 내에 사이버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적은 편이다. | 5□ |
| 6) 위 5개 모두 해당되는 것 없음 | 6□ |

**문34번.** 학생은 아래 정보들을 **알고 있었나요**? 아래 **2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사이버폭력에 관하여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고 있다. | 1□ | 2□ |
| 2)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1□ | 2□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나. 성인용

|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일반성인용) |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최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기관 |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
| 조사내용 문의 | (주)코리아리서치센터<br>– 홈페이지 : http://www.kric.com<br>– 담당자 : 이재인 선임연구원 (☎02-3415-5195) | | | | |

〈 응답방법 〉
※ 질문을 읽은 후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 또는 ㅁ칸에 ✔로 표시해 주세요.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세요.

### 〈응답자 정보〉

| | |
|---|---|
| 성별 | □ 1) 남 □ 2) 여 |
| 연령 | 만 _____ 세 |
| 거주지역 |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br>□9)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
| 학력 |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대학 재학/졸업 □ 4) 대학원 재학/졸업 |
| 직업 | □ 1) 전문/관리직 □ 2) 사무직 □ 3) 서비스/판매직 □ 4) 생산관리직<br>□ 5) 학생 □ 6) 전업주부 □ 7) 무직 □ 8) 기타( ) |
| 월 평균 가구 소득 | □ 1) 100만 원 미만 □ 2) 100~200만 원 미만 □ 3) 200~300만 원 미만 □ 4) 300~400만 원 미만<br>□ 5) 400~500만 원 미만 □ 6) 500~600만 원 미만 □ 7) 600~700만 원 미만 □ 8) 700~800만 원 미만<br>□ 9) 800~900만 원 미만 □ 10) 900~1,000만 원 미만 □ 11) 1,000만 원 이상 |

**[Programmer: 성, 연령, 지역 표본할당표 체크]**

## 1.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1번.**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평일과 주말/공휴일 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 | | |
|---|---|---|
| **평일** | **인터넷** | **스마트폰** |
| | 하루 평균 (  ) 시간 (  )분 | 하루 평균 (  ) 시간 (  )분 |
| **주말/공휴일** | **인터넷** | **스마트폰** |
| | 하루 평균 (  ) 시간 (  )분 | 하루 평균 (  ) 시간 (  )분 |

**문2번.**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거의 이용 안 함 | 하루 30분 미만 | 하루 1시간 미만 | 하루 1시간 이상 |
|---|---|---|---|---|
| 1) 교육 · 학습 사이트 이용 및 학습 정보검색 | 1□ | 2□ | 3□ | 4□ |
| 2)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이용 | 1□ | 2□ | 3□ | 4□ |
| 3) 온라인 게임 이용 | 1□ | 2□ | 3□ | 4□ |
|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 1□ | 2□ | 3□ | 4□ |
| 5) 채팅,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 1□ | 2□ | 3□ | 4□ |
|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 1□ | 2□ | 3□ | 4□ |

**문3번.**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1)~6)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기타' 에 기입해주세요.

| 내 용 | 거의 이용 안 함 | 하루 30분 미만 | 하루 1시간 미만 | 하루 1시간 이상 |
|---|---|---|---|---|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1□ | 2□ | 3□ | 4□ |
|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1□ | 2□ | 3□ | 4□ |
| 3)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1□ | 2□ | 3□ | 4□ |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1□ | 2□ | 3□ | 4□ |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1□ | 2□ | 3□ | 4□ |
| 6) 온라인 게임 | 1□ | 2□ | 3□ | 4□ |
| 7) 기타(자세히:  ) | 1□ | 2□ | 3□ | 4□ |

**문4번.** 다음 제시된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 1□ | 2□ | 4□ | 5□ |
|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동 | 1□ | 2□ | 4□ | 5□ |
| 3)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 | 1□ | 2□ | 4□ | 5□ |
| 4)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동 | 1□ | 2□ | 4□ | 5□ |
| 5)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동 | 1□ | 2□ | 4□ | 5□ |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 1□ | 2□ | 4□ | 5□ |
| 7)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동 | 1□ | 2□ | 4□ | 5□ |
| 8)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 1□ | 2□ | 4□ | 5□ |

**문5번.** 인터넷상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이 있으신 경우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인터넷 창에 우연히 팝업 되거나 채널 탐색을 하다가 원하지 않았으나 보게 된 것을 모두 포함)

| 내 용 | 전혀 없음 | 1년에 1~2회 | 3~4개월에 1회 정도 | 1달에 1회 이상 | 1주일에 1회 이상 |
|---|---|---|---|---|---|
| 1)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예: 애완동물 학대, 폭행, 사고 현장 등) | 1□ | 2□ | 3□ | 4□ | 5□ |
| 2) 야한 내용 (예: 신체 중요부위 노출, 성인 사이트 광고 등) | 1□ | 2□ | 3□ | 4□ | 5□ |
| 3) 주변인, 혹은 유명인 등을 헐뜯는 내용 (예: 신상정보, 소문, 특정 집단 비하 등) | 1□ | 2□ | 3□ | 4□ | 5□ |
| 4)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하는 불법 행동에 대한 내용 (예: 청소년이 담배 사는 법, 도둑질 등) | 1□ | 2□ | 3□ | 4□ | 5□ |
| 5) 거짓 광고 및 돈거래 영상 (예: 거짓 제품 후기, 돈을 걸고 하는 게임 등) | 1□ | 2□ | 3□ | 4□ | 5□ |
| **[Programmer: ☞ 1)~5)의 5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6번으로 이동 ☞ 나머지 응답자는 문5_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 | | | | |

**문5_1.** 그렇다면, 해당 인터넷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를 주로 어디서 보셨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동영상 제공 서비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 1□ |
| 2) SNS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 2□ |
| 3) 온라인 사이트/커뮤니티 (홈페이지, 카페, 게시판 등) | 3□ |
| 4) 기타(자세히: ) | 4□ |

##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잠깐!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행위
7. **사이버 갈취**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위
8.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문6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 을 선택하시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없음 | 지난 6개월간 한두번 | 한 달에 한두번 | 일주일에 한두번 | 거의 매일 |
|---|---|---|---|---|---|
| 1) 나는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3) 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4) 나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5)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직장,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7)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 있다. | 1□ | 2□ | 3□ | 4□ | 5□ |
| 8)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 있다. | 1□ | 2□ | 3□ | 4□ | 5□ |
| **[Programmer: ☞ 1)~8)의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13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br>**☞ 나머지 응답자는 문7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 | | | | |

**문7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친구/선후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 1□ |
| 2)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 2□ |
| 3)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 | 3□ |
| 4) 특정 기업이나 업체, 정부기관 등 | 4□ |
| 5)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5□ |

**문8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하셨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여러 명과 함께 했다. | 1□ |
| 2) 혼자서 했다. | 2□ |

**문9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아무도 모른다. | 1□ |
| 2)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 2□ |
| 3) 친구/지인들이 알고 있다. | 3□ |
| 4) 가족이 알고 있다. | 4□ |

**문10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1□ |
|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2□ |
| 3)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3□ |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4□ |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5□ |
| 6) 온라인 게임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11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1☐ |
| 2)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 2☐ |
| 3)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 3☐ |
| 4)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 4☐ |
| 5)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 5☐ |
| 6)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 6☐ |

**문12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하신 후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1)부터 5)까지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 1☐ | 2☐ | 3☐ | 4☐ |
| 2)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 | 1☐ | 2☐ | 3☐ | 4☐ |
| 3)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 1☐ | 2☐ | 3☐ | 4☐ |
| 4)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 1☐ | 2☐ | 3☐ | 4☐ |
| 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 1☐ | 2☐ | 3☐ | 4☐ |

## 3.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13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시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없음 | 지난 6개월간 한두번 | 한 달에 한두번 | 일주일에 한두번 | 거의 매일 |
|---|---|---|---|---|---|
| 1)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3)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4)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5) 누군가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직장,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7)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 있다. | 1☐ | 2☐ | 3☐ | 4☐ | 5☐ |
| 8)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 있다. | 1☐ | 2☐ | 3☐ | 4☐ | 5☐ |

**[Programmer: ☞ 1)~8)의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20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 나머지 응답자는 문14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문14번.** 위와 같은 피해를 **누구로부터** 당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친구/선후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 1☐ |
| 2)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 | 2☐ |
| 3)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3☐ |

**문15번.** 위와 같은 피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주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주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 1☐ |
| 2)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 2☐ |

**문16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아무도 모른다. | 1☐ |
| 2) 내 친구/지인들이 알고 있다. | 2☐ |
| 3) 가족이 알고 있다. | 3☐ |
| 4) 기타(자세히: ) | 4☐ |

**문17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다음 중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당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1☐ |
|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 2☐ |
| 3)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3☐ |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4☐ |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5☐ |
| 6) 온라인 게임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18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지시문 |
|---|---|---|
| 1)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 1☐ | |
| 2)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 2☐ | |
| 3) 친구, 가족, 교수님, 동료 등 주변에 알렸다. | 3☐ | ☞문19번으로 |
| 4) 해당 웹사이드에 신고하였다. | 4☐ | |
| 5) 상담 및 신고센터(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5☐ | |
| 6)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6☐ | ☞문18_1번으로 |

**문18_1.**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주위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 1☐ |
| 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 2☐ |
| 3)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3☐ |
| 4)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 4☐ |
|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 5☐ |
| 6)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6☐ |
| 7)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 7☐ |

**문19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 1☐ | 2☐ | 3☐ | 4☐ |
| 2) 학교 · 직장 · 가사 등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 1☐ | 2☐ | 3☐ | 4☐ |
| 3)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1☐ | 2☐ | 3☐ | 4☐ |
| 4) 우울 · 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1☐ | 2☐ | 3☐ | 4☐ |
|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 1☐ | 2☐ | 3☐ | 4☐ |
| 6)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 1☐ | 2☐ | 3☐ | 4☐ |

## 4.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친구나 선후배, 또는 모르는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문20번.** 최근 1년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내 용 | ✔ 선택 |
|---|---|
| 1) 본 적이 있다. | 1☐ ☞ **문2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 2) 본 적이 없다. | 2☐ ☞ **문22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문21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지시문 |
|---|---|---|
| 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 1☐ | ☞ **문22번**으로 이동 |
| 2)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주변에 알렸다. | 2☐ | |
| 3) 가족에게 알렸다. | 3☐ | |
| 4) 상담 및 신고센터(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 4☐ | |
| 5)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5☐ | ☞ **문21_1번**으로 이동 |

**문21_1.**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 1☐ |
| 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2☐ |
| 3)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 3☐ |
| 4)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4☐ |
| 5)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 5☐ |
| 6) 대응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6☐ |
| 7)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7☐ |

## 5. 온라인 정보 활용

지금부터는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22번.** 최근 6개월 간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적**이 있나요?

| 전혀 없다 | 한, 두 번 있다 | 가끔 있다 | 자주 있다 |
|---|---|---|---|
| 1☐ | 2☐ | 3☐ | 4☐ |

**문22_1번.** ☞ 문22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2_2번.** ☞ 문22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2□ |
| 3)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3□ |
| 4)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4□ |
| 5)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5□ |
| 6)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2_3번.** ☞ 문22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사용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2□ |
| 3)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3□ |
| 4)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4□ |
| 5)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5□ |
| 6)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3번.**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할 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 2□ | 3□ | 4□ |

**문23_1.**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 2□ | 3□ | 4□ |

**문24번.** 학교나 직장 등에서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중요하다' 는 내용의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 내 용 | ✔ 선택 |
|---|---|
| 1) 예, 교육 받은 경험 있음 | 1□ |
| 2) 아니오, 교육 받은 경험 없음 | 2□ |

**문25번.** 온라인 정보 활용(사실 확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 2□ | 3□ | 4□ |

**문26번.**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내 용 | ✔ 선택 |
|---|---|
| 1) 예, 경험한 적 있음 | 1□ ☞ 문26_1로 이동 |
| 2) 아니오, 경험한 적 없음 | 2□ ☞ 문27로 이동 |

**문26_1번.**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 내 용 | ✔ 선택 |
|---|---|
| 1) 예, 피해를 본 적 있음 | 1□ ☞ 문26_2로 이동 |
| 2) 아니오, 피해 본 적 없음 | 2□ ☞ 문27로 이동 |

문26_2번.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셨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7번.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유한 온라인 정보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내 용 | ✔ 선택 |
|---|---|
| 1) 알고 있었다. | 1□ |
| 2) 몰랐다. | 2□ |

## 6. 사회/심리 환경요인

문28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 1□ | 2□ | 3□ | 4□ |
| 2)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해본다 | 1□ | 2□ | 3□ | 4□ |
| 3)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못살게 굴던지 골려줘야 속이 시원하다 | 1□ | 2□ | 3□ | 4□ |
| 4) 나는 작은 일에도 흥분한다 | 1□ | 2□ | 3□ | 4□ |

문29번. 다음은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 결정/선택을 격려하고 응원해준다. | 1□ | 2□ | 3□ | 4□ |
| 2) 내가 사회생활/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본다. | 1□ | 2□ | 3□ | 4□ |
| 3)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잘 듣고 대답해준다. | 1□ | 2□ | 3□ | 4□ |

문30번. 다음은 동료/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 동료/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 1□ | 2□ | 3□ | 4□ |
| 2) 내 동료/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1□ | 2□ | 3□ | 4□ |
| 3) 나는 내 동료/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1□ | 2□ | 3□ | 4□ |

문31번.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동료가 있나요?

| 내 용 | 없음 | 1~3명 | 4~6명 | 7명 이상 |
|---|---|---|---|---|
| 채팅,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친구나 선후배/동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 1□ | 2□ | 3□ | 4□ |

**문32번.**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직장이나 학교, 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직장 내 사이버폭력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적 있다(최근 1년 이내). | 1☐ |
| 2)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 또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최근 1년 이내). | 2☐ |
| 3) 직장 내 온라인상에서의(메신저, 이메일, SNS 등) 명예훼손 발언이 적은 편이다. | 3☐ |
| 4) 위 3개 모두 해당되는 것 없음 | 4☐ ☞단독선택만 가능 |
| 5) 현재 소속된 직장/학교/단체 없음 | 5☐ ☞단독선택만 가능 |

**문33번.** 귀하께서는 아래 정보들을 **알고 계셨나요**?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사이버폭력에 관하여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고 있다. | 1☐ | 2☐ |
| 2)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1☐ | 2☐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 교사용

|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교사용) | ID | | | | |
|---|---|---|---|---|---|

| 검증원 확인 | (학교에서 기입할 필요 없음) | 코딩원 확인 | (학교에서 기입할 필요 없음) |
|---|---|---|---|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선생님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최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기관 |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
| 조사내용 문의 | (주)코리아리서치센터<br>– 홈페이지 : http://www.kric.com<br>– 담당자 : 이재인 선임연구원 (☎02-3415-5195) | | | | |

〈 응답방법 〉
※ 질문을 읽은 후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해당란에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 정보〉

| 성별 | □ 1) 남 □ 2) 여 | | | |
|---|---|---|---|---|
| 연령 | 만_____ 세 | | | |
| 학교지역(광역) |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br>□9)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 | | |
| 학교지역(기초) | ( ) 시/군/구 | | | |
| 재직 교급 및 담당 학년 | 1□ 초등학교 | 1□ 4학년 | 2□ 5학년 | 3□ 6학년 |
| | 2□ 중학교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 | 3□ 고등학교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 설문 일시 | 2018년 (_____) 월 (_____) 일 | ( 오전 / 오후 ) (_____) 시 (_____) 분 | | |

## 1. 학생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부하기, 기사 검색하기, 카카오톡하기, 동영상보기, TV보기, 음악듣기, 게임하기 등)

**문1번.** 선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1□ | 2□ | 3□ | 4□ |
| 2)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1□ | 2□ | 3□ | 4□ |
| 3) 친구들 간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1□ | 2□ | 3□ | 4□ |
| 4)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바람직하다. | 1□ | 2□ | 3□ | 4□ |

**문2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모른다 | 알고 있다 |
|---|---|---|
| 1) 학생들이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 1□ | 2□ |
| 2)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1□ | 2□ |
| 3) 학생들이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 1□ | 2□ |

**문3번.** 선생님께서는 평상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 | 담당 학생 중 일부만 | 담당 학생 대부분 |
| 1)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나 미니홈피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 1□ | 2□ | 3□ |
| 2)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 1□ | 2□ | 3□ |
| 3) 학생들과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 | 1□ | 2□ | 3□ |

## 2. 학생 사이버폭력 경험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지도중인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경험 및 선생님의 대응 경험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문4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 1□ | 2□ | 3□ | 4□ |

**문5번.** 선생님께서는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2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그렇지 않다 | 문제가 될 때만 한다 | 주기적으로 한다 |
|---|---|---|---|
| 1)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하거나 상담한 적이 있다. | 1□ | 2□ | 3□ |
| 2)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한 적이 있다. | 1□ | 2□ | 3□ |

**문6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발생한 적 없음 | 발생한 적 있음 |
|---|---|---|
| 1)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 | 1□ | 2□ |
| 2)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 | 1□ | 2□ |
| 3)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알려졌으나, 문제된 적은 없다. | 1□ | 2□ |
| 4)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가 알지 못한다. | 1□ | 2□ |

**문7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 1□ | 2□ | 3□ | 4□ |

## 3. 예방 활동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8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관련 공식적인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규정 내에 포함된 하위 규정이나 사이버폭력 별도 규정 모두 해당됨)

| 그렇다 |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
| 1□ ☞ 문9으로 이동 | 2□ ☞ 문11로 이동 | 3□ ☞ 문11로 이동 |

**문9번.** (☞문8에서 1 응답자만) 다음 중 어떤 형태의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5)까지의 보기 중에 없다면, '6)기타' 를 선택한 후 내용을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 내 용 | 선택 |
|---|---|
| 1)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 1□ ☞ 문9-1로 이동 |
| 2)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 | 2□ ☞ 문10으로 이동 |
| 3)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 3□ ☞ 문10으로 이동 |
| 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 4□ ☞ 문10으로 이동 |
| 5) 수업시간 중 휴대폰(스마트폰) 사용금지(압수 등) | 5□ ☞ 문10으로 이동 |
| 6) 기타 (자세히 기입: ) | 6□ ☞ 문10으로 이동 |

**문9_1.** (☞문9에서 1 응답자만) 근무 학교의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 절차는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다 | 구체적인 편이다 | 매우 구체적이다 |
|---|---|---|---|
| 1□ | 2□ | 3□ | 4□ |

**문10번.** (☞문8에서 1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관련된 공식적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2□ | 3□ | 4□ |

**문11번.** (☞문8에서 2 또는 3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도입이 시급한)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 1□ |
| 2)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 | 2□ |
| 3)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 3□ |
| 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 4□ |
| 5) 수업시간 중 휴대폰(스마트폰) 사용금지(압수 등) | 5□ |

**문12번.** 선생님께서는 담당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 1□ (단독선택만 가능) |
| 2)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혼낼 것이다. | 2□ |
| 3)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알리고,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 3□ |
| 4)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 4□ |
| 5)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기관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 5□ |
| 6)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 6□ |

**문13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문제 외에 아래와 같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 1□ | 2□ | 3□ | 4□ |
| 2)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 1□ | 2□ | 3□ | 4□ |
| 3)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다. | 1□ | 2□ | 3□ | 4□ |
| 4)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 1□ | 2□ | 3□ | 4□ |
| 5) 음란물, 폭력물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 | 1□ | 2□ | 3□ | 4□ |

**문14번.** 선생님께서는 학교 밖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학교의 공식적 규정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 2) 아니오 | 2□ |

**문15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대응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상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내 용 | ✔ 순위 기입 |
|---|---|
| 1) 교사 | 1□ |
| 2) 학교장 | 2□ |
| 3) 학부모 | 3□ |
| 4) 온라인 프로그램 종사자 | 4□ |
| 5) SNS 종사자 | 5□ |
| 6)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 6□ |
| 7) 기타 (자세히 기입: ) | 7□ |

**문16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문17로 이동 |
| 2) 아니오 | 2□ ☞ 문18로 이동 |

**문17번.** (☞문16에서 1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2□ | 3□ | 4□ |

**문18번.** (☞문16에서 2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 2) 아니오 | 2□ |

**문19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외에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상담, 권고, 조언 등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전혀 하지 않는다 | 별로 하지 않는다 | 가끔 한다 | 매우 자주 한다 |
|---|---|---|---|---|
| 1)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 | 1□ | 2□ | 3□ | 4□ |
| 2)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 문제 | 1□ | 2□ | 3□ | 4□ |
| 3)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 문제 | 1□ | 2□ | 3□ | 4□ |
| 4)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 | 1□ | 2□ | 3□ | 4□ |
| 5) 음란물, 폭력물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 1□ | 2□ | 3□ | 4□ |

**문20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보기에 제시된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내 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부모나 가정 | 1□ | 2□ | 3□ | 4□ |
| 2) 학교 | 1□ | 2□ | 3□ | 4□ |
| 3) 행정기관 | 1□ | 2□ | 3□ | 4□ |
| 4) 사법기관(경찰/검찰) | 1□ | 2□ | 3□ | 4□ |
| 5) 인터넷 관련 기업(포털/메신저/앱 관련 기업) | 1□ | 2□ | 3□ | 4□ |

## 4. 온라인 정보 활용

지금부터는 응답자 본인 및 지도 학생들의 온라인 정보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21번.** 선생님께서는 **최근 6개월간**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 전혀 없다 | 한, 두 번 있다 | 가끔 있다 | 자주 있다 |
|---|---|---|---|
| 1□<br>☞ 문22으로 이동 | 2□<br>☞ 문21_1로 이동 | 3□<br>☞ 문21_1로 이동 | 4□<br>☞ 문21_1로 이동 |

**문21_1번.** ☞ 문21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1_2번.** ☞ 문21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2□ |
| 3)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3□ |
| 4)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4□ |
| 5)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5□ |
| 6)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1_3번.** ☞ 문21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사용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2□ |
| 3)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3□ |
| 4)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4□ |
| 5)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5□ |
| 6)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22번.**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유한 온라인 정보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알고 있었다. | 1□ |
| 2) 몰랐다. | 2□ |

**문23번.** 지도하시는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사실이 아닌) 온라인 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음 | 심각하지 않은 편임 | 심각한 편임 | 매우 심각함 |
|---|---|---|---|
| 1□ | 2□ | 3□ | 4□ |

**문24번.** 지도하시는 학생들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낮음 〈---------- | | | ----------〉 높음 |
|---|---|---|---|
| 1□ | 2□ | 3□ | 4□ |

**문25번.**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 판별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지도 경험**이 있으십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 2) 아니오 | 2□ |

**문26번.**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 및 전파 등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 2□ | 3□ | 4□ |

**문27번.** 잘못된(사실이 아닌) 온라인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문27_1으로 이동 |
| 2) 아니오 | 2□ ☞ 설문 종료 |
| 3) 잘 모르겠음 | 3□ ☞ 설문 종료 |

**문27_1번.** ☞ 문27번에서 1) 선택자만 응답 피해를 받은 학생은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았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6□ |
| 7) 기타(자세히: ) | 7□ |
| 8) 잘 모르겠음 | 8□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라. 학부모용

|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부모용) | ID | | | | |
|---|---|---|---|---|---|

| 검증원 확인 | (학부모 기입할 필요 없음) | 코딩원 확인 | (학부모 기입할 필요 없음) |
|---|---|---|---|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최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기관 |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
| 조사내용 문의 | (주)코리아리서치센터<br>– 홈페이지 : http://www.kric.com<br>– 담당자 : 이재인 선임연구원 (☎02-3415-5195) | | | | |

### 〈응답자 정보〉

| | | | | | | | | | |
|---|---|---|---|---|---|---|---|---|---|
| 성별 | □ 1) 남 □ 2) 여 | | | | | | | | |
| 연령 | 만_____ 세 | | | | | | | | |
| 거주지역(광역) | □1)서울 | □2)부산 | □3)대구 | □4)인천 | □5)광주 | □6)대전 | □7)울산 | □8)세종 | |
| | □9)경기 | □10)강원 | □11)충북 | □12)충남 | □13)전북 | □14)전남 | □15)경북 | □16)경남 | □17)제주 |
| 거주지역(기초) | ( ) 시/군/구 | | | | | | | | |
| 직업 | □1) 전문/관리직 | | □2) 사무직 | | □3) 서비스/판매직 | | □4) 생산관리직 | | |
| | □5) 학생 | | □6) 전업주부 | | □7) 무직 | | □8) 기타( ) | | |
| (설문지를 받아온) 자녀 연령 | 1□ 초등학교 | 1□ 4학년 | 2□ 5학년 | 3□ 6학년 | | | | | |
| | 2□ 중학교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 | | | |
| | 3□ 고등학교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 | | | |
| 설문 일시 | 2018년 (_____) 월 (_____) 일 (오전/오후) (_____) 시 (_____) 분 | | | | | | | | |

〈 **응답방법** 〉 모든 응답은 본 설문지를 받아온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자녀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부하기, 기사 검색하기, 카카오톡하기, 동영상보기, TV보기, 음악듣기, 게임하기 등)

**문1번.**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 1□ | 2□ | 3□ | 4□ |
| 2)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 1□ | 2□ | 3□ | 4□ |
| 3) 친구들 간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등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 1□ | 2□ | 3□ | 4□ |
| 4)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 1□ | 2□ | 3□ | 4□ |

**문2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모른다 | 알고 있다 |
|---|---|---|
| 1) 자녀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 1□ | 2□ |
| 2)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1□ | 2□ |
| 3) 자녀가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 1□ | 2□ |

**문3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1) 자녀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 | 1□ | 2□ |
| 2) 자녀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 1□ | 2□ |
| 3) 자녀 친구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 | 1□ | 2□ |
| 4) 자녀와 인터넷메신저(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 | 1□ | 2□ |

## 2. 자녀 사이버폭력 경험

지금부터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및 부모님의 대응 경험에 대해 묻겠습니다.

### ※ 사이버폭력

☞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행위
7. **사이버 갈취**는 누군가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아 가는 행위
8. **사이버 강요**는 누군가 인터넷에서 나에게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문4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전혀 알지 못함 | 알지 못함 | 알고 있음 | 잘 알고 있음 |
|---|---|---|---|
| 1□ | 2□ | 3□ | 4□ |

**문5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 1□ | 2□ | 3□ | 4□ |

**문6번.**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문제 되는 청소년 비행**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래 7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성비행(성희롱, 성관계, 신체적 성폭력) | 1□ | 2□ |
| 2) 음주 | 1□ | 2□ |
| 3) 흡연 | 1□ | 2□ |
| 4) 가출 | 1□ | 2□ |
| 5) 왕따 | 1□ | 2□ |
| 6) 사이버폭력 | 1□ | 2□ |
| 7) 신체폭력 | 1□ | 2□ |

**문7번.** 귀하의 자녀가 사이버폭력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 1□ |
| 2)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 2□ |
| 3) 자녀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 | 3□ |
| 4) 자녀가 목격자인 경우 | 4□ |
| 5) 모르겠음 | 5□ (단독선택만 가능) |
| 6) 없음 | 6□ (단독선택만 가능) |

**문8번.** 귀하께서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 2)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 1□ | 2□ |
| 3)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 1□ | 2□ |
|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다. | 1□ | 2□ |
| 5) 전문 상담기관에서 면담을 받거나, 주변의 자문을 구할 것이다. | 1□ | 2□ |
| 6)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 1□ | 2□ |

**문9번.** 귀하께서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행한 사실(가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 2)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를 것이다. | 1□ | 2□ |
| 3)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게 할 것이다. | 1□ | 2□ |
| 4) 학교 측이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것이다. | 1□ | 2□ |
| 5)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용을 감시하거나 제재할 것이다. | 1□ | 2□ |
| 6) 전문 상담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볼 것이다. | 1□ | 2□ |

**문10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래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예 | 아니오 |
|---|---|---|
| 1)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토의 | 1□ | 2□ |
| 2)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 1□ | 2□ |
| 3)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 1□ | 2□ |
| 4)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 1□ | 2□ |
| 5)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결과를 전달 | 1□ | 2□ |
| 6)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함 | 1□ | 2□ |
| 7) 자녀안심차단과 같은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 1□ | 2□ |
| 8)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를 요청 | 1□ | 2□ |

**문11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각각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토의 | 1□ | 2□ | 3□ | 4□ |
| 2)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 1□ | 2□ | 3□ | 4□ |
| 3)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 1□ | 2□ | 3□ | 4□ |
| 4)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 1□ | 2□ | 3□ | 4□ |
| 5)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결과를 전달 | 1□ | 2□ | 3□ | 4□ |
| 6)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함 | 1□ | 2□ | 3□ | 4□ |
| 7) 자녀안심차단과 같은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 1□ | 2□ | 3□ | 4□ |
| 8)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를 요청 | 1□ | 2□ | 3□ | 4□ |

**문12번.**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 1□ | 2□ | 3□ | 4□ |

**문13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 2) 아니오 | 2□ |

**문14번.** 귀하께서는 향후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 2) 아니오 | 2□ |

**문15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대응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상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내 용 | ✔ 순위 기입 |
|---|---|
| 1) 교사 | 1□ |
| 2) 학교장 | 2□ |
| 3) 학부모 | 3□ |
| 4) 온라인 프로그램 종사자 | 4□ |
| 5) SNS 종사자 | 5□ |
| 6)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 6□ |
| 7) 기타 (자세히 기입: ) | 7□ |

**문16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문17번.**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보기에 제시된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내 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부모나 가정 | 1□ | 2□ | 3□ | 4□ |
| 2) 학교 | 1□ | 2□ | 3□ | 4□ |
| 3) 행정기관 | 1□ | 2□ | 3□ | 4□ |
| 4) 사법기관(경찰/검찰) | 1□ | 2□ | 3□ | 4□ |
| 5) 인터넷 관련 기업(포털/메신저/앱 관련 기업) | 1□ | 2□ | 3□ | 4□ |

## 4. 온라인 정보 활용

지금부터는 응답자 본인 및 자녀의 온라인 정보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18번.** 귀하는 **최근 6개월간**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 전혀 없다 | 한, 두 번 있다 | 가끔 있다 | 자주 있다 |
|---|---|---|---|
| 1□<br>☞ 문19으로 이동 | 2□<br>☞ 문18_1로 이동 | 3□<br>☞ 문18_1로 이동 | 4□<br>☞ 문18_1로 이동 |

**문18_1번.** ☞ 문18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18_2번.** ☞ 문18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인 경우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2□ |
| 3) 작성된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정보인 경우 | 3□ |
| 4) 연출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인 경우 | 4□ |
| 5)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의 장점을 길게 나열하는 홍보성 정보인 경우 | 5□ |
| 6) 문법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은 정보인 경우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18_3번.** ☞ 문18번에서 2),3),4)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사용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내 용 | ✔ 선택 |
|---|---|
|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추가 검색하여 같은 내용의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 1□ |
| 2)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작성자/소속 집단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 2□ |
| 3)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된 경우 최신 정보와 다른 방향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 | 3□ |
| 4) 제시된 사진, 인물, 정보, 통계 등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 | 4□ |
| 5)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 5□ |
| 6) 사이트 주소(URL, 도메인 주소 등)나 페이지가 조작된(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 | 6□ |
| 7) 기타(자세히: ) | 7□ |

**문19번.**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유한 온라인 정보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알고 있었다. | 1□ |
| 2) 몰랐다. | 2□ |

**문20번.** 자녀 주변에서 잘못된(사실이 아닌) 온라인 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음 | 심각하지 않은 편임 | 심각한 편임 | 매우 심각함 |
|---|---|---|---|
| 1□ | 2□ | 3□ | 4□ |

**문21번.** 자녀의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낮음 〈---------- | | | ----------〉 높음 |
|---|---|---|---|
| 1□ | 2□ | 3□ | 4□ |

**문22번.** 자녀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 판별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지도 경험**이 있으십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 2) 아니오 | 2□ |

**문23번.** 자녀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 사실 여부 판별 및 전파 등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 2□ | 3□ | 4□ |

**문24번.** 잘못된(사실이 아닌) 온라인 정보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내 용 | ✔ 선택 |
|---|---|
| 1) 예 | 1□ ☞ 문24_1으로 이동 |
| 2) 아니오 | 2□ ☞ 설문 종료 |
| 3) 잘 모르겠음 | 3□ ☞ 설문 종료 |

**문24_1번.** ☞ 문24번에서 1) 선택자만 응답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접한 정보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보았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내 용 | ✔ 선택 |
|---|---|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섹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 | 1□ |
|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게시물 | 2□ |
| 3) 채팅/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대화방 | 3□ |
| 4) 카페 혹은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물 | 4□ |
| 5)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트위치 등) | 5□ |
| 6) 포털사이트의 질문응답 서비스(예: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 6□ |
| 7) 기타(자세히: ) | 7□ |
| 8) 잘 모르겠음 | 8□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인 쇄 : 2018년 12월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분석기관 : ㈜코리아리서치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비매품>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사업의 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소유하고 있으며, NIA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IA 한국정보화진흥원